

# 교육개발

EDUCATIONAL DEVELOPMENT

제4권 2호 통권17호

1982. 4

特輯：進路教育의 課題

産業社會와 進路觀

適性和 進路指導

學習集團 構成과 進路指導

價値觀과 進路指導

進路觀 確立을 위한 家庭教育

進路觀 確立을 위한 學校教育

進路觀 確立을 위한 社會教育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韓國教育開發院은 우리의 傳統과 現實에 알맞는 教育의 理念, 目的, 內容, 方法 등에 관한 綜合的이며 科學的인 研究를 遂行하고, 韓國教育이 當面한 諸般問題를 해결하는 새로운 方案을 研究 開發하여 長期的인 國民教育發展에 寄與할 것을 目的으로 設立되었으며 韓國教育開發院 育成法(1973. 3 14 法律261號)에 依하여 保護育成되는 研究機關입니다.

본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연구개발 및 현장교육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교육전문지입니다. 교육에 관계되는 많은 문들이 이 간행물을 보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활동이나 교육문제에 대한 좋은 의견을 편집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卷頭言	두 개의 教育觀 : 進路教育의 問題 .....	副院長 / 3
論 壇	教職安定을 위한 政策方向 .....	柳炯鎮 / 4
	開放大學의 發展課題와 展望 .....	金水日 / 8
	學校教育 內實化의 問題 .....	孔鍾源 / 11
特 輯	進路教育의 課題	
	産業社會와 進路觀 .....	申君子 / 14
	適性과 進路指導 .....	柳基燮 / 17
	學習集團 構成과 進路指導 .....	金炳霖 / 19
	價値觀과 進路指導 .....	李載昌 / 23
	進路觀 確立을 위한 家庭教育 .....	李玉任 / 28
	進路觀 確立을 위한 學校教育 .....	李定根 / 31
研究報告	韓國人의 教育觀 .....	鄭英愛 / 36
	—— 類形的 特性과 意蘊 ——	
	靑少年 問題의 綜合診斷 .....	朴富權 / 42
研究動向	心理研究 動向分析 .....	羅 靜 / 48
海外教育	英國의 教科書研究 및 出版現況 .....	李大揆 / 52
	日本 初等教育界의 現況과 問題 .....	朴雅晴 / 54
國際會議 動 向	IEA 總會參加報告 .....	洪雄善 / 57
	教育放送 세미나 參加報告 .....	金亨立 / 59
	APEID 國民學校 統合教育課程 .....	郭柄善 / 60
	學校의 靑少年教育 共同研究 綜合會議 .....	李允植 / 62
	國民學校 學生의 英語教育方法 .....	李熙淑 / 64
	消息 .....	/ 66

편집위원

- ◇—
- |     |     |
|-----|-----|
| 위원장 | 오진석 |
| 위원  | 강상조 |
|     | 박병선 |
|     | 김영철 |
|     | 김락천 |
|     | 박승래 |



現場教育  
相 談  
院內動靜

# 교육방송 중계탑

## TV중학교 교육 방송 프로그램기본방향

- 영어** 1, 2, 3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전 과정을 기초부터 폭 넓게 생활 영어 중심으로 다룬다.
- 민주생활** 중학교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갈등 사태를 중심으로 가치판단 능력을 기르고 국가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기른다.
- 과학** 중학교 2학년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보충·심화시키고, 학교 현장에서 구하기 힘든 자료나 자연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 기술**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능을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습득시켜 건전한 노작관과 창조력을 양양하고 자신의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TV중학교 영어 교육 방송교재 활용 안내

- 가. 프로그램 시청전에 교재의 학습 목표를 확인한다.
- 나.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단어나 구를 미리 연습한다.
- 다. 교재에 수록된 대화를 암기하여 회화 능력을 기른다.
- 라. 연습문제를 통해 기본 원리 및 개념을 정리한다.
- 마. 중학생 뿐만 아니라 영어를 배운 지 오래된 시청자도 본 교재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함으로써 생활 영어를 숙달할 수 있다.

## TV중학교 주간 편성표 (KBS-3TV) →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 \ 시간
18 : 30	영 어	민주생활	영 어	과 학	영 어	기 술	17 : 00
19 : 00							17 : 30

## 두 개의 教育觀 : 進路教育의 課題

辛 世 浩  
(本院 副院長)

現代人에게 學校란 없어서는 안 될 社會的 機關이다. 父母로서 子息을 學校에 보내지 않으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學校教育이 다른 어떤 方法보다 子息의 進路에 유익한 學習을 效果的으로 시켜준다고 부모가 믿기 때문일 것이다. 말하자면 學校가 이렇게 必須의 機關으로 存在하는 主 理由는 그것이 갖는 職業的 價値, 또는 進路指導機能에 있는 것 같다. 이러한 現象은 教育熱이 높기로 잘 알려진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러한 것 같다. 初等教育이야 義務教育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그렇다고 하지만 初等卒業者의 대부분이 中學校에 進學(90% 정도)하고, 中學卒業者의 80% 정도가 高等學校에 진학하고, 高校卒業者의 50% 정도가 大學에 進學하고 있는 事實에 깔려있는 進學動機는 學校教育이 갖는 職業的 價値, 學校에 거는 職業準備 役割의 期待 같은 것으로 說明할 수 있는 것 같다.

學父母들이 子息을 가급적 上級學校로 보내려는데에 作用하는 教育觀은 위에서 잠깐 살펴 본 것처럼 다분히 實用的이며, 職業的이며, 出世志向의이다.

이러한 教育觀을 편의상 經濟社會的 教育觀이라고 해 두자. 이것은 대다수 學父母와 社會成人들 사이에 관찰되는 일반적인 教育觀이다.

그러나 教育을 設計하고 그것을 實踐하며, 그것을 理論적으로 이끌어 주고, 뒷받침해 주는 教育政策家, 教育者, 學者들 사이에 관찰되는 教育觀은 다분히 本質的이며 哲學的이다. 또 全人의 人間像을 追求하는 것이다. 그들은 學校教育의 根本을 個人生活, 社會生活, 國民生活에 必要한 基本的인 자질을 함양하는 일에 두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學校教育은 學生들에게 人生을 배우고 學問과 實生活에 필요한 基本的인 지식과 기 능과 태도를 배우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하며, 教室에서의 教授·學習經驗과 生活를 통한 체험으로서의 가치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다

양한 일의 세계로 學生을 안내하고 스스로 進路를 결정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教育觀을 편의상 人間形成的 教育觀이라고 해 두자.

이 두 教育觀의 差異는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자라나는 世代들을 教育시킬 것인가에 대한 學父母, 教育者, 教育政策決定者들의 意見差의 源泉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學校들은 대부분 이 두 教育觀과 여기에 기초를 둔 人間觀, 進路觀 사이에서 우왕좌왕해 온 감이 없지 않다. 어느 한 쪽에도 충실치 못한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린이들이 원하는 장래의 직업에 관한 一調査研究에 의하면 將軍, 社長, 高級公務員, 教授 등에 集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學父母들의 대부분은 經濟社會的 教育觀에 젖어 있으면서도 그들의 자녀들이 장차의 進路와 관련시켜 지금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들은 자녀들이 좋은 上級學校(대개의 경우 大學)에, 入學하느냐 못하느냐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마치 高學歷社會의 來到를 예언이라도 한듯 앞으로는 大學을 나와야 살 수 있고, 또 좋은 大學을 나와야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고 經濟社會的으로 보다 풍요한 未來가 약속된다는 자기들의 經驗을 子女들의 未來社會에 투사한다.

그들의 進路觀은 人氣大學의 人氣學科에 入學하는 것에 두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많은 教育者, 政策家들이 여기에 말려들어 왔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 未來社會가 우리들 既成人들이 살아 온 것과 같은 것일까? 未來社會는 學校教育에 人間形成的 教育觀을 요구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 오래 된다.

뒤 늦게나마 文敎部가 進路教育에 관한 政策決定과 研究開發을 결심한 것을 환영한다. ◼

# 教職安定을 위한 政策方向

柳 炯 鎮

(大韓教育聯合會長)

## I

教育은 敎員과 學生간의 구체적인 人間關係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敎員은 教育의 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存在임에 틀림 없다. 때문에 教育의 成敗는 敎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敎職에 優秀한 資質의 人材를 誘致하고, 確保된 良質의 敎員들에게 士氣를 북돋우기 위하여 바람직한 報償體系가 부여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敎職에 이미 들어 온 사람, 또는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의 欲求와 期待에 상응할 수 있는 報償賦與의 戰略은, 현재 사회 전체에 蔓延되어 있는 교직경시 풍조 및 敎員地位 轉落의 原因究明과 이에 대한 精確한 說明을 토대로 設定되어야 할 것이며 敎職安定을 위한 政策方向, 또한 이러한 脈絡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II

인간은 欲求를 充足시켜 주는 誘因이 제공될 때 일할 動機를 얻는다고 한다. 職務成就(Performance)에 있어서도 거기에 결부된 報償에서 비롯되는 效用 및 價値, 그리고 어떤 努力이 公平한 報償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期待 등이 職務遂行能力을 좌우한다고 한다. 예컨대 많은 報償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 그의 動機는 우선 俸給引上에 결부된 諸效用들(예를 들면 生活水準의 向上, 퇴직 후의 생활안정 자녀교육 등)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職務遂行의 動機는 俸給引上에 의해 부여되는 效用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이와 더불어 職務를 열심히 하면 俸給引上이 있을 것이라는 期待 또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Clayton P. Alderfer는 인간의 欲求範疇를 ① 生存欲求(existence needs) ② 對人關係維持欲求(relatedness needs) 및 ③ 成長欲求(growth needs)로 분류하고 인간의 動機 및 직무만족은 이들 욕구충족에 의해 發露된다고 한다. 즉 신체적인 生存維持·欲求, 對人關係에서 오는 愛情 및 尊敬에 대한 욕구, 自己實現 및 發展에 대한 욕구충족이 職務成就와 일할 動機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欲求充足을 위한 報償體系로서는 外在的 報償과 內在的 報償으로 나눌 수 있는바, 전자는 報酬·地位·昇進·安定 등과 같은 욕구충족과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고 후자는 무엇인가 價値있는 일을 성취시켰다는 個人的 느낌, 즉 自己實現的 욕구나 成長欲求를 충족시켜 주는 報償이라 하겠다.

그러면 敎職에 종사하고 있는 敎員들에게도 위

에서 지적인 報償體制가 과연 滿足스러운 수준에 와 있는가? 그들이 職務를 수행하면서 期待하는 유형·무형의 報償과 실제 그들에게 부여된 報償간에 현격한 差는 없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敎職不安의 要因은 무엇이며 實態는 어떠한가를 說明하므로써 自明해 질 것이다.

### III

敎職不安 및 敎원지위 轉落의 原因은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完全한 說明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몇가지 주된 要因을 들면, 첫째 社會文化的 變遷에 따른 敎員의 社會的 地位 下落을 들 수 있겠다.

産業社會로의 變遷과 價値選好의 취향이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로, 理想的 가치보다는 실제적 가치로 기울게 되면서, 敎職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格下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가르칠 精神的·文化的 內容을 교사만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교사 이외에는 정신적 영향과 지도를 받을 곳이 없었지만 오늘 날에는 서적이나 매스컴 및 學父兄들의 높은 교육수준 등으로 인하여 교사들이 지녔던 소위 정신적·문화적 영향력의 권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형편이다. 敎師의 權威가 예전에 비해 실추되었다 함은 이런 까닭에서 연유되었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敎職의 報酬體系 및 諸手當의 脆弱性이 敎職誘因價의 약화 및 敎職不安의 主要因이 되고 있다.

産業社會에서 報酬은 직업선택의 결정적 要因이 되고 있으며, 근무조건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다. 각종 직업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尊敬의 척도가 金錢的 給付에 달려있다 할 수 있고, 담당업무의 重要度에 관한 표준 또한 報酬라 할 수 있으며, 화폐의 단위로 표시되는 報酬는 경제적 지위를 가늠하는 눈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敎員의 경우 사범대학을 졸업한 중등 敎員의 初任給은 大企業體의 52%, 국영기업체의 66% 수준에 불과하며, 더구나 근무연한이 길어질 수록 報酬隔差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文敎部, 敎員의 사회적 지위향상 방안, 1979).

때문에 장기근속의 誘因價를 약화시키고 있다

하겠다.

敎員의 最高俸이나 昇給期間에 있어서도 他職 公務員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敎員의 最高俸은 敎員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직에 비해 1960년대 중반부터 계속 하락 조정되어 왔으며, 昇給期間에서도 他職種에 비해 長期일 뿐 아니라, 호봉간 昇給期間 역시 中堅敎員의 경우 2년 내지 3년 동안 같은 봉급으로 묶어 놓고 있다. 그 외에 敎職手當 등 각종 手當支給에 있어 명분에 불과한 惠澤 또한 敎員의 經濟的 地位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敎員의 勤務負擔 또한 敎職不安의 要因이라고 할 수 있다.

敎師는 교육을 통해 그의 人格的 表象이 학생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敎師들은 敎授·學習活動과 관련된 업무 외에도 여러가지 雜務, 예컨대 公簿整理, 公文書 處理, 金錢業務 取扱, 各種 會議 參加 등 술한 非專門的 業務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또한 과대규모 학교 및 과밀학급에서 비롯되는 과중한 學生負擔이나 법정사무직원이 없는 8학급 미만의 소규모 국민학교에서의 敎員의 사무부담 또는 敎員의 宿直勤務 등은 專門人으로서 교사의 專門的 地位를 弱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하겠다.

네째, 敎원을 위한 福祉厚生制度 및 施設의 未備도 敎職不安 要因의 하나라 하겠다.

우선 學校內 敎원복지 시설 면에서 볼 때 교사들의 休憩室이나 여교사 專用의 탈의실 등은 차치하고라도, 과대규모의 학교에서는 교무실 내에 個人專用的 책상도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또한 각종 教育情報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教育情報 綜合센터라든가, 敎원들의 共感帶 형성을 위한 훈련 및 연수시설, 지방교원 출장자를 위한 숙박시설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大韓敎聯이 최근 敎원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까닭도 정부의 福祉國家建設과 軌를 같이 하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다. 또한 敎員의 生活安定과 가족에 대한 扶養책임을 덜어주는 각종 福祉厚生制度, 예컨대 住宅融資, 不幸을 당했을 때의 家

族生計保障 등에 대한 실질적인 給與制度가 미흡하며 그 밖에 교원자녀 학비면제 및 장학금제도의 미비, 교원 자신의 自己發展을 위한 국내 및 海外研修의 경우 學費, 또는 經費補助 등의 적극적인 대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다섯째, 敎員人事行政上的 不合理도 敎職不安의 주요 要因이 되고 있다.

敎員人事行政은 學校教育을 담당할 人的 資源의 양성, 채용, 연수, 승진, 전보, 전직에 이르기까지의 全過程을 지원 관리하는 활동인바, 이들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우선 敎員養成過程에서 우수한 학생을 敎職에 유치할 수 있는 誘因價가 미흡하며, 교원양성 과정의 난립(특히 중등의 경우)으로 교원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며, 교원들의 現職研修가 形式化되어 교원의 자질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는 授業보다 昇進 내지 補職에 더 매력을 부여하는 行政優位の 意識構造가 형성되어 있어 교원들의 승진경쟁 과열화와 승진 좌절로 인한 교원들의 士氣低下 및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諸要因들로 인한 敎職不安의 實態 및 現狀으로는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하락이다. 敎聯調査(1978.9)에 의하면 敎職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순위가 총 32개 직종 가운데 초·중등 교원 모두 아주 낮은 수준에 속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專門의 地位의 下落과 함께 현직 교원들의 離職率이 높고 敎大·師大 졸업자의 교직기피 현상과 師大·敎大 지방자의 질적저하, 그리고 교직풍토에 질게 덮힌 士氣 저하와 無氣力 상태 등이 교직사회에 악순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겠다.

敎職의 不安은 곧 教育의 不安이요, 국가 장래의 赤信號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교직사회 전체가 이러한 不安과 士氣低下의 늪에 침체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빛바랜 聖職이라 하더라도 보람과 긍지와 책임 속에서 맡은 바 교직임무에 성실한 교원들도 많기 때문이다.

#### IV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敎職에 매력을 느끼며

矜持를 가지고 일생 동안 敎職에 봉사케 하기 위한 교직안정의 정책방향은 교원들의 欲求와 期待에 상응한 報償體制의 確立이라는 脈絡에서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한된 紙面으로 具體的인 方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몇가지 政策方向 내지 政策指標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 1. 敎員의 社會的 地位向上

敎員의 社會的 地位向上은 敎師의 權位回復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敎師의 權位回復은 敎師의 人格과 學問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能力의 具有와 社會의 敎員尊重 風土造成의 상호보완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2. 報酬制度和 諸手當 改善

敎員의 報酬水準은 企業體 賃金の 80% 水準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이며, 경력이 많아질수록 他職種에 비해 報酬의 水準이 떨어지지 않도록 長期勤續의 誘因價를 높이고, 單一號俸制의 정신을 살려 初·中等敎員間의 차등대우를 없애야 한다. 總昇給期間을 단축하고, 號俸間 昇給期間도 1年으로 單一化하며, 昇給回數도 年2회에서 年4회로 조정하여, 號俸 再査定分 경력이 切捨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敎員의 諸手當도 그 금액을 現實化하고 初·中等敎員間 지역간 격차를 줄여 初等敎員과 농어촌지역 敎員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方向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3. 勤務條件 改善과 福祉厚生制度 확충

敎員의 勤務負擔 輕減을 위해 學校 및 學級規模를 과감히 감축하여 敎員들의 學生負擔을 줄이고, 法定 配置基準에 의한 敎員數를 確保하여 敎員의 授業負擔을 경감하고 各種 雜務에서의 해방은 물론 모든 學校에 宿直專擔制 등을 확대 施行하여 日·宿直勤務로 인한 수업지장이 없도록 勤務條件을 改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복지후생제도가 실효성있게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은 물론 福祉厚生施設을 위한 투자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敎員子女의 學費는 大學까지 도 相當額이 면제될 수 있도록 國庫에 의한 學費補助 내지 장학금제도가 확충되어야 하며, 敎員 自身の 自己發展을 위한 國內·外 研修機會 제공 및 經費를 보조해 주는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4. 敎員人事制度의 刷新

敎員人事制度는 現行 敎員職, 敎育專門職, 敎育行政職 등의 資格基準, 任用基準 및 節次, 昇進體系, 轉補·轉職 등의 영역에서 敎員들의 不滿要因을 제거하고 보다 科學的이고 公正하며, 體系의인 人事管理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合理的인 人事制度가 定着되어야 할 것이다. 敎育專門職의 資格要件을 強化하고, 職前研修를 거쳐 資格을 부여하는 등의 資格制度 改善과, 교단을 지키는 評敎사의 우대책 마련이나, 보다 合理的인 새로운 昇進制度 定立과 現行 昇進과 관련된 諸 評定上의 문제점도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와 함께 敎員養成機關의 內實化 및 敎員 現職研修의 效率性도 提高할 수 있는 方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5. 敎職團體의 活性化

社會成員 중 敎員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의 社會的 機能의 重要性이나 專門的 역량 및 數的인 면에서 볼때, 매우 중요한 지식인 집단이다. 그들의 權利와 權益에 대한 意見의 開陳은 물론, 社會 및 國家發展을 위한 그들의 견해가 敎職團體에 의해 合理的으로 收斂된 意見이 政策決定 과정에 반영되므로써 國家·社會發展을 위한 求心的 역할자로서의 功績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언급한 諸 方向 및 課題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多數의 敎員들이, 共感하고 合意할 수 있도록 신중히 研究 檢討된 後 政策이 立案되어야 할 것이다. □

### 교과서를 소장하고 있는 분을 찾습니다

#### 교육과정 자료수집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C.D.C.(Curriculum Development Cente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소멸되어가고 있는 국내·외의 각종 교육과정 자료 및 교과서를 수집하여 “교과서 박물관(가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개인이나 학교, 기관, 단체에서 아래 주소로 연락하여 주시면 관계자와 직접 협의하고자 합니다.

#### 수집자료 내용

1. 개화기 이래 1960년대까지의 각종 교육과정 자료
  - 교육과정 관련문서
  - 각급 학교의 교과용 도서(교과서, 교사용 도서 등)
  - 각급 학교의 평가자료
  - 수업용 보충교재 및 학습자료
2. 외국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발행연도 및 국가에 관계없음)

연락처 : 134-03 서울 강남구 우면동 산 20-1

한국 교육 개발원 교육자료국(Tel. 567-5021)

# 開放大學의 發展課題와 展望

金 水 日  
(本院 人口·社會教育研究室長)

1982年 2月 18日 오후 3시에 京畿工業開放大學 列車는 懸板式을 통하여 出發의 汽笛을 울리면서 떠났다. 떠나는 列車의 속에 타고 있는 손님들을 餞送하는 한 사람으로서 흐뭇하고 기쁜 마음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반면에, 누구나 원한다면 탈 수 있는 列車의 座席이 많았으면, 언젠가 내릴 수 있고 탈 수 있는 列車였으면, 계속하여 必要한 燃料支援이 되었으면, 꾸준히 쉬지 않고 研究하는 자세로 손님의 接待에 친절과 관심 깊은 配慮를 아끼지 않는 旅客專務와 乘務員이 列車에 배치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어느 때까지 내리는 손님을 기다리고 마중나와 모셔가는 驛舍週邊이 되었으면 한다.

이제 京畿工業開放大學號의 餞送者 中の 일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開放大學의 意義, 發展課題, 그리고 展望에 관하여 진술하고자 한다.

## 開放大學의 意義

開放大學은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자격을 갖추었다면 入學할 수 있는 高等教育機關이다.

開放大學은 大學의 開放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은 高等教育 水準까지 教育機會를 開放하는 大學이다.

그러면 왜 開放大學 設置의 社會·經濟的 要求가 오늘의 문제로 부각되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첫째, 大學의 門戶는 制限되어 있고, 大學에 入學하기를 원하는 者는 많다.

둘째, 大學의 施設擴充이나 教授要員의 確保를 위하여 投資될 財源의 限界가 있을 것이다.

셋째, 有職勤勞者를 위한 正規 高等教育 機會의 提供은 現實的 狀況에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의 각도에서 본 開放大學 設置의 必要性은 教育缺損의 未然防止, 産業體 勤務者의 生産性 提高, 求職者의 就業機會 擴大, 國定豫算의 節減, 全 國民의 學習社會參與 등이다.

그러므로 開放大學體制는 第3의 教育體制에 있어 核心的인 役割을 遂行할 수 있고 第2次 教育週期에 있어 充分한 能力을 發揮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教育機會의 延長과 擴充에 기여할 수 있는 繼續教育의 役割을 遂行하고 能力을 發揮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教育과 研修를 맡아야 할 것이다.

## 開放大學 發展課題

開放大學은 Open Universty를 번역한 용어로서 이에 관련된 것은 Everybody College, Free College, Rapid result college, Open learning institute, Colleg of home Study, 그리고 College of guided independent study 등 이루 해야될 수 없다.

또한 教育·學習方法의 측면에서도 夜間大學, 週末大學, 季節制大學, 放送大學, 郵便通信大學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開放大學 有關用語와 教授·學習의 方法에서

풍기는 뜻을 우리나라의 開放大學에 含蓄·溶解하여 볼 때에 關聯集團 혹은 組織, 開放大學內部, 그리고 長期的인 綜合의 發展 등으로 大別할 수 있겠으나 本稿에서는 關聯集團 혹은 組織에 限定한다.

이는 京畿工業開放大學에 限하여 살펴 볼 때에 學生과 產業體, 正規學校, 社會教育機關, 그리고 政府이다.

첫째, 學生 및 產業體에 관한 것을 제시하는 이유는 京畿工業開放大學의 入學條件이 產業體에서 一年間 근무경험을 쌓은 者를 前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產業體에 소속된 者를 開放大學에 入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入學 이후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修學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教育 혹은 研修가 끝난 뒤에 應分の 昇級이나 혹은 昇進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產業體에서는 短期課程을, 產業體 근무자로서 入學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長期 혹은 學位課程을 바랄 경우 期間의 차이에 따른 產業體의 運營 및 時間의 調整이 피치 못할 사실이다.

또한 產業體가 요구하는 教科領域이 실제 開放大學에 設置·運營 與否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는 教育, 혹은 研修 이후에 生産성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正規學校 教育과의 관계이다. 工業高等學校의 卒業者로서 產業體에서 1年 이상 근무한 者는 開放大學의 專門大學課程에, 專門大學 卒業者로서 產業體에 1年 이상 근무한 者는 學士學位課程의 3學年에 入學할 수 있다.

그러면 實業高等學校의 측면에서는 正規大學에 進學도 못하였으며 產業體에 就業도 못한 者에게 대한 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로서 工高 出身者에게 就業의 機會를 갖도록 資質의 向上을 위한 補修教育을 遂行하지 않는 限 開放大學 入學의 機會를 놓치게 된다.

專門大學의 경우 무엇보다 4年制 大學進學의 길이 어려운 현실에서 就業方向으로 進路指導가 뒤 따라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就業의 機會가 保障될 수 있는 技能人의 養成에 力點을 두어야만 開放大學과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이다.

다음은 大學과의 관계인데 一般大學과 開放大

學과는 무엇보다 學點의 交流가 可能하여야 하겠다. 一般大學의 學生으로서 本人이 원할 경우 그리고 수강하기를 원하는 교과목이 開放大學에 단 開設되어 있으면 이를 履修하도록 허가하여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開放大學 學生으로서 一般大學의 特定教科를 수강하도록 허가되어야 하겠다.

또한 一般大學의 施設을 開放大學의 要請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教授陣 또한 해당분야별 開放大學 講義도 擔當하도록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社會教育機關은 開放大學과 깊은 관계를 맺어 相互協助體制를 유지하여야 하겠다. 社會教育의 對象이 靑少年 및 成人인 社會人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限 放送通信 高等學校에 在學中이면서 產業體에 근무 중인 者는 卒業과 同時에 開放大學에 本인이 원한다면 入學이 可能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放送通信大學의 경우에 있어서도 農學科와 人文·社會科學 系列인 現在에 있어 人文·教養科目은 開放大學이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開放大學 學生을 위한 講座를 승인하여야 하며 放送通信大學과 同等한 評價管理가 뒤따라야 하겠다.

또한 產業體 附設 研究 및 研修機關은 당연히 開放大學과 깊숙히 관련을 맺어야 하겠고 開放大學의 要請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教育課程 및 教授要目에 대한 諮問과 아울러 資源人士로서 理論과 實驗指導가 併行되어야 하겠다.

한편 健康·保健·體育分野의 社會教育機關은 어느 때든지 開放大學을 위한 施設의 公開利用과 아울러 資源人士의 開放大學生 指導에 관심있는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體育 6學點을 이수하여야 할 경우 社會教育機關에서 실시 중인 여가선용 프로그램 중 체육부분을 수강하고, 그 결과를 學點으로 인정하여 주는 具體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政府機關의 끊임없는 行·財政支援이다. 이는 무엇보다 主務機關은 文教部 中心이 되며 產業體와 관련있는 部處에서는 계속하여 開放大學 有關業務에 대한 協助·支援이 뒤 따라야 한다.

## 開放大學 展望

우리나라 6세 이상 人口 中에서 어느 水準의 學校教育도 받지 못한 不就學人口는 人口센서스 資料에 의하면 1970년에 경우 5,125,126명, 1975년에 4,215,299명, 그리고 1980년에 4,088,294 (인구센서스 1970, 75. 80—미출판자료 참조)명이다.

이들에 대한 成人基礎教育, 혹은 技能文盲教育을 社會教育의 측면에서 體系的 活動으로 進行될 수 있다면 開放大學의 教育 및 研修의 負擔은 한결 줄어들 수 있다. 또한 產業體 從業員과 많은 규모의 主婦까지도 開放大學의 教育對象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教育對象에서 볼 때에 開放大學의 展望은 밝다. 그러면 밝은 展望은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現實의 狀況에 의하여서 이다.

첫째, 後期 中等教育에 있어서 1980년에 한하여 보면 未進學者의 構成比는 全體卒業者의 數에 비하여 人文系 高等學校의 경우 약 49%, 그리고 實業系 高等學校는 약 85% (문교통계 1981 參照)이다. 이들에 대한 受容態勢를 實驗大學 단계에서 예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1980年 專門大學 및 初級大學을 포함한 大學卒業者의 全體數 119,499명에 비하여 進學者 數의 構成比는 12.5%, 就業者 41.0%, 그리고 入隊者를 포함한 無職者 46.5%이며, 또한 教育大學 卒業者를 除外한 就業者의 全體數에 대하여 專攻分野와 다른 職種에 근무 중인 者의 比는 약 17.9%에 해당된다(문교통계, 1981년, 참조), 여기서 고려될 수 있는 가정은 무작정 大學進學과 無條件 就業하고 보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같은 경향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떤 절차에 의하여서든지 開放大學에서는 研究되고 나

아가서는 適性에 알맞는 中·高級人力의 養成과 定置에 基礎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後期 中等教育부터 在學生과 卒業生을 除外한 中退者의 경우를 살펴보면 開放大學에서 거저 넘어 갈 수 없는 문제점이 예상된다.

高等學校 中退者의 數的 累計는 1970년에 112,907명, 1975년에 368,029명, 그리고 1980년에 273,223명이며, 專門 및 初級大學의 中退者는 1975년에 31,468명, 1975년에 38,417명, 그리고 1980년에 29,668명이고, 大學(校)의 中退者는 1970년에 101,562명, 1975년에 119,880명, 그리고 1980년에 250,127명이다(인구센서스, 1970, 1975, 1980년 미발표자료 참조).

이들 中退者에 대한 社會的 就業機會는 中退 水準까지의 學歷認定을 받아들일 수 없는 現實的 與件일 경우이라면 그들 또한 開放大學에 志願할 때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教育的 受惠要請이 있을 경우 그 요청의 정도가 무척 강하게 作用하면 放送通信 高等學校 그리고 放送通信大學과 관계깊은 事前協議에 의하여 繼續教育機會를 提供하므로써 教育의 本來週期에서 自意든 他意든간에 中斷되었던 그들에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開放大學 固有의 機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바라건대 이상의 教育對象을 몇가지 측면에서 提示하였으며 이들 對象을 受容하여 教育과 研修를 맡을 수 있는 開放大學의 實驗結果가 나오기를 바란다. 그러한 結果를 實驗段階의 產出으로서 期待함은 1972年 3月 9일에 開學된 韓國放送通信大學과 긴밀한 協助와 共同의 努力이 併行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願하는 者는 누구에게든지 高等教育機會가 開放된 大學”으로 發展할 수 있는 開放大學校를 의미한다. ○

# 學校教育 內實化의 問題

孔 鍾 源

(中央日報 論說委員)

7.30 교육개혁 조치가 있는 지 벌써 2년이 다 가온다. 그것은 우리 교육사에 있어서 前代未聞의 대개혁이었다.

그것의 功過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셋불리 결론지어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목표로 했던 것이 「교육정상화와 過熱課外解消」에 있었던 만큼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교육정상화와 과열 과외해소의 실적과 성과면에선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 점에서 보면 우선 교육정상화는 제켜두고 「과열과외해소」엔 분명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고 하겠다. 학교에 다녀오자마자 다시 과외를 받으러 달려가던 어린 학생들의 대열은 지금 외형상 거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입시학원이나 가정교사, 그룹지도 교사를 찾는 아우성도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주 다행한 현상이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뿐 아니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다.

교육 정상화를 한마디로 학교밖으로 밀려나 있던 교육이 학교 안으로 되돌아 온 것을 뜻한다.

교육이 학교 안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현상은 우선 출석률에서 나타난다. 특히 고등학교의 출석률은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조건도 있고 해서 크게 호전되고 있다. 학생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것도 한 변화다. 과외수업에 빼앗겼던 시간이 입시공부 아닌 다른 활동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단순히 학생들의 출

석률이 높다거나 공부시간 이외의 시간이 늘어난 것만으로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다.

학교교육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별 교육성과가 충실히 이루어져야만 「정상화」는 실제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

국민학교 학생들은 그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부담없이 배우며, 놀며, 자연과 사회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개구장이 친구들을 벗하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인간의 情과 건강한 삶의 기쁨을 키워야 한다.

그런 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는 기초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건강한 신체와 인격연마로 學業과 社會活動의 기반을 다진다.

대학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 외에 심오한 전문적 學問研究에 매진해야 한다. 그런 단계별 목적에 걸맞게 학교교육은 자기 內實化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학교교육의 內實化는 기본적으로 教師나 施設의 충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각각 외형적인 면, 수량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질적인 면, 내용적인 면에서 충실해야겠다는 뜻이다.

사실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교육시설과 교사 등은 선진 외국과 견줄 바가 못된다. 우선 우리나라 국민학교가 60명 학급이 대부분인데 비해 歐美의 1학급 학생수는 20명에서 30명이 고작이다. 일본의 경우는 40명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

한 시책이 8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수에 있어서도 미국 21명, 영국 24명, 프랑스 22명, 서독 24명, 소련 16명, 일본 25명으로 우리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더우기 중학교의 경우는 모든 나라가 17명에서 19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교사의 수나 교실의 수가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인 것은 명백하다. 과대학급·과대학교의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화한 것이어서 별로 대수로운 것이 없겠다는 느낌이지만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서울에서만도 1백개 학급을 넘는 과대학교가 28개교이며 학급당 70명을 넘는 과밀교실 보유 학교도 18개나 된다. 올해 35개의 학교를 새로 세우고 1천 4백 29개의 교실을 늘린다해도 현실적으로 2천 8백 17개의 교실이 부족하다. 이런 여건 아래서는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것은 교육적 환경면에서만이 아니고 건강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 분명하다.

특히 국민학교의 교육시설은 불미도 불마려니와 노후와 퇴락도 문제다. 삐걱거리는 복도와 층계, 재래식 화장실, 겨울의 연탄난로 등 어려운 형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고교의 과밀학급은 특히 학습지도의 면에서 뿐 아니라 생활지도의 면에서 문제가 된다. 그런 상황이니 가뜰이나 벽이 두터운 교사와 학생 사이가 개선될리 없다. 인간적인 情의 교류라든가 존경과 사랑의 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교과학습에 직접 관련이 없다해도 교사와 시설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오늘의 현실에서 학교가 시간 여유가 생긴 학생들을 위해 특별활동을 강화하고 독서지도나 실험실습강화, 과의활동을 장려한다해도 지도교사의 부족과 시설미비로 실효를 가두지 못하고 있다.

어느 면으로 보면 학생들의 특별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담당교사진의 특별한 양성계획도 있어야겠다. 학생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실험실습 시설의 확충·완비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外面的, 量的인 교육형태의 충실화도 중요하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의

내면적, 질적 충실화일 것이다. 그것은 물론 지육과 덕육과 체육의 일반적인 충실화를 뜻하겠으나 한마디로하면 「전전한 인간」을 키우는 일이라 하겠다. 초·중·고등학교의 과정에서는 특히 학생들이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지식, 기능 등을 속속들이 가르쳐야겠다. 곧 현실의 생활 가운데서 삶의 방식을 터득시키는 일도 되지만 민주적 시민사회의 한 성원으로 서 뒤떨어지지 않는 교양과 의식을 키우는 일도 된다.

거기엔 물론 교재의 마련에서부터 실제적 인성도야의 방법에 관한 연구와 실천이 밀반침돼야 할 것이다. 또 가르치는 주체인 교사의 인격수련도 아울러 중시되어야겠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말한마디와 일상적인 사소한 행동에서 학생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식도 있어야겠다.

교사들이 교육자의 양심과 사명에 투철하여 사랑과 성심으로 교육에 임할 때 그것은 교육의 성과로서 나타날 뿐 아니라 교육자 자신의 위신을 높이는 데도 틀림없이 기여하리라고 생각된다.

교사의 문제는 근대 우리 사회에서 적잖게 제기되었으나, 특히 이 윤상 군 사건을 계기로 타락된 師道라는 측면에서 심각했었다. 그것은 물론 한 교사의 일이며 전체 교직자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그 사건으로해서 노출된 교사의 일반적 문제들이 적잖게 사회문제화했던 점도 감안해야겠다. 그것은 분명 불행한 사태이지만 그것을 계기로 우리의 반성과 회오의 시간을 가졌던 것은 우리 현실에서 꼭 필요했던 것도 같다.

그러나 교사에게 요구만 많이하고 저우는 그에 미치지 못한 현실도 역시 문제다. 생활급이라고 하기 어려운 현재의 급여수준으로 교사의 권위를 보장한다거나 깨끗한 교육풍토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지 않는다는 인상이다.

교직에 관한 한 조사에서 보면 교사들이 자신의 직업은 「성스러운 직업이니만큼 특별한 소질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인정하고는 있으나(78%) 현실적으로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못하다」는 사람이 51%나 됐다. 그들은 특히 「수입이 적고 장래성이 없는 직업」이라는 한탄(71%) 속에서 전직이나 이직을 계획하기도 한다.

이 같은 조사결과가 오늘의 우리 교사들에게 꼭 들어맞는 것이라곤 보기어려우나 역시 교직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예임엔 틀림 없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선 오히려 학교의 시설이나 교육여건 문제보다 교사의 문제가 더 심각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교권의 확립이란 문제와도 연관된다. 오늘 우리 대학들이 직면한 문제로서 흔히 시설부족과 교수의 부족을 들고 있지만, 교수의 권위가 중요한 문제임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고교에서는 물론 대학에서조차 과밀강의실과 과다학생지도의 고민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이 행정당국에 의해 끊임없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의 권위가 인정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교권은 그 시대 사회 제도의 영향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일면으로 스스로 정취하고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식 속에서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교직자는 스스로의 문제를 결속된 힘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교직자들은 우선 학교근무의 조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겠다. 한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 중엔 교사사회의 비민주성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일부 교장과 교감의 교사들에 대한 군림의 태도가 정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실제로 교무실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이것은 전문교육자인 교사들에 대한 인격모독

일 뿐 아니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본질적인 장애로 국정할 수 있다.

거기에도 교사는 잡무와 숙직 등 근무조건 때문에 교육 그 자체에 심혈을 쏟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일부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교사들이 교육단체와 교육행정당국과 절충해서 끊임없이 개선을 추구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교사들은 또 교원 인사제도에 대해 개선을 바라고 있다. 일반적인 교사 배치문제에서 다양한 교육과 학교행정적 인사에 까지 전문적 교육경험을 중시하라는 요청도 적지 않다.

결국 학교교육에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와 인식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문제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인식은 되면서도 쉽게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전망도 반드시 밝지는 않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교육재정의 문제로 귀착되는 때문이다. 교육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함은 알면서도 안보와 국방이란 문제 앞에 뒤쳐지기만 했던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부의 과감한 교육투자가 더 이상 지체될 수 없을 것 같다. 과밀학급해소, 교원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교육세가 신설된 이상 더 교육투자의 지연은 허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의 내실화라는 중대한 국가목표를 놓고 이제 획기적 발전의 시대를 기대해야겠다. ○

▣ 교과서를 기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박 옥 기	구로구 가리봉동	알기쉬운 대수 (수정판) (1953刊)의 12권
김 기 표	전남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국교	改訂小學新理科 5年上 (1967刊)의 16권
노 행 남	전북 고창군 고창여중	현대 중등 글짓기 1 (1949刊)의 17권
김 홍 규	전북 정주시 정읍농고	민주통일의 길 중학교용 (1965刊)의 6권 35권
김 선 행	논산군 논산읍	普通學校 國史 卷二 (1933刊)의 69권
김 한 성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동 41	The Century Readers I (1927刊)의 314권

# 産業社會와 進路觀

申 君 子

(本院 教育基礎研究 3室長)

## 1. 産業社會와 價値觀 混亂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속한 工業化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서구사회에서 수백년에 걸쳐서 진행되어온 近代化가 불과 수십년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변동 속에서 社會의 여러 영역에서는 傳統的인 것과 近代的인 것 사이에 여러가지 양상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고, 특히 사회구성원의 價値觀이 크게 변질되기에 이르렀다.

歷史적으로 볼 때, 이조 500년은 儒敎的 價値觀에 의해 행동이 규제되다가 일제침략에 의해 軍國主義的·官僚主義的 價値觀이 받아들여졌고 해방 이후 서양문물이 도입되므로써 이제까지의 傳統的 倫理는 무너지고 西歐로부터 받아들인 近代的 價値觀은 우리의 實情과 일치하지 못하여 우리의 社會生活은 확고한 규범을 잃고 말았다.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 이렇듯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반면 가치판단을 필요로하는 상황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産業化 過程에서의 科學·技術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 분화는 職業의 種類와 內容을 복잡·다양하게 하므로써 個人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훌륭하게 적응해 가는 데는 단계 단계에서 여러 차례의 價値判斷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社會적으로 규범이 확고하게 합의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의 個人의 價値判斷은 일관성을 잃기 쉽고, 더구나 價値判斷 能力이 미숙한 젊은 세대의 進路觀 形成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 2. 産業社會 敎育의 課題 : 價値觀 確立

産業社會의 敎育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혼란된 가치체계를 바로 잡고, 未來社會 構成員인 오늘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價値判斷을 할 수 있도록 敎育하는 일이라 하겠다. 價値觀을 「人間이 여러가지 선택 대상 중에서 어떤 특정한 것을 보다 좋다고 택하는 성향」이라고 볼 때, 價値란 그 概念上 作用的 價値 (operative values), 觀念的 價値 (conceived values), 客觀的 價値 (objective values)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作用的 價値는 선택 대상이 제시되었을 때 現實적으로 나타나는 선택 유형이며, 觀念的 價値는 마음 속으로 일정행위의 결과를 예상하므로써 나타나는 선택 유형이며, 客觀的 價値란 제 3자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당사자에게 사실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발생하는 선택유형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價値의 概念에 비추어 볼 때 價値觀의 敎育이란,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客觀的 價値를 추출하고 그것을 심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技術적으로 內面化 시키는 작업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價値觀 敎育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최종적,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作用的 價値에 있겠으나 이것은 觀念的 價値가 先行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現代 産業社會에 있어서 傳統的 價値와 새로운 가치를 調和하여 확고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는 일은 進路 敎育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課題이다. 人間은 태어나 자라나면서 주



위환경 구성원에 의해 특정한 가치를 內面化하고, 自己의 未來를 설계하면서 서서히 진로선택을 하게 된다. 이때 異質의인 價値들 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이 갈등이 그대로 社會化 過程을 거쳐 內面化될 경우 個人은 진로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發展的 價値觀을 수립하기 위한 意圖的이고 計劃的인 가치관의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社會制度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의 교육현실에는 여러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풍토가 없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이 오로지 개인의 社會上昇手段으로 인식되어 온 점이라든지, 入試爲主 教育의 병폐 등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學生들은 自己 進路에 대한 信念이나 價値觀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따라서 자기 진로를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能力과 態度가 부족하다. 인기학과나 인기 직업에 무조건 쫓리다든지, 소위 눈치작전으로 일생의 방향을 결정해 버리는 예가 허다하다.

이러한 식의 進路 決定은 個人의 學業이나 職業에서의 능력 신장을 기할 수 없게 함은 물론 人力管理面에서도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어 個人的·社會的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 체제를 再檢討하여 改善하는 일이 重要하다.

우선 家庭은 어린 시절의 進路에 대한 價値觀을 형성하게 하여 주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父母, 兄弟, 親族들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個人의 人生 行路를 결정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學校에서도 進路 教育課程을 마련하고 효율적 方法을 모색하며 보다 計劃的이고 專門的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個人을 둘러싸고 있는 社會 역시 價値觀 및 進路觀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양한 진로에 대한 社會的 認識, 價値, 制度 등은 個人의 進路 決定에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進路 決定에 영향을 주는 모든 構成要素가 혼연 일체가 되어 진로교육에 참여하여야

바른 가치관 및 진로관이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全人으로서의 인간을 위한 다각적인 生活中心 教育과, 自身の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는 풍부한 教育課程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것이 요구된다.

### 3. 結言 : 平生教育으로서의 進路教育

靑少年 시절의 진로 선택은 일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사이다. 즉 청소년시절에 진로선택이 올바로 이루어졌을 때에만 自己의 存在와 社會的 位置를 확인하면서 自我 實現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進路教育은 職業人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갖게하는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進路教育의 重要性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정되면서도 이제까지 제대로 시행해 오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진로교육이 이처럼 충실히 이행되어 오지 못한 것은 매우 복합적인 要因들로 설명될 수 있다. 多人數 學級의 지나친 교사부담, 敎員의 士氣低下, 進路教育 資料의 不足, 專門要員의 不足, 그리고 過熱 進學 風潮 등이 그것들이다.

그런데 進路 教育은 비단 청소년 시기에만 국한하여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人間의 全體 發達過程과 現代 產業社會의 教育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進路 教育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선 날로 高度化, 專門化, 多樣化되고 있는 產業社會에서 기존교육이나 지식은 점점 낡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계속적인 教育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平生 教育이라는 概念이 도입되었다. 즉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은 끊이지 않으며 그만큼 교육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이처럼 社會가 복잡 다양해지고 職業의 世界도 分化됨에 따라 進路 教育도 어느 한 時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생의 全過程에서 그때 그때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평생을 두고 올바른 進路의 인식, 탐색, 준비, 선택을 위한 지도가 요청되고 있다.

人生의 전체 과정에서는 進路教育을 통해서

個人이 自身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自身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와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家庭에서, 學校에서, 그리고 社會에서 바른 進路教育이 이루어질 때 만족한 삶과 행복을 누리면서 社會에 공헌할 수 있는 有能한 人間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平生教育이란 문자 그대로 일생 동안 教育이 實施됨을 의미한다. 정규학교 교육은 물론 幼兒教育으로부터 老人教育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平生教育의 입장에서 보면 進路教育은 進學이나 就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教育의 過程에서 끊임없이 教育의 核心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進路教育은 學校의 책임만이 아니라, 家庭, 社會 등 個人을 둘러싸고 있는 관련 환경 구성자 모두의 공동 과제이다. ○

### 참 고 문 헌

Bennett, William J., "The Teachers, the Curriculum and Values Education Development,"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No.31, pp.27-34, 1980.

Brown, Marsha D., "Independent and Interaction Effects of Significant Institutional Variables on the Career Aspirations of College Wome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 E. R. A., 1979.

Bowen, Howard R., "Values, the Dilemmas of our Time, and Education" Vermilye, D.W. (eds), *Relating work and Education*, Washington: Jossey-Bass Publishers, 1977, pp. 22-35.

Laramore, Darrye and others, *Career awareness, Decision Making and Job Seeking Skills*,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1978.

Lorey, Will, "Value System Analysis Theory," *Training*, Vol. 18. 38-9, Jan. 1981.

Rosman, Patricia & Burke, Ronald J., "Job Satisfaction, Self-Esteem and the Fit Between Perceived Self and Job on Valued Competencies," *Journal of Psychology*, Vol. 105. No. 2 pp. 259-69, Jul. 1980.

전국 경제인 연합회, 「産業社會와 教育」, 서울; 전국 경제인 연합회 경제기술 조사센터, 1977.

정범모, 「價値觀과 教育」, 서울; 배영사, 1972.

홍승직, 「韓國人의 價値觀」, 서울; 고대 출판부, 1971.

## ERIC 자료의 원문을 제공합니다

### ※ ERIC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미국>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ERIC자료의 원문이 실린 Microfiche를 소장하고 있으며, 열람·복사를 위한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국내 교육학 관계 인사 및 연구자에게 최신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 내 용 : ERIC에서 전세계적으로 수집한 교육관계 연구보고서 및 연구논문

- 1975~1980년 사이에 생산된 최신자료(6,500매)
- 교육학 및 관련분야에 관한 자료
- 각과 교육 및 관련분야에 관한 자료

#### ● 자료이용 : 수시로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면동 산 20-1

전화 567-5021, 567-5121 교환 263-26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자료국

# 適性と進路指導

柳 基 燮  
(中央大學校 教授)

## 1. 序

오래 전의 일이지만 한 先輩教授로부터 適性檢査의 프로파일에 의해서 그 분의 자제가 大學進學에 있어 선택할 가장 적합한 分野를 지적해 달라는 要請을 받은 일이 있다. 心理檢査에 관한 것이 포함된 科目을 筆者가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아는 그 분은, 그것은 無理한 要請이며 不可能한 것이라 대답을 이해할 수 없다는 눈치였다. 現在學校에서 進學指導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질문을 받은 高校教師가 “適성에 의해서”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다. 혹시 이 教師도 適性を 앞에 言及한 先輩와 같이 理解하고 있으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을 가져본 일이 있다. 大學의 專攻學科決定에 있어서 教師의 영향을 받았다는 新入生이 12.8%밖에 되지 않으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科轉하고 싶다는 學生이 41.9%<sup>1)</sup>에 이른다고 하는 調查報告도 있는 것을 보면 高校에 있어서의 進路指導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활발한 것 같지도 않으며, 또 指導에 있어서는 適성이 어느 정도로 참작되는지 의아스럽다. 各級學校에 있어서의 進路指導는 앞으로 더욱 強化되어야 할 것이며, 그 指導에 있어서는 適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그에 基礎가 되는 몇가지 事項을 지적하려는 것이 本稿의 意圖이다.

## 2. 適성의 意味

Warren의 心理學辭典에 의하면 適성이란 “訓練을 통해서 지식, 기술, 또는 여러 가지 反應(set of responses, 外國語를 말할 수 있는 能力, 作曲 등과 같은)등을 습득할 수 있는 個人能力의 徵候로 볼 수 있는 條件, 또는 여러가지 特徵이다. 이 定義는 適性を 包括적으로 잘 說明하고 있지만 그것을 指導의 實際에 適用하려는 操作的인 水準에서는 좀더 具體적인 檢討가 必要하다.

첫째로, 知能, 學力(成績), 興味, 人性 등과 適성은 어떠한 關係를 가지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앞에 引用한 概念은 適성을 여러가지의 學習에 前提가 되는 個人的 條件 또는 特徵이라고 믿고 있으므로 이에 는 知能, 成績, 興味, 人性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知能檢査를 學業適性檢査라고도 부르는 所謂도 이점에 있는 것이다. 다만 兩者의 差는 知能檢査가 包括적인 教育課程 履修와 相關이 높은 單一指數를 보여주는 데 반해 適性檢査는 더 많은 종류의 下位檢査를 가지며, 그 중에는 一般的인 學業과는 相關이 비교적 낮으나, 特殊한 職種에 대한 適性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興味나 人性의 경우도 例外가 될 수 없다. 많은 興味를 가지는 일, 意欲을 느끼는 일일수록 더 열

1) 李壬相 外 1人, “新入生實態 및 意識에 關한 研究”, 「學生指導研究」, 慶尙大學校 學生 生活研究所 vol. 7, 1981, p. 8-9.

심히 하게 되고 좋은 成果를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適性이란 先天的인 것인가, 後天的으로 發達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萬一에 完全히 後天的인 것이라면 願하는 適性으로 個人을 發達시키는 일이 可能하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適性은 그 程度를 明示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어느 정도는 先天的인 可能性으로서 주어지며, 이를 토대로 環境과의 相作用 또는 經驗에 의해서 發達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이다. Wesman은 이것을 資本과 利殖의 관계로서 說明하고 있다. 즉 資本은 利殖을 얻게하며 그 利殖이 資本에 추가되어 다음 단계에서는 더 많은 利殖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sup>2)</sup> 밑천이 있어야, 즉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있어야 經驗을 통해 그 方面으로 더욱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 같은 정도를 갖었다해도 努力(經驗)如何에 따라 增殖(發達)의 정도는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發達의 정도는 처음 가졌던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든가 등을 이 說明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세째로는 適性이란 어느 정도로 特殊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社會科學分野에서 成功한 사람이 人文科學領域을 擇했다면 반드시 그만 못했을 것인가, 아니면 두 分野 모두에 기본적인 才能을 가지고 있었지만 成長하는 過程에서 받은 영향이나 環境的 與件이 社會科學分野를 택하도록 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또 같은 社會科學分野에서도 法學에만 높은 適性を 가지고 있고, 行政學이나 社會學分野에는 낮은 適성을 가지고 있다고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適性を 具體的인 職種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또 어느 한 職種에만 限定시켜서 생각될 수도 없는 것이다. 같은 정도의 才能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具體적으로 細分된 어느 職種에 限定되는 것이 아니고 비교적 넓은 領域에 대해서 適성을 가지는 것이며, 그 중에서 어느 한가지를 택하게 되는 것은 興味, 機會, 環境的 與件 등 여러가지 要因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3. 適性和 適性檢査

한 個人의 適性綜合檢査結果는 檢査名 그대로 그 사람의 모든 適性を 綜合적으로 正確하게 檢査해 주는 것인가의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는 모든 心理檢査에 共通되는 事項으로서 사실은 知能檢査의 경우에도 知能和 檢査結果로서의 知能指數와는 區別되어야 하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知能指數는 한 個人의 知能中 使用한 檢査가 部分만을 그 檢査의 妥當도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表示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즉 知能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能力을 檢査한 것도 아니며, 무게나 길이를 재는 경우처럼 精確한 것도 아닌 것이다. 適性檢査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使用한 適性檢査가 가지고 있는 下位檢査의 범위 내에서만 適性を 재 주는 것이며, 사람의 適性的 종류가 그것만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며, 그 結果도 精確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檢査結果의 活用に 있어서는 이점이 充分히 고려되어야 하며, 檢査結果가 平素의 觀察이나 다른 方法으로 認知된 바와 어느 정도 合致되는가를 검토해 보고 많은 差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檢査로서 再確認해 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 4. 適性檢査 結果의 解釋

適性이란 어느 職業分野에서 必要로 하는 것을 效率적으로 배우고 成功的으로 機能을 遂行할 수 있는 個人의 特殊才能이다. 그런데 어느 한 일(職種)에서 必要로 하는 個人的 特徵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가지 特徵의 組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어느 한 職種에 대해 그에 必要한 이같은 人間的 特徵을 決定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適性檢査中에는 “教師適性” “音樂適性” 등의 경우처럼 特定 職種에 대해서 製作된 것도 있으나, “言語推理” “知覺速度”

2) Wesman, A.G. Test Sarnice Bulletin,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No. 36, p. 2.

“手工能力” 등과 같이 여러가지 職種에 必要한 單一特性中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選定하여 製作된 것도 있다. 이 중 어떤 檢査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의 目的에 따라 選擇할 것이지만 檢査의 使用에 있어서는 前項에서 言及한 것 외에도 檢査自體가 가지는 制限點을 充分히 理解할 要必가 있다. 즉, 檢査結果는 어느 領域에 대한 適性의 有無를 線을 긋는 것처럼 “있다” “없다”로 分明히 表示하는 것이 아니라, 그 程度를 表示해 주는 것 뿐이므로 그 結果의 受容은 主觀的인 것일 수 밖에 없다. 適性의 識別도 마찬가지로, 下位檢査別 點數의 分布에 따라 特定分野의 適性을 識別해야 되는데 特定領域에서 必要로 하는 個人的 特性을 決定하는 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相互排他的인 것도 아니므로 그 識別은 自動的인 것이 아니어서 역시 어려운 일에 속한다. 한 例로서 일반적성 분류검사<sup>3)</sup>의 경우를 보면 一般大學 適性, 法學, 社會科學 등 3領域의 適性으로서 다같이 類似語, 推理力, 語彙力의 3가지 下位檢査가 나열되어 있고 人文科學의 適性으로서는 이 3가지에 記憶力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記憶력이 必要한 程度를 이 4가지 領域中에서 區別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檢査結果만 가지고서 適性을 識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임을 알게 된다. 檢査가 가지는 이같은 本質的인 制限을 充分히 理解되어야 하고, 進路의 選擇에 있어서 檢査結果는 한가지의 補助資料에 不過한 것이며, 決定은 個人的 興味, 人性, 成績, 機會, 環境의 與件 등 個人的 要因이 綜合的으로 檢討된 結果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5. 適性和 進路指導

適性이란 주어진 可能性을 기초로 하여 경험과 環境의 影響을 통해 점진적으로 發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學校에 있어서의 進路指導도 選擇이 强要되는 어느 時點에 있어서의 一時的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發達的 過程

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發達的 過程이란 일찍부터 指導를 시작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서 進路에 대한 學生들의 생각을 점진적으로 成熟해지도록 지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 過程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學生들로 하여금 各자가 興味와 價値를 느끼며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意識하고 發見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過程에서 學生들이 어떠한 自己의 特徵을 意識하였다 할지라도, ① 그것이 確實하고 最終的인 것이 아닌 未熟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② 일의 世界는 한없이 넓은 것이며 ③ 사람의 適性이란 어느 한가지(具體的인 分類의 뜻에서) 일에만 限定되는 것(唯一한)이 아니라 幅을 가지는 것이며, ④ 實際로 進路의 決定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은 適性 以外에도 여러가지가 있는 것이므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탐색케 하고, 많은 職業情報를 제공하며, 可能하면 關心있는 일을 部分的으로라도 선택케 함으로서, 自己의 생각을 再檢討하고 確認하는 일 등이 이 過程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進路指導란 궁극적 으로는 이 過程을 뜻하는 것이며, 指導機能의 向上을 위해서는 이 過程에 대한 많은 研究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適性이란 自己自身에 대한 省察이 없이 檢査에만 의존해서 발견하고 그에 의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지적하였다. 오히려 適性檢査는 自己自身에 대한 情報(自己의 適性이 무엇인가 하는 것)가 自己自身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他(檢査 또는 教師)가 알려주는 것이란 認識을 學生들에게 가지게 하며, 日常生活 속에서의 自己經驗을 分析하여 自己의 才能을 찾으려는 努力을 게을리 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使用을 경제해야 한다고 하는 意見도 있다.<sup>4)</sup>

進路의 選擇에 있어서는 適性이 많은 比重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適性이란 個人 속에서 發達하는 것이며, 또 個人 스스로가 意識하고 成熟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進路指導의 焦點이 바로 이점에 두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3) 정법모, 코리아 테스트 센터, 점부원 자료, “나의 적성” 참조.

4) Pearson, H.G., Self-Identification of Talent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vol. 24, p. 20-26, 1957.

# 學習集團 構成과 進路指導

金 炳 聲  
(本院 教育政策研究 3室長)

## 1. 序

모든 수준의 學校教育은 어떤 形態의 學習集團을 형성하여 教授·學習過程을 이끄는 것이 일반적例이다. 이런 집단구성은 적게는 2,3명 학생으로부터 크게는 학급전체 학생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넓은 의미로 이러한 집단 구성은 男·女의 性別에 따른 男學校 혹은 女學校 구분으로, 연령별 구분에 의한 學年別 집단으로, 또는 學習課題의 특성에 따른 학습집단 구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흔히 學生의 학습능력의 정도에 따른 能力別 학습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능력별 학습집단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 즉 學校間 집단(interschool groupiog), 學校內 집단(intraschool grouping) 그리고 學級內 집단으로 구분된다.<sup>1)</sup> 학교간 능력 집단형성은 학생의 지능 정도나 학업성적에 따라 人文學校 또는 職業學校로 나누어 진학하므로 파생된다. 학교 내 능력집단은 학생의 능력이나 진로 희망에 따라 進學·非進學群으로, 또는 그에 따른 教育課程 제공의 多樣化(이것을 美國學校에서는 tracking system 이라고 하고, 英國學校에서는 streaming 이라고 한다)로 야기되는 학습집단이다. 또 학급 내 집단은 동일학급 내에서 학생의 교과별 학업성취 정

도에 따라 小集團學習群(subgrouping)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주로 學校內, 또는 學級內 學習集團 構成을 중심으로 그 集團構成의 形態, 집단 편성과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 그리고 學校學習效果를 극대화할 수 있는 集團構成方法에 관하여 논의하고 아울러 學生의 進路指導에 관한 教育的 示峻點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學習集團과 形態

授業(Instruction) 過程에서 학습집단 구성은 매우 일반적인 사례이다. 흔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능력(또는 知能), 태도, 학업성취수준, 또는 교육적 포부에 따라 학생들을 구분해 왔고 또 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 Sputnik 사건 이후 英才兒(gifted child)의 選別教育에 관심을 가지으로써 학습능력에 의한 집단분화가 이루어져 왔고 또 도시학교에서 人種集團(ethnic composition)에 따라 학생들을 구분하여 가르쳐 왔다. 오늘날에는 낮은 사회계층이나 少數人種 學生(minority student)이 많은 학교에서 選別學習集團(tracking group)을 형성하여 학생의 학습지도나 進路指導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 실시하고 있다. 英國의 경우도 1920—30年代에 초등학교와 후기 초등학교에서 11歲를 분기점으

1) David W. Johnson, *The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70, 180.

2) J. Evetts, *The sociology of educational Ideas*, R. & KP, London, 1973, 76-82.

로하여 학습능력에 의한 학생분류(streaming)를 조직화하여 왔다.<sup>2)</sup>

학교교육에서 학습집단 구성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同質集團(homogeneous grouping)과 異質集團(heterogeneous grouping)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형태를 분리하거나 종합하여 다른 형태의 학습집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

먼저 同質集團 구성은 能力別 集團(ability grouping)이라고도 불리우며, 비슷한 능력을 가진 學生群으로 구성된다. 예컨대 국어시간에 아동의 독서능력(성적)에 따라 몇 등급의 학습집단을 구성한다든가, 산수시간에 학생의 선행학습 성취 정도에 따라 수준별 소집단을 만들어 문제 해결을 하게 하는 것이다. 흔히 같은 학년, 같은 연령의 아동이라도 학습과제나 교과목의 성격에 따른 학습과제 수행에 있어서 상, 중, 하의 능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능력별 집단 편성을 주장하는 입장은 학생의 능력에 맞추어 적절한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교사가 학생의 능력에 따라 시간을 적절히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Goldberg, Passow, and Justman, 1966).<sup>3)</sup> 구체적으로는 교사가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적절한 학습자료와 학습방법을 적용하게 하고 학생들도 개인적 성취도에 따라 교사로부터 더많은 시간과 주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비슷한 능력군으로 편성됨으로써 능력적으로 너무 앞서거나 뒤진 학생과 경쟁함이 없이 비슷한 동료끼리 그들 수준에서 경쟁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중등학교에서 이 同質集團의 편성은 학생의 大學 進學 혹은 非進學群과 직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종합고등학교의 경우 한 학교에서 大學進學 준비과정, 一般課程, 직업과정, 그리고 상업과정 등이 구분되어 있고, 각 과정에 따른 教育課程의 分化(curriculum differentiation)는 동질집단 구성방법에 의한 選別的 학습집단편성의 형태이다. 이런 형태의 학습집단형성은 학생의 장래교육과 진로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학

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시 학생능력에 따라 人文系와 實業系로 구분하여 권장·지도하며 연합교사의 준비단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指導課程의 차이를 가지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에서의 選別的 학습집단 및 지도형식과 관련된 동질집단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선별집단구성이나 동질집단의 定置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적, 교사의 평가와 추천 그리고 기타 표준화 검사나 적성검사에 준하여 구분된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이 어떤 능력집단에 일단 속하게 되면 그 집단 수준에 계속 머물게 되고 학년이 바뀌어도 애초의 소속집단 수준을 탈피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Rosenbaum(1976)<sup>4)</sup>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 학생은 오히려 능력집단 이동에 있어서 성적의 下降性向을 보이며 그들이 높은 능력집단으로 이동하기는 매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上·下 能力集團에 따라 각각 다른 학습프로그램이 제공되어 그들로 하여금 각각 다른 학습경험을 이미 가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능력집단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기대는 시간이 경과함에도 변하지 않으므로 능력별 집단간의 성적차는 일정기간의 경과 후에는 매우 크게 난다는 것이다.

同質集團과 함께 異質集團도 가장 기본적인 학습집단 구성의 한 형태이다. 이것은 學生의 無選的인 배치에 따라 각각 다른 능력의 소유자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학습집단은 일종의 능력에서의 混合學習集團(mixed grouping) 성격을 가진 것으로 집단 내 구성원의 相互協同의 學習活動이 가능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사의 個人指導(tutorial help) 대신에 동료학생의 협조나 補助로서 학습수행력이 不進한 동료의 학습활동을 도와주고 학습의욕을 촉진하게 하는 집단학습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이질집단구성은 學生間의 社會的·對人的 關係를 개선할 수 있고 또 어떤 학생이나 성취해야 할 공통학습목표의 도달을 촉진하게 해준다. 이렇게 하므로써 同質集團에서 야기되는 非教育的인 效果, 즉 우수학생의 우월감과 열등집단 학생의 열등감을 극복할

3) M.L. Goldberg, A.M. Passow, and J. Justman, *The effect of ability grouping*. N.Y: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1966.

4) James E. Rosenbaum, *Making inequality*, NY: Wiley-Interscience, 1976, and "The stratification of socialization process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0, 1975, 48-54.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위의 동질집단이나 이질집단구성에 의한 학습 집단을 보다 지도 방법적인 면에서 세분하면 個別化 수업방법과 전체학급 수업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個別化 授業(individualized instruction)은 同質集團을 보다 細分化하여 지도하는 형식으로 학생 개개인의 진로수준에 치중하여 지도하는 형태로서 학급의 공동 수업목표성취가 어렵고 개인차에 따라 학습성취의 수준과 기대가 더욱 다르게 나타나게 만드는 수업운영 방식이다. 한편 全體 學級授業(whole-class instruction) 방식은 異質集團을 보다 일반화한 형태이다. 우리의 학교교육 상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습집단 형태로서 전체학생에게 동일한 학습내용과 자료가 제시되고 교사가 직접 수업을 관찰하고, 시간을 배분 조정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 집단학습의 중요성은 모든 학생이 해당학년의 적절한 공동수업목표에 접하여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 3. 學習集團과 學業成就

학습집단 형태와 學習效果의 관계를 밝힌 수많은 연구들은 아직 일관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Findley와 Bryan, 1971).<sup>5)</sup> 능력집단이나 동질집단의 학습효과에 대하여 1928년 이후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도 비슷한 결론을 얻고 있다(Wilson과 Schmits, 1978).<sup>6)</sup> 물론 몇몇 연구결과는 능력별 학급편성이 성적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런 결과는 학습집단의 속성, 또 選別學習集團, 즉 大學進學群과 非進學群의 학습효과를 점진한 결과 대학진학 집단의 평균지능과 성적은 증가하는 반면 비진학 집단의 지능과 성적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다(Rosenbaum, 1975).<sup>6)</sup>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능력집단 편성이나 進學·非進學 집단에서 학생의 위치나 집단소속은 비교적 변동없이 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일

반적인 사례이다. 즉 일단 학생이 어떤 능력집단에 속하면 학년이 바뀌어도 전과 비슷한 수준의 능력집단에 머무는 것이다. 초등학교 때 어떤 능력집단에 속하면 고등학교에서도 거의 비슷한 집단(track)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것은 초등학교 때 비슷하던 성적이 고등학교에서는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Coleman(1966)에서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능력집단 편성에 따른 이러한 성적의 차이는 교사가 학생의 능력 고·하에 따라 다른 학습목표보다는 수업 방법, 자료제공, 教育目標의 설정 기타 관련된 다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에 관한 확고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Brookover 등(1979)은 초등학교에서 學生能力에 의한 다양한 학습목표 설정과 제시가 결국 학생의 낮은 학업성취와 연결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학생의 능력 수준에 대하여 교사의 학업성취 기대가 결국 自己充足豫言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다른 연습과제, 학습자료 기타 방법을 제시·적용하는 데서 야기된다.

학습집단의 능력수준에 따른 수업지도 방식의 차이는 학생의 우월감과 열등감의 표출을 유발하고 집단간 성적차이는 물론, 이러한 결과는 학생으로 하여금 정신적, 정서적으로 이질감과 고립감을 주게 된다.

### 4. 學習集團과 進路指導

능력별 학습집단 구성은 성적저하 뿐만 아니라 학생의 장래계획이나 진로선택에도 많은 저해점을 조래한다. 흔히 낮은 능력이나 非진학집단 학생은 학교에서의 選別 집단형성이 자기들의 장래 직업, 사회적 성취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며, 또 학교의 選別的 교육과정에 관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다. 한편 높은 능력 및 진학집단 학생은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하여 장래의 결과(성취)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Rosenbaum, 1930).

(27 페이지에 계속)

5) W.G. Findley and M. Bryan., *ability grouping*: 1970. Athens Georgia, Center for Educational Improvement, University of Georgia, 1971.

6) B.J. Wilson & W. Schmits, What's new in grouping? *Phi Delta Kappan*, 1978, 59(8), 535-536.



# 價値觀과 進路指導

李 載 昌  
(本院 教育基礎研究 1室長)

## 1. 序 言

現代의 相談이 1898년에 Jesse Davis가 高等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學業과 職業上의 問題를 돕기 시작한 職業相談으로부터 始作된 이래 職業相談은 카운슬링의 主要領域이 되어 왔다. 特別히 最近에 와서 社會가 産業社會化되고 專門人力이 必要하게 되면서 進路相談과 進路指導의 必要性은 한층 加重되고 있는 現象이다.

Eli Weaver의 "Choosing a Career"가 最近의 進路指導에 관한 책으로 1906년에 선보인 이래 現代相談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Frank Parsons의 "Choosing a Vocation"이 1909년에 出版되었다. 特別히 Parsons의 著書는 後에 Williamson의 特性要因理論(trait-and-factor theory)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 후에도 進路和 職業의 行動에 관한 여러가지 理論들이 開發되었는데 그 代表의 인 것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Super, Ginzberg, Tiedeman, O'Hara 등이 주장하는 發達理論, Bodin, Nachman, Segal 등이 주축을 이루는 精神分析學의 理論, Hoppock가 주장하는 動機理論, Holland와 R e로 代表될 수 있는 性格理論, Miller, Form, Hollingshead, Blau 등이 속하는 社會的 要因理論, Standley가 中心이 되는 實存心理理論, Gelatt, Hilton, Hershenson, Roth 등이 주축이 되는 意思決定 理論 等이다.

이렇게 理論이 多樣하지만 이 모든 理論들의 핵심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決定을 내리게 되

는가 하는 意思決定過程(decision-making process)에 重點을 두고 있다(Tolbert, 1974). 더구나 Berdie, Dilley, Goldman, Krumboltz, Tyler, Wrenn을 비롯한 많은 일반 相談學者들도 相談의 主機能을 被相談者로 하여금 현명한 決定을 내릴 수 있도록 助力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意思決定이 一般相談은 물론 進路相談과 進路指導에서 主要인 것인 것을 많은 學者들의 주장과 研究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現象은 被相談者의 要求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Graff와 Maclean(1970)의 研究에 의하면 學生들은 相談者로부터 무엇보다도 意思決定 方法에 關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있고, 또 美國의 카운슬러협회인 APGA에서 全美國에서 相談과 生活指導에 關하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시급하게 혁신하고 쇄신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調査를 한 결과 意思決定技術(decision-making skill)의 開發을 1位로 教育, 職業, 人生의 計劃을 2位로 들었다(Survey, 1977).

이렇게 보면 意思決定이 進路發達理論의 초점이며, 進路相談과 進路指導의 主要인 것이 되고 또 被相談者나 相談者의 主要關心事인 것을 알 수 있다.

## 2. 價値觀과 進路決定

進路指導가 特性要因 接近方法에서 進路發達 接近方法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個人의 價

價體系가 더욱 중요시 되었다. 이러한 價値觀은 많은 進路發達 理論象들에 의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研究되었다. Hoyt(1972)는 個人이 進路決定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解決하여야 할 問題는 “나에게 重要的 것이 무엇이나(What is important to me?)”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였다.

즉 이것은 個人的 價値觀에 關한 問題이며 그에 依하면 個人的 價値觀을 묻는 것이 현명한 進路決定을 하는 出發點이라고 하였다.

價値觀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定義되고 있으나 이들이 強調하는 點은 유사하다. Williamson(1958)은 價値觀은 “사람들이 行動하는 觀念”이라고 定義하고 있고 Jacob(1957)은 “個人이나 集團行動의 기초, 기준 혹은 선택”이라고 하고 Blocher(1973)는 “사람들이 事件을 觀察하고 經驗한 것에 意味와 意義를 부여하는 社會的으로 學習된 構造”라고 定義하고 있다.

價値觀을 欲求와 비교해서 Patterson(1973)은 價値觀은 欲求, 興味, 目標이 아니고 目標을 선택하기 위한 欲求와 基準의 表現이 된다고 하고 있다. Katz(1969)도 價値觀과 欲求를 區分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만일 欲求가 基本的인 動機誘發의 힘으로 간주된다면 價値觀은 欲求의 特徵的인 外部的인 表現과 文化的으로 影響을 받은 表現”이라고 한다.

그리고 價値觀은 重要性, 目的, 行動의 價値 등과 같은 結果에 關한 感情을 意味하고 興味는 價値를 부여한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分化된 수단을 의미한다고 한다.

價値觀의 意味를 더 明確히 하기 위해서는 價値觀이 아닌 것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Peterson(1970)은 價値觀은 欲求, 目標, 信念, 態度 그리고 단순한 기호와 다르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價値觀에 關해서 結論을 내리고 있다. 즉,

(1) 價値觀은 假定的인 構造이다.

(2) 價値觀은 주어진 狀況下에서 個人이 당위적으로 해야 할 것이나 혹은 옳은 일이라고 지각되는 것으로 감당되는 것을 意味한다.

(3) 價値觀은 成就를 유발하는 힘이다.

### 3. 人生價値觀과 職業價値觀

특히 우리가 進路決定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職業, 즉, 일에 대한 價値觀이며 이는 一般的인 人生價値觀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職業價値觀은 個人的 情意的 指向과 同一한 정도의 만족을 주는 外部 대상의 供給간의 중계역할을 하는 일련의 概念이라고 Zytowski(1970)는 정의하고 있다.

많은 學者들이 人生의 價値觀과 職業價値觀과의 關係를 調査하고 이러한 關係가 職業 선택에 미치는 影響을 研究하였다. Williams(1972)의 研究에 依하면 職業價値觀과 職業選擇은 意義있는 關係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價値觀은 高學年이 되고 年齡이 높아질수록 더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Kapes & Strickler, 1975).

또한 Zytowski(1970)는 여러 學者들이 進路選擇의 主要要因을 研究한 結果를 分析한 結果 重要하게 여기는 要因들이 一致하는 것은 물론 다른 職業을 擇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職業을 갖으려고 하거나 結婚을 하려고 하는 女性間에도 職業價値觀에 差異가 있는 것을 發見했다. Herzberg, Mausner 그리고 Snyderman(1959)은 價値觀과 만족도의 關係가 曲線을 이룬다고 하고 職業과 關係되는 要因들은 만족에 공헌을 하나 業務와 關聯되는 要因은 불만족을 낳는다고 하였다.

職業價値觀은 학생들의 家庭의 地位, 性別, 年齡과 일관성 있는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研究를 통해서 나타났다. Ermalinski와 Ruscelli(1971)가 父母의 社會的 地位가 學生들의 職業價値觀과 밀접한 關係가 있음을 그들의 研究를 통해서 밝혔고 Steffire(1959)의 研究에 의하면 事務職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가진 學生들은 愛他心과 統制에 價値를 두고 勞動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둔 學生들은 安全과 金錢에 價値를 둔 경향을 보였다. 그렇지만 父母의 教育程度는 學生들의 進路決定에 重要的 要因으로 나타나지 않았다(Wignet, 1974).

職業價値觀은 또한 性別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女子들은 社會奉仕와 關聯된 職業에 더 重

要한 價値를 부여하고(Gribbones & Lohnes, 1965; Singer & Steffre, 1954; Wagman, 1965; Wolfe, 1969) 男子들은 收入과 권위(Gribbones & Lohnes, 1965; Wagman, 1965), 權力과 獨立, 또 모험, 포부, 존경, 그리고 목표지향에 높은 價値를 부여하는 것을 볼수 있다(Shappell & Hall, 1971). 男子들이 女子들보다 외면적 價値에 더 重點을 두고 있고(Wolfe, 1969) 女子들이 창의성과 愛他心を 男子들보다 더 重要視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年齡에 따라서 價値觀의 變化를 보이고 있다. 즉 Singer와 Steffre(1954)의 研究에 依하면 靑少年들은 명예, 금전, 흥미로운 경험에 어른들 보다 더 重要的 價値를 부여하고 成人들은 獨立性에 高等學生들보다 더 높은 價値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發見되었다.

이러한 職業價値觀은 비교적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1958년과 1970년에 卒業한 高等學校 卒業生의 職業價値觀의 차이점을 調査한 결과 Anderson과 Bosworth(1971)는 價値觀의 서열이 유사한 것을 發見했다. 유사한 結果가 Kanzaki(1976)의 研究에서도 나타났는데 職業의 社會的地位와 權威의 順이 1925년과 1975년까지 50年間에 變함이 없는 것이 밝혀졌다.

여러가지 研究結果를 종합해 보면 價値觀은 비교적 어려서 形成되고 Schwarzweiler(1960)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職業價値觀은 社會化的 過程을 통해서 學習되고 社會·文化的 要因에 依해서 決定되며 靑少年期까지 심하게 變하지 않으며 父母나 教師 혹은 중요한 成人에 依해서 영향을 받고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同時에 社會的地位, 性, 年齡에 依해서 다른 價値觀이 發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우기 必要的 것은 Fretz(1972)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靑少年期에서부터 大學 사이의 價値觀의 發達과 이러한 價値觀이 進路指導에 미치는 關係에 관한 情報를 제공하는 것이 必要하다. 따라서 첫단계로 價値觀의 明瞭化가 必要的 것이다.

#### 4. 價値觀의 明瞭化

學生들의 進路指導에 있어서는 學生들이 人生

에서 成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職業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明確히 인식하게 하고 다음에 필요한 情報를 이용한 進路계획을 세우는 것이 必要하다. 學生들로 하여금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明確히 해주는 것이 價値觀의 明瞭化(Values Clarification)인 것이다.

Simon, Howe 그리고 Kirschenbaum(1978)에 依하면 價値觀의 明瞭化를 위해서는 教師나 카운슬러는 學生들 자신이 높이 評價하고 내세우는 信念과 行動을 먼저 인식하게 하고 學生들로 하여금 여러가지 對안들을 생각해 내도록 助長해야 한다. 다음에 學生들은 여러가지 對안의 贊反과 結果를 배우게 되고 교사는 學生들의 行動이 그들의 信念과 一致하는 가를 고려하도록 하고 一致가 안될 때에는 行動과 信念이 調和를 이루도록 學生들을 助力해야 한다. 마침내 教師는 學生에게 選擇권을 주어야 한다. 學生 自身이 選擇을 하고 行動의 結果에 대해서 評價를 할 때 自身의 價値觀을 發展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價値觀의 明瞭化를 위해서 使用해야 할 價値項目들은 學者들에 따라서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데 Super와 Forrest(1972), Centers(1948), Fretz(1972), Katz(1973), Danne(1972), 그리고 Harrington과 O'Shea(1976)의 價値觀檢査를 종합해서 Lee(1978)가 進路決定檢査(Career Decision-Making Inventory)에서 使用한 임금, 직업의 권위성, 승진의 기회, 흥미분야, 작업조건, 업무의 다양화, 책임의 독립성, 애타심, 지도성,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작업시간의 신축성, 업무의 도전성, 업무에 있어서의 자기 만족, 업무에 따른 부수적 이익,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活用할 수 있는 기회, 知的인 자극을 받을수 있는 기회 등이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5. 結 語

職業을 選擇하는 것은 生活樣式(way of life)을 選擇하는 것과 같다고 Roe(1956)는 職業選擇의 重要性에 관해서 언급한 일이 있다. 職業이 우리의 人生行路를 좌우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選擇하는 職業은 흔히 個人的 價値觀과 關係가 되어 있으며 職業이 個人的 價値觀과

致하지 않을 때는 個人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個人的 不幸은 물론 職場, 社會, 國家의 손실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個人의 직업에 대한 決定은 個人의 價値體系와 一致해야 하는 것이다.

相談의 가장 重要的 目的의 하나는 被相談者로 하여금 效果的인 決定을 내릴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決定理論이나 相談理論에서 다 決定過程에서 價値觀을 基本的인 概念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進路指導는 결국 被相談者로 하여금 合理的인 進路決定을 내리도록 教育·訓練·指導하는 過程이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수행되어야 할 것이 人生과 職業에 關한 價値觀 教育과 價値觀의 明瞭化인 것이다. —————◆

<參考 文獻>

Anderson, W.F., & Bosworth, D.L. A note on occupational values of ninth grade students of 1958 as compared to 1970.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71, 1, 301-303.

Blocher, D.H. Social change and the future of vocational guidance. In H. Borow (Ed.), *Career guidance for a new age*. Boston: Houghton Mifflin, 1973.

Centers, R. Motivational aspects of occupational stratificati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48, 28, 187-217.

Danne, C. *Vocational exploratory group; Theory and research*. Tempe, Arizona: Studies for Urban Man, Inc., 1972.

Ermalinski, R., & Ruscelli, V. Incorporation of values by lower and middle socioeconomic class preschool boys. *Child Development*, 1971, 42, 629-632.

Fretz, B.R. Occupational values as discriminants of preprofessional student group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72, 2, 233-237.

Gribbons, W.D., & Lohnes, P.R. Shifts in adolescents' vocational value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1965, 44, 248-252.

Graff, R.W., & Maclean, G.D. Evaluating educational-vocational counseling: a model for chang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1970, 48, 568-574.

Harrington, T.F., & O'Shea, A.J. *The Harrington Hamington/O'Shea System for Career Decision-Making*. Needham, Mass: Career Planning Associates, Inc. 1976.

Herzberg, F., Mausner, G., & Snyderman, P. D. *The motivation to work*. New York: John Wiley, 1959.

Hoyt, K.B. Career education and career choice. *American Vocational Journal*, 1972, 47(3), 84-88.

Jacob, P.E. *Changing values in college*. New York: Harper & Row, 1957.

Kanzaki, G.A. Fifty years (1925-1975) of stability in the social status of occupation.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1976, 25, 101-105.

Katz, M. *Career decision-making: A computer-based System of Interactive Guidance and Information (SIGI)*. Princeton, N.J.: Educational Testing Service, 1973.

Katz, M. Interests and values: a com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69, 16, 460-462.

Kapes, J.T., & Strickler, R.E. A longitudinal study of changing work values between 9th and 12th grades as related to curriculum.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75, 6, 91-93.

Lee, J.C. *Career decision-making patterns of university students as related to career matur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1978.

Patterson, C.H. *Theori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nd ed.). New York: Harper & Row, 1973.

Peterson, J.A. *Counseling and values*. Scranton, Pa.: Intext, 1970.

Roe, A. *The Psychology of occupations*. New York: John Wiley, 1956.

Schwarzeweller, H.L. Values and occupational choices. *Rural Sociology*, 1959, 24, 246-256.

Shappell, D.L., & Hall, L.G. Perceptions of the world of work.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71, 18, 55-59.

Simon, S.B.; Howe, L.W.; G Kirschenbaum, H. *Values clarification*. New York: Hart Publishing Co., 1978.

Singer, S.L., & Steffire, B. Age differences in job values and desir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54, 1, 89-91.

Steffire, B. Concurrent validities of the Vocational Values Inventory.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959, 52, 339-341.

Super, D.E., & Forrest, D.J. *Career Development Inventory, Form I, Preliminary Manual*.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72.

Survey yields interesting view of counselor's needs, *Guidepost*, April 14, 1977, p. 12.

Tolbert, E.L.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1974.

Wagman, M. Sex and age differences in occupational value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1965, 44, 258-262.

Wignet, P.A. Personality variables related to

career decision-making abilities of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ent Personnel*, 1974, 15, 105-108.

Williams, C.M. Occupational choice of male graduate students as related to values and personality: a test of Holland's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72, 2, 39-46.

Williamson, E.G. Value orientation in counseling.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1958, 36, 520-528.

Wolfe, H.B. Analysis of the work values of women: implications for counseling. *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Deans and Counselors Journal*, 1969, 33, 13-18.

Zytowski, D.G. The concept of work value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1970, 18, 176-186.

(22 페이지에서)

따라서 진학·비진학 집단을 불문하고 進路指導를 위한 상담과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비록 학습집단에 따른 교육과정은 分化되었더라도 각 집단에 대한 장래 사회적 진출, 진로에 대한 바른 정보제공은 물론 학교는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각 課程選定과 장래의 결과에 대한 관련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능력별 학습집단 구성과 교육과정 분화에 따른 否定的 效果를 제거하기 위하여 학습집단 구성에 있어서 다음의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체 학습을 학습집단으로 사용한다. 모든 학생에게 共同學習目標을 도달하도록 계획하고 실천하게 한다.

둘째, 학습집단은 異質學生 構成을 하여 정규 학습실천과 행동강화의 기술을 적용한다.

셋째, 矯正學習이나 補充學習을 위하여는 잠정적인 同質集團을 구성하여 공동적 학습결손을 보충한다.

네째, 效果的인 矯正, 深化補充學習을 위하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한 個別化 지도법을 사용한다.

※ 본원을 떠나신 연구원 여러분의 발전을 비오며 교육개발을 위한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섭	수석연구원(중앙대학교)	이 회숙	주임연구원(서울교대)
김 재복	책임연구원(인천교대)	강 선보	연구원(강릉대학)
서 정화	" (홍익대학교)	송 광용	" (서울대학교)
이 대규	" (부산대학교)	정 영수	" (동아대학교)
이 정근	" (직업기술연구소)	정 병찬	" (인천교대)
장 석우	" (인천대학)	전 우수	" (공주교대)
전 성연	" (고려대학교)	지 옥정	" (청주간호대)
한 면희	" (인천교대)	김 두정	" (미시간대학유학)
박 찬홍	주임연구원(공주사대)	조 석희	" (알버타대학유학)

# 進路觀 確立을 위한 家庭教育

李 玉 任

(本院 責任研究員)

## 1. 序

學校教育의 定着은 이른바 教育의 機能分化 現象을 이루어, 종래의 家庭이 가졌던 教育的 機能을 점차 學校로 移讓시키고 있다. 따라서 날이 갈수록 學校教育 依存度는 極大化되어 가고, 反面에 家庭教育은 萎縮되어 가는 現象을 보게 된다.

그러나, 家庭은 典型的인 第一次의 集團으로서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가짐에는 변함이 없다.

家庭에 속한 家族들은 直接的인 親密한 結合體이며, 이들 成員間에 존재하는 連帶感和 一體感은 거의 絶對的인 것이 된다. 또, 家庭은 그 소속된 社會에서 社會關係로 強化, 安定시키는 機能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家庭이 가질 教育的 機能이 아무리 縮小된다 하여도, 最終的으로 남겨질 다음과 같은 機能은 계속 遂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① 子女養育의 場으로서 그들의 基礎의 生活 習慣 形成

② 生活安定의 場으로서, 人間性 尊重의 教育 實現

③ 社會化의 基本的인 場으로서, 새로운 秩序의 創造

傳統社會의 家庭에서는 子女教育에 있어 禮節과 法道만을 追從한 나머지, 家門을 代表할 수 있는 體貌에 철저한 人品을 기르기에 注力하였다. 그러나 産業化된 오늘날의 社會에서는 個體의 自活能力和 社會參與를 必須的인 것으로 要

求하고 있으므로, 家庭에서도 家門이나 體貌나 家道에 對한 집착에서 벗어나 子女들이 社會에서 차지할 위치에 보다 力點을 두게 되었다.

## 2. 子女教育에 대한 父母의 役割

종래의 家庭에서는 父親은 父親다운 근엄한 行動을 하면 훌륭한 아버지로서 존경되고, 母親은 자애로써 子女를 돌보면 그것으로 母性的 역할이 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家庭에서는 父母의 權威와 役割의 遂行에 있어 새로운 要請과 挑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加速化하는 社會變化 속에서, 끊임 없이 연속되는 生存競爭의 틀바구니에서, 어떻게 하면 子女를 바르게 養育할 수 있느냐 하는 무거운 과제를 감당하게 된 것이다.

美國의 比較教育學者 Kandel은 몇몇 나라의 教育思潮를 비교하여, 각 國家의 教育思潮에 의하여 國民의 思考方式과 判斷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의 가치를 判定할 때에, 서독에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중시하며, 美國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프랑스에서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영국에서는 ‘어떤 人物인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는 西獨의 主知主義, 美國의 行動主義, 프랑스의 實用主義, 英國의 人格主義의 教育思潮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와 같은 學校萬能, 學歷爲主의 強한 風潮는 과연 어떻게 表現될 것인지 의문을 提起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社會에는 지나친 拜金思想과 學歷尊重,

人文崇上, 過熱競爭 等 여러가지 병폐가 固疾化 되어가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Kandel의 論調를 참작한다면 이는 敎育의 어느 部門에서나 反省과 修正을 서둘러야 할 중요한 示峻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 중에서도, 家庭敎育이 걸머져야 할 責任의 범위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식구만이라도……' 또는 '내 자식만은……' 하는 식으로 順理를 의면해 가면서, 심하면 더 무니없는 非理를 눈감고 저질러가면서도 無理한 目標을 達成하려는 빗나간 父母들의 欲求가 그 重要한 原因으로 作用하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最近, 많은 學者들이 주장하고 있는 就學前 兒童敎育의 重要性에서도 敎育에 대한 父母들의 役割이 얼마나 慎重하게 作用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어린이의 知的 發達曲線은, 아주 어린 시절의 家庭的 環境이 주는 影響에 따라 많은 變化를 가져온다는 데서 家庭敎育의 重要性이 더욱 강조되어, 就學前 敎育이나 早期敎育理論에 연결되는 것이다.

### 3. 家庭敎育의 特徵

一般으로 敎育이란 敎育者가 被敎育者에게 行하는 意圖的인 作用이라고 할 수 있는데, 實際에서는 被敎育者가 敎育者의 意圖한대로의 影響만을 받게 되지는 않는다. 敎育者가 意圖하지 않았거나 또는 오히려 防止하려던 影響을 被敎育者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家庭敎育에서는 意圖的인 敎育과, 無意圖的인 影響이라는 二重作用이 一般敎育에 비해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때로는 無意圖的인 影響이 더 끈질긴 문제로 露出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을 들어 家庭敎育의 本質的인 特性이라고 하리만큼, 그 二重性이 重要視된다고 하겠다.

生活體로서의 家族은 그들의 日常生活 自體에서 소속된 어린이에게 特定的인 形成作用을 하게 된다. 이를테면, 부모의 平素의 言動, 生活姿勢가 無意識 中에 어린이에게는 본보기의 구실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즉, 모델로서의 부모의 행동양식이나 가치관을 어린 子女들은 암암리에

답거나, 모방하거나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家庭敎育의 第1面이며 基本的인 社會化 作用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으로 家庭敎育의 基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基盤 위에 父母가 意圖的, 方法的으로 子女의 發達을 부추겨 나갈 때, 이것을 家庭敎育의 第2面이라고 하며, 意圖的인 形成作用이라고 할 수 있다.

子女敎育에 있어 모델로서의 父母의 役割에는 模倣의 對象과 同一化의 對象이라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이러한 模倣과 同一化는 어린이 自身이 主體가 되어 行하는 社會的인 學習이 된다. 이는 父母가 子女를 어떻게 다루느냐 보다는 子女가 父母를 어떻게 보고,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나가 더 奏效하기 때문이다. 模倣은 모델의 一部를 受容하는 것으로 어린이에게는 有力한 學習方法이 된다

어린이는 自身의 行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 以前부터도 機械的으로 父母를 모방하기 때문에 이 模倣이 학습의 과정으로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模倣은 모델에 대한 情緒的인 感情이나 愛情이 없을 때에도 成立되는 것이지만, 同一化는 모델에 대한 情緒的인 愛着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하여 모델의 態度나 價値觀 등 그 전부를 受容하기도 한다. 어린이들은 自己의 欲求를 충족하려면 그것을 해결해 줄 어른의 期待에 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同一化를 통해서 父母의 道德性이나 性格構造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家庭敎育에서는 子女의 바람직한 行動樣式과 價値觀을 選擇하거나, 그것의 具顯方法을 강구하는 것보다 父母의 日常的인 言動과 思考方式의 定立이 더욱 重視되어야 할 경우가 많다.

### 4. 子女의 進路敎育 方向

Roe의 人性理論에서 어린이는 그를 길러낸 育兒法에 따라 相異한 人格이 形成되며, 이러한 人格의 差異가 職業選擇에 影響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Holland는, 個人의 行動은 그의 人性과 環境 사이의 相互作用에 따른 函數이며 選擇行動은 人性의 表出되는 한 場面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理論에 의하면 人性發達

過程에 決定的 影響을 주며 基本的 바탕을 이루는 家庭教育이야말로 進路觀 確立에 있어 基礎的이고도 耐久的인 影響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J.G. Friend 나 E.A. Haggard 는 '家庭에서 어린이들이 그들의 發達過程에서 보여주는 生活態度나 役割은 장차 職業選擇과 適應에 影響을 준다'고 주장한 것을 미루어 보아 부모를 위시한 가족들의 社會的 役割이나, 生業에 대한 態度, 家族間의 人間關係, 幼兒에 대한 教育方向 등은 그들의 職業意識 啓發에 큰 影響을 미치고 있다.

Super 는 職業發達の 段階를 成長期(0~14세), 探索期(15~24세), 確立期(25~44세), 維持期(45~64세), 衰退期(65세 이후)로 區分하였다.

進路教育은 어릴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長期的인 發達過程에서 持續的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家庭教育의 影響을 가장 具體的으로 받는 段階는 成長期라고 할 수 있다.

成長期의 家庭教育에 있어 進路觀 確立을 위한 教育은 어떤 方向으로 이루어져야 할지를 就學前, 就學後, 進學時의 3過程으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 1) 就學前

成長期 어린이에 대한 家庭의 進路教育은 무엇보다도 먼저, 一次的 環境으로서 家庭環境의 整備로부터 出發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安定된 生活樣式의 提供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로 하여금 心身이 모두 健康하게 자라나도록 하며, 時期에 맞는 發達課業을 完遂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基本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配慮되어야 할 것이다.

- ① 自我發達の 促進
- ② 個性의 發見
- ③ 成就意欲의 助長
- ④ 自立, 自助의 生活態度 育成
- ⑤ 社會性 및 判斷力의 伸張

### 2) 就學後

- ① 各種 職業에 대한 觀察, 對話의 機会 확충
- ② 自己의 취미와 흥미 發見을 助長
- ③ 基礎的 教養學習 充實化
- ④ 計劃性 있는 生活態度 訓練
- ⑤ 意思決定 過程에 助力
- ⑥ 自己의 行動에 대한 責任感 強化
- ⑦ 職業에 대한 偏見 排除

### 3) 進學時

- ① 子女의 意思決定에 參酌할 資料와 情報의 수집, 제공
- ② 自己의 意見을 客觀的 立場에서 檢討하는 態度 助長
- ③ 子女의 立場과 希望에 대한 理解
- ④ 子女와의 協力的 考察과 探索 強化
- ⑤ 生活觀과 進路觀에 대한 意見發表의 機会 확충

끝으로 밝혀 둘 것은, 進路教育은 進路選擇 뿐만 아니라 職業에 대한 倫理觀 確立이 並行됨으로써 그 成果가 커질 수 있다는 것과,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진로 교육을 위하여는 父母들의 子女觀 수정과 職業觀 定立이 더욱 時急하다는 사실이다. ◆



# 進路觀 確立을 위한 學校教育

이 정 근  
(노동부 직업기술연구소장)

## 1. 직업관의 중요성

자신이 나아가야 할 진로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어느 면에서 좋으냐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 같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왜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그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 보다 능률적일 것만은 틀림이 없다.

우선 그는 자기의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동안에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므로써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정해진 목표를 위협하는 새로운 사태가 발생할 경우일지라도 그는 이전에 수립한 목표의 준거가 되는 사항을 재검토해 봄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타당한 것인가를 재확인하거나 이를 새로운 사태에 맞게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진로관이 명확치 않은 사람은 이일 저일에 손을 대보지만 어느 일 하나에서도 별다른 가치나 만족감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할 가능성이 있지만, 진로관이 뚜렷한 사람은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그에 정열을 쏟으므로써 보람과 차기 만족을 만끽할 수 있다. 좌절과 패배를 모르는 그에게는 모든 일이 사뭇 즐겁기만 하고 항상 자신감에 넘쳐 있다. 따라서 그는 자기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갖추어져 있으며 성공할 확률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진로관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요인이 이 진로관을 결정하는가? 진로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이의 형성을 위해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살펴보겠다.

## 2. 진로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로관이란 용어는 아직 생소한 편이다. 이보다는 직업관이란 말이 보다 친근감을 주는 데 왜 진로관이란 단어를 고집하는가? 직업생명이 인간의 수명보다 긴 때나, 직업전환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을 때는 직업관이란 말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하든 일생에 직업을 3~4개 갖게 된다.

이들 직업에는 대개 같은 속성을 지닐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내용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개인이 어느 한 직업에 대한 가치관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직업을 전환하여야 할 시점에서 상당히 당황하고 방황하게 마련이다. 특히 지금까지 해오던 일과 상반된 일을 하게 된다면, 자기가 가치를 부여하던 일이 하루 아침에 무산되어 버린다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소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개인이 겪는 가치 갈등은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그러므로 어느 한 직업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개인이 일생 동안 추구해갈 모든 직업(진로)을 염

두에 두고 그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이러한 가치혼란은 겪지 않아도 된다. 의미론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직업관이 직업 본위의 생각이라면 진로관은 직업보다 인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고방식이다.

진로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관념, 일에 부여하는 가치 및 일에 대한 태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직업관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하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일에 대한 관념은 일의 종류와 직무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회와 문화에 따라 귀하게 여기는 직업과 천하게 생각하는 직업이 있을 수 있다. 같은 종류의 직업이라 하더라도 직무내용이 다르고 그에 따라 만나는 사람도 상이하므로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 그 문화나 종교에 따라서는 일을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로 노예나 일을 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민족도 있다.

일에 부여하는 가치도 일의 종류와 직무내용에 따라 좌우되지만 보수나 발전 가능성이 이의 척도가 된다. 보수가 높은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수가 좀 적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이 밝으면 그 일에 가치를 두고 열심히 노력하려는 사람도 있다. 일을 수행하는데 대한 재량권 역시 진로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남의 통제보다는 자신의 재량권을 최대한 보장받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능하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일을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호구지책의 하나로 간주하느냐도 일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 주로 일하는 대상이 사람이냐 기계냐도 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요약하면, 진로관을 형성하는 변인은 대개 일의 종류, 직무내용, 보수, 발전 가능성, 일하는 목적, 재량권, 일하는 대상 등인데 이 변인들이 작용하는 방향은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이러한 변인을 중심으로 진로관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 3. 진로관 형성을 위한 전통적 방법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에 대한 인간의 발달은 인식단계, 탐색단계, 준비단계, 선택 및 전문화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국민학교 수준에서는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가지나 나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학교부터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추구할 진로를 탐색하게 된다. 여기서 앞으로 나아갈 진로가 발견되면 그 직업(제 1차적인)을 갖기 위한 준비를 하고, 준비가 끝나면 그 직장에 취업을 하여(선택)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준비단계는 개인의 능력과 직종에 따라 고등학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즉,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졸업 후 곧 취업할 사람은 고등학교가 준비단계가 되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려는 사람은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까지가 준비단계가 된다. 선택 및 전문화 단계는 개인의 준비가 어느 정도이며 그 때에 원하는 직업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러한 진로발달 단계 중 진로관 형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인식단계와 탐색단계이며, 준비단계와 선택 및 전문화 단계에서의 직업관 형성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진로관 형성은 초기 단계에서 가능하며 점차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이미 형성된 진로관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직업선택이나 진로관 형성에 대한 전통적인 방법은 본보기를 제시하거나 설득을 하고, 이것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택을 제한하거나 어떠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즉, '너는 커서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느니, '너는 XX처럼 매국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첫번째의 예이다.

'네가 의사가 된다고 한번 가정해 봐라.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고 얼마나 좋으냐'하는 것은 설득의 한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득이 통하지 않을 때는 갖가지 제약조건을 제시하기 마련

이다. 예를 들면, ‘네가 이 학교를 택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면 원서를 써 주지 않겠다’라느니, ‘네가 계속 나쁜 일만 저지르다 보면 너는 결국 약한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너를 제자로 생각지 않겠다’는 위협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은 우선 사용하기 쉽고, 아동보다는 성인의 판단이 옳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또 성인의 가치기준이나 판단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성인이 아동의 인생을 대신 살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새로운 방법의 모색이 불가피하다.

#### 4. 진로관 형성을 위한 체계적 방법

자신의 과거를 되돌이켜 현재 자기의 직업을 가지게 된 동기를 생각해보면 아동의 진로관 형성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 던진 것이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한다. 이것을 바꾸어 해석하면, 교사의 영향력이 이토록 지대하니 이를 잘 이용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정할 수 있기는 하다.

이러한 교사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삼고, 직업 선택 이론관, 가치관, 형성기법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진로관 형성방법을 제시한다.

- ① 진로선택을 장려한다.
- ② 대안의 탐색을 권장한다.
- ③ 각 대안이 가져다 줄 결과를 예측시킨다.
- ④ 각 대안을 평가하여 자기가 간직하고 싶은 것을 확인(선택)하게 한다.
- ⑤ 자신이 선택한 대안을 합리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⑥ 선택한 대안의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이끌어 준다.

⑦ 반복행동으로 삶의 패턴이 형성되도록 조력한다.

이러한 방법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법으로는 대화법, 작문법, 토론법, 평정법, 역할극 등이 있다. 대화법은 학생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로 하여금 진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추구할 진로를 탐색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작문법은 말보다는 글로써 자신의 장래를 표현토록 하는 것으로 가치의 명료화에 큰 도움을 준다.

토론법은 진로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입장을 토로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가치체계를 다지는 것이고, 평정법은 미리 만들어진 체크리스트나 각종 검사도구에 반응함으로써 자기의 장·단점을 평가하도록 구안된 것이다. 역할극은 자신을 미래의 틀에 넣어 봄으로써 간접적인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지면관계상 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진로관 형성기법을 사용하면서 교사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관 형성은 가치교육의 하나이므로 교사 자신의 가치를 우선 명료화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위압적인 분위기에서의 가치교육은 가치주입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아동들이 마음껏 사고할 수 있도록 북돋아 줘야 한다.

셋째, 자기 혼자서 가치교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자신이므로 동료 교사에게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아동은 교사나 부모가 무심히 던지는 말이 아동의 일생을 좌우하고, 그것이 국가의 장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여야 한다. □

# 進路觀 確立을 위한 社會教育

이 규 환  
(梨花女子大學校教授)

청소년들의 진로관 형성에 가정과 학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회는 이와 못지않게 어느 의미에서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사회는 청소년들의 진로관 형성 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의 자녀 또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진로관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의 조직, 산업구조 및 물질적 생산의 수준, 문화의 형식, 그리고 지배적인 규범과 가치는 그들의 진로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주요인이다. 예를들면 광공업 중심으로 하는 제 2차산업이 후진상태에 있는 사회인 경우, 진로지도의 큰 비중을 공업 또는 기술에 관계되는 것 외에 두게 되고, 공업화의 과정에 있는 사회에 있어서는 과학기술계를 진로지도에 있어서 중시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가 자유경쟁 지향적이면, 학업성적, 적성, 가정배경, 인간관계, 물질적 공세 등을 이용하여 엘리트적 지위를 쟁취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도록 지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진로관은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진로관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귀족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진로지도의 기준이 개인의 능력, 적성, 가정의 경제적 실력, 성격과 같은 종합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가정이 속하고 있는 계급적 문제가 유일한 기준이 된다. 물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그러한 식의 진로지도의 기준은 노골적으로 외면화하고 있지 않지만, 아

지도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에 있어서는 그러한 경향이 교육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로서 영국에 있어서는 민주적인 학교개혁이 급일에 있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상류층 가정 중에서 능력이 있는 아동은 예비소학교→퍼블릭 스쿨(私立獨立中等學校)→옥스포드, 또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육노선을, 중층 가정의 아동은 공립소학교→그람마 스쿨(Grammar School)→대학의 교육노선을, 그리고 하층 가정의 아동은 공립소학교→현대중등학교(Modern Secondary School, Grammar School)보다 수업연한이 2년이 짧은 격이 낮은 중등학교)→일반 사회진출과 같은 노선을 택하도록 진로지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같은 진로관은 사회적 구조, 사회문화 또는 지배적인 사회의 가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정한 사회에 있어, 청소년들의 진로관은 사회화(Socialization)의 방향에 관계한다. 사회화는 일반적으로 두가지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 하나는 보편적 방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특수적 방향이다. 보편적 방향의 사회화란 사회의 공통된 가치, 신앙, 사고, 태도, 문화적 요소, 생활양식 등을 학습하여 사회의 질서 및 연대성을 확보하는데 기본적인 요건인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에 대해서 특수적 방향의 사회화는 가정과 직장 같은 특수한 집단에 있어서 각 성원이 맡은 역할을 최선으로 수행하여, 집단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과정이다. 듀르켄(Emile Durkheim)이 말

한 것과 같이 사회성원들 간에 고도의 동질성 또는 공통성이 없다면 사회는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은 아동을 보편적 방향으로 사회화함으로써 이들에게 집단생활이 요구하는 본질적 유사성을 아동에게 형성함으로써 사회를 영속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회성원 간에 다양성, 또는 특수성이 없으면 모든 협동적 작업은 불가능할 것이다. 교육은 인간을 다양화 또는 특수화하여 각자가 맡은 특수한 역할을 바람직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결국 진로지도는 청소년들이 장차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에 관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로지도는 그들에게 특수성을 형성하는 특수적 사회화를 지향하는 교육적 활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뜻에 있어서의 진로지도는 보모나 학교만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의미에서 사회 자체가, 또는 사회의 제 기관이 청소년들의 진로지도에 근본적으로 관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들어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진로지도하기 전에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 보수가 많고 안정되고 출세가 빠른 가능성이 있는 전공학과를 택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 자체가 청소년들의 진로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인기학과의 집중은 분명히 학교에서의 진로지도에도 그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같은 대중 통신매체는 청소년들의 진로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류대학 또는 특정한 학문 계열에 고득점자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대학 또는 전공학과의 우열을 조성하고 고득점자가 몰려들지 않는 대학이나 전공학과는 사회적 위신이 낮다는 감을 사람들에게 주는데 있어, 매스 미디어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 사회가 진로관 형성에 하나의 본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예로써 산업체를 포함한 중요 사회기관의 대학 출신자 채용의 실태를 들 수 있다. 특히 대기업체가 일류대학 출신을 환영하고, 여자보다는 남자를 동용하고, 편직장에 비해 많은 보수를 주고 있는 현실은 청

소년들의 진로관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전문적이라 하여도 수입에 있어 의사직 또는 법관직은 교사직에 비해 월등하게 유리하다. 따라서 직업적 진로의 결정에 있어, 적성문제는 거의 무시된 채, 우선적으로 보수가 많은 전문직을 택하고, 교사직 적성이 있으면서도 교직의 선택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교사가 아무리 이상주의적 입장에서 적성과 교사직의 가치를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학생들과 그들 부모의 진로관은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벌써 그것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진로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사회의 역할은 지대하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그러한 사회적 역할이 긍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진로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사회의 역할 그 자체가 '좋다' 또는 '나쁘다'고 판정할 수는 없다. 다만 A라는 사회의 역할은 부정적이고, B라는 사회의 역할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사회가 청소년들의 진로관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매년 거듭되는 대학입학시험 결과의 혼란은 청소년들의 진로관 형성에 있어 한국 사회의 역할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책임은 입시의 방법 또는 관리에 잘못이 있고, 교사들의 진로지도가 불충분하다는 이유가 있는 것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의 진로관 형성에 있어 사회의 역할이 바람직한 것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다양한 직업이 등가치적(等價的)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노동자와 고급관료가 동등한 평가를 받고, 보수가 같다는 것은 이상주의적이고 유토피아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4년제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직업, 또는 직장이 다르다고 해서 사회적 평가와 보수에 격차가 있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 직업의 등가치적 평가를 위해서는 보수체계의 평준화(平準化)가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동일한 교육수준의 사

(41 페이지에 계속)

## 一韓國人の 教育觀：類型的 特性과 葛藤

鄭 英 愛

(本院 研究員)

### I. 緒 論

本 研究는 教育發展指標(Indicator for educational development)에 관한 연구과정에서, 教育發展과 發展의 目標를 규정하는데 國民의 教育에 대한 主觀的 價値意識을 반영해야 할 필요를 인식하므로써 착수되었다. 1960년대부터의 發展指向的인 社會變動과 70년대의 反動, 이에 대한 反省 속에서 표면적인 教育政策의 變化와 制度의 수정과 함께 教育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韓國人の 教育行爲를 규정하는 한 요인으로서 韓國人の 教育에 대한 觀을 유형화하여 그 類型的 特性을 포착하고 가능한 教育觀 類型間의 갈등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II. 理論的 背景 關聯先行研究

理論的 背景에서는 社會的 行爲理論과 韓國社會에서 社會的 教育觀의 葛藤模型, 그리고 教育改革과 發展에 관한 理論들을 검토하였다.

#### 1. 社會的 行爲理論과 教育觀

社會的 行爲理論에 대한 관심은 社會的 行爲로서의 教育行爲와 教育觀의 關係를 이해하고 教育觀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社會的 行爲理論으로는 構造機能主義 理論과 現象學의 행위이론을 검토하였다.

Parsons, Getzel 과 Gaba 가 대표하는 構造機能

主義에서는 教育行爲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으로서, 文化의 教育에 대한 價値規範, 社會制度가 요구하는 教育에 대한 役割期待, 상황적 조건으로 각 개인의 教育에 대한 要求 등을 지적하고 있다. 構造機能論에서는 個人的 측면과 價値規範, 社會制度 측면간에, 가치인식과 요구간에 갈등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現象學의 行爲理論에서는 객관적 실체로서 현실을 보는 構造機能論과는 달리, 主觀的으로 해석된 것으로서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 Schutz 등의 模型에서 시사하듯이 '現實에 대한 知覺'을 행위구속의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教育觀은 개인의 社會的 經驗을 통하여 해석된 教育에 대한 知識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教育觀은 Parsons, Getzel 과 Gaba 가 제시하는 세 요인이다 Schutz, Berger 등이 제시하는 현실에 대한 知覺을 포함하여 4 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 韓國社會에서 社會的 教育觀의 갈등모형

韓國에서 社會的 教育觀의 갈등모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現象學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教育觀을 개념화한 Singleon 과 李宗宰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Singleon 의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할 수 있는 教育觀을 (1) 儒敎的 教育觀 (2) 社會的 教育觀 (3) 個人的 教育觀 (4) 人間主義的 教育觀으로 분류하고 이 間에 갈등이 존재하리라 假定하고 있다. 이러한 教育觀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對比하여 조사하기

\* 本稿는 本院 教育政策 研究課題로 遂行된 것(研究報告 RR-142)을 要約한 것임.

위하여 教育改革과 發展에 관한 理論의 體系를 분류·검토하였다.

### 3. 教育改革과 發展에 관한 理論的觀點

教育改革과 發展에 관한 이론적 관점은 Paulston의 분류모형에 따라 이론의 指向點을 均衡(Equilibrium)과 갈등(Conflict)로 나누고, 균형 지향이론으로는 進化論, 新進化論, 構造機能論, 體制理論을, 갈등지향 이론으로는 맑스주의, 新맑스주의, 文化的 再建主義, 無政府主義的 理想主義를 對比, 검토하여 이들이 시사하는 教育에 대한 觀點을 정리하였다. 한국인의 教育觀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의 문항구성은 이 對比表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4. 關聯先行研究

본 연구와 관련된 先行研究에서는 이론적 접근과는 측면을 달리하여 國內·외의 教育觀, 教育에 대한 態度를 중심으로 한 조사연구를 검토하였다. 國內의 연구로서 (1) 朴俊熙의 比較教育的 調查研究로서 韓國人の 教育觀 (2) 韓國教育開發院의 學校教育目標에 대한 社會的 要求 조사연구 (3) 歷史·文化的 연구로서 韓基彥과 金仁會의 연구를, 外國에서의 조사연구로서 (1) 美國 Gallup Polls에서 조사된 美國人の 教育에 대한 態度調査 (2) Madinnus, Miller 등의 조사연구 (3) 日本에서의 日本人들의 學歷觀과 職業觀에 관한 조사연구 (4) 캐나다의 W. Adams의 教育觀조사를 개관하였다.

## Ⅲ. 教育觀의 概念模型

### 1. 教育觀의 概念과 性格

教育觀을 教育現實에 대한 主觀的 意味構成이라고 규정하고, 이 意味構成을 가치에 대한 認識과, 狀況에 대한 認識過程의 結果로 보고 있다. 상황인식에는 ① 주체에게 비추어진 현실의 像 ② 問題로 느껴지는 상황에 대한 인식 ③ 狀況과 實際에 대한 評價認識 ④ 상황에 대처하는 戰略 등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教育觀 조사를 위한 變因의 辨別의 영역은 크게

(1) 教育의 가치, 목적에 대한 인식 (2) 教育의 狀況과 學校教育制度의 運營에 대한 인식 (3) 教育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영역을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 教育觀 類型에 관한 模型을 작성하였다.

### 2. 教育觀의 類型模型

教育觀의 類型模型은 개별적인 조사변인을 중심으로 단편적인 기술을 하기 보다는 몇 개의 변인을 묶어 教育觀의 要素別로 意味構成體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教育觀의 갈등유형을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教育에서 추구할 價値·目的 측면에서 (1) 教育가치의 기본적 속성 (2) 學校教育의 社會的 機能 (3) 學校教育過程의 가치속성을 중심으로 유형을 구성하였다. 教育價値에 대한 생각을 분류하기 위하여 主體的·非主體的의 속성, 그리고 內在的·結果的의 속성으로 나누어 理想的인 人間像·教育內容·教師像에 관한 생각을 유형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學校教育의 社會的 機能에 대한 가치의식은 手段的 측면과 資源配分方式의 두 측면으로 분류하여, 수단적 측면에서는 機能的 體制維持(사회화 기능)와 社會改革·革新(사회정의 구현기능)으로, 資源配分方式에서는 人間主義·平等主義的 接近(자아실현기능)과 社會全體的인 統制方式(선발기능)으로 구분하여 4가지 유형을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은 教育가치 요소에서 구성된 유형들을 Singleton과 李宗宰의 韓國社會에서의 기본적 教育觀의 유형분석과 연결하여 (1) 儒敎的 教育觀, (2) 社會的 教育觀 (3) 個人的 教育觀 (4) 人間的 教育觀으로 분류하고 이에 관련되지 않은 유형을 (5) 기타 教育觀으로 종합·분류하였다.

學校教育制度에 대한 運營側面에서는 (1) 教育機會均等 實現度 評價 (2) 자녀교육의 기대수준 (3) 학교교육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진학동기 (4) 학교교육을 통한 選拔에 대한 태도 (5) 입시제도에 대한 평가 (6) 教育제도 운영에서 平等主義와 進步主義 (7) 教育제도 운영에서 保守性向과 進步性向, 그리고 (8) 學校教育에 대한 問題意識으로 구분하여 類型化하였다.

그 중 學校教育을 통한 選拔에 대한 전략적 태도를 平等主義의 接近(egalitarian approach)과 效率主義의 接近(elitist approach)로 구분하고 選拔時期와 위의 두 接近을 대비하여 貴族主義, 유럽식, 美國式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大學入試制度에 대한 評價意識을 '누가 大學에 가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貴族主義, 能力主義, 世俗主義, 儒敎主義로 구분하였다.

## IV. 本 研究의 接近

### 1. 研究問題와 接近方式

本 연구는 (1) 한국인의 教育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의 의미있게 분류, 特性化하여 한국인의 教育觀을 집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教育觀의 類型模型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2) 이 模型에 비추어 볼 때 韓國人的 教育觀의 類型的 特性은 무엇인가? (3) 教育觀의 유형적 특성간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가?에 관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접근은 個人을 分析의 단위로 하고 있으며, 갈등의 상태는 (1) 教育觀의 類型間에 (2) 各 類型別 集團間에 (3) 각 유형별 개인의 生活背景間에 갈등의 상황을 보고자 하였다.

### 2. 調查紙 開發

教育觀 調查紙를 개발하기 위하여 研究의 構造를 설정하고 (1) 개인의 특성과 屬性 (2) 集團 (3) 價值指向 (4) 社會觀 (5) 教育觀에 관련된 調查變因을 구성하였다. 각 變因別로 조사지를 개발하여 豫備調查를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 3. 調查對象과 標集의 構成

調查對象으로는 敎師, 學父母, 學生의 세 집단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類層無選標集方法에 따라 전국에 걸쳐 敎師 850명, 學父母 5,040명, 學生 5,560명으로서 총 11,450명이 표집되었다. 조사방법은 教育觀 調查紙를 각 學校에 우송하여 조사되었으며 실시는 1980年 10月 6일부터 18日

사이에 이루어졌다. 전체 회수율은 82%로서 약 9,000명의 반응을 分析 對象으로 하였다.

## VI. 韓國人的 教育觀 : 分析된 結果

教育觀 分析에 앞서 標集의 屬性이 性, 年齡, 거주지역, 직업분포, 학력분포, 소득분포,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 이동유형별로 분석하였다.

### 1. 韓國人的 價值指向 및 社會觀

한국인의 가치지향을 人間觀, 時間觀, 人間關係觀으로 보았을 때,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韓國人的 대부분은 人間の 本性이 善하다고 보고 있으며(72%), (2) 인간관계에서는 個人主義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54%). 그러나 上·下의 縱線主義가 이에 대립되고 있다. 敎師는 주로 個人主義의인 반면에 學生과 學父母는 個人主義와 縱線主義로 兩分되고 있다. (3) 韓國人的 대부분은 未未指向的이다(87%).

韓國人的의 社會觀으로서 (1) 韓國人的의 76%는 물질적으로 잘 사는 사회보다 人間이 존중되는 사회를 發展된 社會로 보고 있다. 人間尊重의 발전관은 敎師集團에게서, 物質爲主의 발전관은 男子, 낮은 教育水準, 農村地域,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더 발전되었다.

(2) 社會變化에 대한 態度에서는 생각이 兩分되고 있다. 韓國人的의 52%는 發展의 가능성이 적더라도 안정된 社會를 바라는 반면에, 42%는 安定보다 變化를 추구하고 있다. 安定指向은 學父母집단과, 變化指向은 男子, 높은 教育수준, 도시지역, 높은 社會·經濟的地位와 관계가 있다.

(3) 社會的地位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個人의 能力에 있으나 환경적 배경에 있느냐의 문제에서 韓國人들의 생각은 能力主義 49%, 背景에 관계되는 歸屬主義 44%로 양분되고 있다. 敎師集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도시지역에서는 보다 더 귀족주의에 의해, 학부모집단은 보다 더 能力主義에 의해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4) 韓國人的의 83%는 職業選擇의 準據로서 本人의 能力, 興味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5) 價值指向과 社會觀을 관련하여 韓國人的



일반적 가치지향 類型을 살펴보면 ① 人間爲主의 發展觀과 人間の 本能을 善으로 보는 유형이 67%이며, ② 시간적으로는 未來指向性 속에 安定과 變化의 추구로 양분되고 있다. ③ 職業의 內在的 價値를 중시하며 社會的 地位가 能力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유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52%), 이외에 귀속주의적 인식도 34%를 차지하고 있다.

## 2. 추구되어야 할 教育의 價値觀

(1) 理想的인 人間像에 대하여 한국인의 53% 이상이 道德的 人間型과 主體的 人間型을 선택하고 있다. 이와 달리 社會型, 實力型도 35%나 된다. 主體的 特성은 높은 社會·經濟的 地位, 善한 人間觀, 個人主義, 未來指向性, 人間爲主의 發展觀과 관계가 있다. 이를 類型의으로 분류하였을 때 韓國人의 주류는 主體·內在的 유형 (36.8%)을 이상적인 人間像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結果的 價値·內在的 價値의 혼합정도 26%나 되고, 있다. 集團別로 볼 때 教師가 주로 主體·內在指向인 반면에, 學生·學父母는 結果·內在의 혼합가치 및 實際的 性向을 나타내고 있다.

(2) 韓國人의 價値意識을 가르쳐야 할 教育內容의 측면에서 보면 創意性, 社會性을 주요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集團間에 차이가 없으며, 생활배경으로 볼 때는 보다 높은 연령,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구성원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類型의으로 분류해 보면 韓國人의 主流 (56%)는 主體(창의성)·內在的 價値(도덕성·사회성)를 선택하고, 31%가 이에 독립적으로 主體·結果的 價値(직업·진학준비)를 선택하고 있다. 前者는 教師集團에서, 後者는 學生과 學父母集團에서 더욱 많이 발견되었다.

(3) 理想的인 教師像에 대한 價値 선택에서는 韓國人의 대부분이 (80%) '信念' '사랑과 관심'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지도'의 유형을 이상적인 教師像으로 선택하고 있다. 學父母는 '信念'을, 學生과 教師는 '관심과 사랑'을 더 높이 요구하고 있다. 이를 類型의으로 분류해 보면 主要類型은 主體·內在型(人生, 삶, 신념, 사랑 등 50%)이며, 그 다음이 結果·內在型(실력, 요령지도, 신념, 관심)이다. 教師集團에서 主體·內在型이, 學

生集團에서 結果·內在型이 더 발견되고 있다.

## 3. 學校教育의 社會的 機能에 대한 重要度 評價

(1) 學校教育의 社會的 機能에 대한 韓國人의 價値意識은 社會正義를 구현하는 社會改革·革新機能과 自我實現을 강조하는 人間主義·平等主義의 가치를 指向하고 있다. 社會體制 유지와 사회적 선별기능은 학교교육의 사회적 기능으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지 않다. 社會正義 具現과 自我實現 機能은 보다 더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 소득수준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며 도시지역 構成員에게서 더 발견되고 있다. 반면에 農村, 社會·經濟的 地位가 낮은 集團에서 社會化 機能을 중시하는 體制維持와 社會的 選拔機能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社會化 機能은 종선주의적 인간관계, 귀속주의적 직장관이고, 사회적 選拔機能은 橫的인 人間關係, 물질위주 발전관, 귀속주의적 직장관과 관계가 높다. 반면에 人間爲主의 發展觀을 지닌 사람이 社會主義 具現機能을 중시하며, 變化 指向性을 지닌 사람이 自我實現機能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2) 韓國人의 教育觀을 Singleton의 類型模型에 비추어 분류하면 人間主義 教育觀이 主流를 이루고 있으며, 유교적 教育觀과 個人的 教育觀이 併行하고 있고, 社會的 教育觀이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 4. 學校教育制度에 대한 評價意識

(1) 教育機會均等に 대한 評價에서 韓國人의 53%는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37%는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肯定的인 평가는 學父母集團, 農村, 낮은 教育水準, 낮은 社會·經濟的 地位, 女子, 높은 연령층에서 더욱 발견되었다.

(2) 子女에 대한 教育 포부수준은 大學校 이상 보내기를 원하는 비율이 아들의 경우 89%, 딸의 경우 70%가 되고 있다. 자녀에 대한 教育 포부 수준은 教師, 여자, 낮은 연령, 높은 교육수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구성원일수록 더 높다.

(3) 教育포부 수준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는 주

요 制約要因은 經濟的 理由(47%)가 가장 높고 學業能力不足(21.4%)도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前者는 教師·學父母에게서, 後者는 學生에게서 더 발견되었다.

(4) 教育機會均等を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集團에서 더욱 教育포부 制約要因이 환경적 요인에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教育포부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욱 經濟的 理由에 해당되는 환경적 요인을 중요 制約要因으로 들고 있다.

(5) 學校教育의 經濟的 價値에 대하여 韓國人의 39%가 肯定的인 반면, 43%가 부정적이다. 教師, 男子, 낮은 연령층, 높은 教育수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구성원이 學校教育의 경제적 가치에 더욱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6) 學校教育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否定的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에 大學 進學動機로서는 65.5%가 경제적 동기에 의해 진학하고 있다.

## 5. 學校教育의 社會的 選拔

(1) 學校教育의 사회적 선별이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教育機會의 開放에 대하여 韓國人의 65%가 개방에 찬성하는 平等主義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학생,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농촌 지역구성원에게서 더 요구되고 있다.

(2) 선별시기에 대하여 韓國人의 69%가 早期選拔은 찬성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 농촌거주자일수록 早期選拔은 찬성하고 있다.

(3) 學校教育의 사회적 선별에 대한 類型模型을 보면 韓國人의 54%가 教育機會는 開放하되 早期選別을 하는 유럽식 선별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學生이 이런 유형에 더욱 찬성하고 있고 教師集團은 소수중심의 早期選拔에 해당되는 貴族主義 模型에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4) 入試制度에 대한 評價에서 韓國人의 91%는 能力主義에 의해 大學入學者가 선별되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에 14.3%만이 能力主義에 의해 大學進學者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입시제도에 대하여 교사, 학생, 낮은 연령층,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구성원이 더욱 否定的이었다.

## 6. 學校教育의 運營方式

(1) 韓國人의 주류는(64%) 學校教育 運營方式에서 平等主義를 지향하고 있으며, 30% 정도가 效率主義를 지향하고 있다. 즉 65% 정도가 경쟁적 教育방법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고 있고 57.5%가 혼합반 편성을 원하고 있다. 우열반 편성은 教師, 대도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구성원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2) 學校教育 運營方式에서 保守主義와 進歩主義는 팽팽하게 양분되고 있다. 즉 試驗에 대한 가치는 韓國人의 76%가 인정하고 있으며, 體罰에 대해서는 48.5%가 教育적 가치를 인정하고, 41%가 否定하고 있다. 學校에 안보넬 自由의 소유여부에 대해서는 47.2%가 이 자유를 부정하고, 40%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都市,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進歩主義的인 경향을 볼 수 있다.

## 7. 學校教育에 대한 問題意識

통상 제기되는 教育問題에 대하여 韓國人의 대부분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教師集團, 도시지역,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教育문제에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 8. 教育觀 類型에 대한 要因分析

教育觀 類型에 대한 要因分析 結果 ① 社會·經濟的 地位 ② 教育問題認識度 ③ 學校教育에 대한 評價度 ④ 教育價値意識과 價値指向, 平等主義 ⑤ 學力職業觀과 進歩主義 ⑥ 性 ⑦ 教育에 대한 社會的 需要 등 7가지의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대체적으로 教育觀 構成要素와 일치하고 있다.

## VI. 結 論

이상과 같이 韓國人의 教育觀의 類型的 特色을 살펴본 결과, 教育觀 類型間에 갈등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主要 갈등은 (1) 教育의 現實的 狀況과 韓國人이 추구하고 있는 教育價値觀과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 (2) 韓國人의 教育價値觀의 基本型

인 主體·內在的 價値指向과, 보다 現實的인 結果·內在的 價値指向이 대립되고 있다. (3) 韓國人的의 기본적 教育觀은 人間中心의 教育觀이고, 이 기본형에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儒敎的 教育觀과 教育을 통하여 個人的 社會的 地位 상승을 모색하는 個人的 教育觀이 대표적인 教育觀이다. 그러나 이는 政府의 教育정책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社會的 教育觀과 갈등상태에 있다. (4) 子女에 대한 教育포부 수준과 현실 가능한 教育水準間에 격차가 매우 크다. (5) 教育의 經濟的 價値는 낮게 평가하면서 進學은 經濟的 動機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서도 갈등을 발견할 수 있다. (6) 教育을 통한 社會的 選拔에서 機會는 開放하되 早期에 선별하는 입장이 주류를 이룸으로써, 선발이념과 선

발시기간에 갈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선발관은 유럽식 귀족주의 유형과 美國式 選拔類型과도 갈등을 보이고 있다. (7) 大學入試制度에 대한 評價에서도 대학에 가야 하는 학생의 유형과 현재 가고 있는 학생의 유형간의 격차가 매우 크며 이는 현입시제도에 대한 否定的 評價를 초래하고 있다. (8) 學校教育制度 運營에서 주류를 이루는 平等主義와 效率主義가 갈등을 나타내며, 특히 保守性과 進歩性間의 갈등은 이보다 더욱 팽팽하다고 할 수 있다. (9) 이상의 教育觀의 여러 측면에서 教師, 學父母, 學生 등의 集團間 差異도 발견되고 있으며, 都市·農村間, 社會·經濟的 地位間에도 教育觀의 갈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社會·經濟的 地位間에 教育觀의 差異가 매우 크다. ————— ●



(35페이지에서 계속)

람들은 어떠한 직업에 종사해도 출발시에 있어 균등해야 하고, 진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직업간의 격차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보수체제의 평준화는 인간적 평가의 민주화를 획기적으로 촉진시킨 것이다. 최선의 진로관은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또는 환경, 성(性), 그리고 지역에 구애됨이 없이 개인의 능력·적성·필요에 따라 진로를 청소년들이 택할 수 있게 하는 원리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직업의 등가치적 평가와 이에 따른 보수체제의 평준화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하나의 주장이나 이론에 머물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현실이 개인의 능력·적성·필요에 따라 진로를 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진로관 지도에 비판적이

어서는 아니 된다. 직업의 등가치적 평가와 보수체제의 평준화는 정치 및 행정적 문제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진로관의 확립은 교육자·정치자·행정가들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각계각층이 협동해야 성취할 수 있는 사회개발사업은 그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에 강조한 것과 같이 청소년들의 진로관 형성에 있어 가정과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는 본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질(質)은 그러한 역할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질이 부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그 질의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회개발사업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 靑少年 問題 綜合診斷研究

— 自我概念과 價値觀을 中心으로 —

朴 富 權

(本院 研究員)

## I.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靑少年期는 心理的 發達段階로 보았을 때 思春期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의 약 10년을 포함하는 시기로서 대략 12~22세 사이의 연령층을 일컫는다. 이들은 이미 兒童期를 벗어나 身體的으로, 心理的으로 成人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現代의 産業社會 속에서는 經濟體制의 變化, 學校教育의 普遍化와 형식교육의 연장 結婚時期의 遲延 등으로 인하여 Erikson의 이른바 支拂延期(Moratorium)現象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연유로 하여 이들은 끊임없이 社會的 獨立, 異性과의 自由로운 交際, 責任 있는 自律的인 役割遂行, 經濟的 自立 등을 추구하며 生活目標, 自我正體感(Self-identity)發見을 위하여 盡力하나 挫折을 맛보기 쉬우며 이러한 挫折은 다시 靑少年들의 또 다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갈등, 방황, 반항의 原因이 되고 있다.

靑少年들에 대한 眞正한 指導育成的 問題가 점차 重要한 社會的·國家的 問題로 등장함에 따라 政府는 1964年 靑少年 保護對策委員會 設置運營을 비롯하여 靑少年들을 위한 社會環境의 淨化, 健全育成施設의 整備擴充, 福祉擴大, 職業訓練 등을 실시하여 많은 成果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政府의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0年 이후의 靑少年 犯罪動向은 실로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한다. 즉 靑少年 범죄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6.27%로서 전체 범죄자수의 연평균 증가율 6.06%를 앞지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

靑少年들의 연령과 학력도 더욱 年少化, 高學力化하고 있으며, 범죄의 유형도 強力化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靑少年 問題는 한 번의 調查나 연구로 把握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하나의 조치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社會가 變化함에 따라 이들이 提起하는 문제의 성격도 달라지며 따라서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靑少年 問題는 하나의 社會問題로서 그것의 社會的 結果에 의하여 定義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靑少年들의 逸脫과 非行이 社會的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년원 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는 靑少年들에게 研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靑少年 문제를 특정집단에 제한 시킴으로써 그 研究結果의 전체 靑少年들에 대한 一般化를 어렵게 만든다. 더욱이 靑少年 問題에 關한 한 處方보다는 豫防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非行集團의 非行行爲에 重點을 두는 것보다도 전체 靑少年들의 意識構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根本的인 문제를 보다 세밀하게 밝히고 이들에 대해 보다 적절한 對應策을 마련하는데 더 效果的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靑少年들의 自我概念과 價値觀을 中心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意識構造의 특징을 드러내고, 自我概念과 價値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社會環境的 要因을 究明하므로써 靑少年 問題의 原因을 밝히고 이들에 대한 對應策 수립에 시사를 얻고자 하였다.

\* 이 論文은 1981年 本院에서 수행한 “靑少年 問題 綜合診斷研究 —自我概念과 價値觀을 中心으로—”(研究報告 RR-145)을 要約한 것이다.

## II. 理論的 背景

靑少年 問題에 관한 지금까지의 研究들은 逸脫靑少年과 非行靑少年들을 對象으로 하여 이들의 問題行動과 非行에 研究의 焦點을 맞춘 경우가 많았다. 韓完相(1974), Glaster(1956), Cohen(1966), Sykes와 Matza(1961) 등의 社會學的 研究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들은 靑少年들이 非行과 逸脫을 저지르는 原因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共通的으로 提起하고, 그 原因의 일단이 되고 있는 社會環境的 要因을 탐구하므로써 靑少年 非行과 逸脫에 관한 一聯의 科學的 法則을 定立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靑少年들의 日탈과 非行이 社會環境的 要因에만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 Shedon(1962)에 의하면 犯罪을 저지르는 靑少年들의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이 저지르는 犯罪와 同一한 犯罪를 저지른 經驗이 있으며 Lombroso(1967) 역시 신체적·정신적 특징은 遺傳的이며 따라서 살인과 같은 重犯罪는 先天的 犯罪者에 의하여 범해진다고 주장한다. Freud(1954)와 Jung(1964)을 비롯한 精神分析學者들도 人性形成에 있어 遺傳的 要因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Hearly(1935)는 靑少年들의 非行과 逸脫에 關한 研究는 하나의 原因으로 이를 說明하려고 하는 單純要因接近法(Simple factor approach)보다는 非行과 逸脫에 作用하는 여러가지 要因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를 說明하려고, 하는 重多要因接近法(multiple factor approach)이 더 效果的임을 지적하고 있다. Sheldon과 Glueck(1962)은 Hearey의 立場에서 靑少年들의 諸 特性과 社會環境的 要因(Social factors) 예컨대 부모의 병리, 가정분위기, 家庭缺損, 가족간의 애정, 부모의 범죄, 가사운영의 계획성, 자녀훈육 方法, 母의 직업여부 등이 정상靑少年과 비행靑少年 間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를 살피고 있다.

靑少年들의 意識構造는 그들이 처한 環境을 반영해주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그들 行爲의 規制 體制로서 그들 行動을 예언할 수 있는 端緒가 된다. 意識構造는 그 意味가 매우 광범위한 概念

이라고 할 수 있으나, 黃禎奎(1979)는 이를 自我概念, 價値觀, 精神健康, 願望隔差와 同一한 意味로 사용하고 있다. Bower(황정규; 재인용)에 의하면 精神健康의 가장 核心은 自我過程인 바 그것은 自我辨別能力, 自我擴張性, 自我統合性을 포함한다. 또한 Ellis(1962)도 人間의 不適應 行動, 心理的 異常, 정서불안 등은 歪曲된 知覺, 非合理的인 信念과 思考에 기인하고 있다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정신건강은 自我概念과 구별되기 힘든 概念이며, 뿐만 아니라 願望隔差도 한 完상 등이 시도한 그것의 操作的 定義에 비추어 볼 때 價値觀과 구별되는 概念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靑少年들의 意識構造는 이들의 自我概念과 價値觀으로 적절히 代表될 수 있다고 본다.

自我概念과 價値觀은 個人과 社會環境과의 力動的 相互關係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環境의 意味와 作用의 性格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를 分類하여 概念化할 必要가 있다. 環境은 대체로 다음 세가지 方法에 따라 分類되고 있다. 첫째는 都·農과 같이 自然條件에 따라 分類하는 方法이고, 둘째는 가정, 학교, 동료집단 등과 같이 機關別로 분류하는 方法이며, 셋째는 地位環境, 構造環境, 過程環境과 같이 環境의 特性과 作用의 양식을 동시에 고려하여 分類하는 方法이다. 本 研究에서는 都·農別 환경 뿐만 아니라 都市들을 傳統的 教育都市와 新興産業都市로 나누고 이 양자가 靑少年들의 意識構造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가정환경에서만은 세번째의 分類方法을 따랐으며, 따라서 本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가정의 “일반적 환경”, “가정분위기”, “부모 자녀간의 관계유형”은 곧 지위, 구조, 과정 환경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對人關係類型은 Carson(1969)의 對人關係理論에 대한 綜合을 참고로 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Carson(1969)은 Brown(1965), Leary(1957)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對人關係에 대한 要因分析의 研究(factorial Study)를 검토한 후 이들 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대인관계의 次元은 서로 독립적이며 양극적인 성격을 지니는 두 次元, 즉 지배(Dominance)와 복종(Submission), 애정(Affe-

<表-1>

集團別·男女別 標集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업체부설 중학교	업체부설 고등학교	근로 청소년	고아원	소년원	교도소	계
남	796	793	215		115	141	26	101	106	2,293
여	789	804	220	259	400	197	64			2,733
계	1,585	1,597	435	259	515	338	90	101	106	5,026

<表-2>

都·農別·都市別 標集數

	청주	충주	진주	마산	전주	군산	서울	기타도시	계
도시	739	248	355	244	246	240	1,169	228	3,469
농촌	234	221	221	305	236	340			1,557
계	973	469	576	549	482	580	1,169	228	5,026

ction)과 증오(Hostility)의 차원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결론 짓고 있다.

### Ⅲ. 研究方法 및 節次

#### 1. 標集設計

本 研究의 標集方法으로는 類層群集 無選標集 (stratified clustered random sampling)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集團別, 性別, 都農別, 都市別 標集數는 위의 <表-1> <表-2>와 같다.

#### 2. 研究變因과 測定道具

本 研究가 分析對象으로 하고 있는 變因은 (1) 社會環境 (2) 自我概念 (3) 價値觀으로 大別될 수 있다. 社會環境 變因은 다시 ① 일반적 環境變因 ② 가정 분위기 ③ 부모와 자녀간의 關係類型 및 친구의 對人關係類型으로 구분된다.

##### (1) 社會環境

사회환경. 중에서도 일반적 환경변인은 도·농, 도시, 집단 등의 類目變因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操作變因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가정의 社會·經濟的 地位는 부의 교육정도, 부의 직업 및 가정의 총 수입으로 測定되었다. 가정 분위기는 “부의 과음”, “부의 모구타”, “부모의 정서불안”, “가정의 제회성”, “가족활동의 규칙성” 등 5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은

각 행동의 빈도수 정도를 5選擇肢로 제시하고 그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부모, 자녀간 및 친구간의 對人關係유형은 지배, 복종, 친애, 적의 각 차원 마다 4 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방법은 가정분위기와 동일하다.

##### (2) 自我概念

自我概念을 측정하는데는 Fitts(1965)의 Tennessee Self-Concept Scale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번안한 鄭元植의 “自我概念檢査”가 사용되었다.

##### (3) 價値觀

價値觀을 測定하기 위해서는 Rokeach(1973)의 價値觀 檢査가 사용되었다. Rokeach의 價値觀 檢査는 물질적 안락(a comfortable life), 기회 균등(equality), 가족의 안전(family security)등과 같이 인간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 상태를 나타내는 目的的 價値 18개 항목과, 능력(capable), 쾌활(cheerful), 순종(obedient)등과 같이 궁극적 상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나타내는 道具的 價値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법은 目的的 價値와 道具的 價値를 별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항목부터 순서대로 8번까지 번호를 매기게 하였다.

#### 3. 檢査實施 方法

本 檢査는 1981년 6월 26일부터 동년 7월 31일 사이에 본 연구진 1명과 대학원생 1명이

로 구성된 조사팀의 현지출장으로 조사되었다. 검사시간에 제한은 없었으나 대략 60분에서 90분이 소요되었다.

#### 4. 資料處理

本 研究에서 사용된 주요한 統計方法은 要因分析(factor analysis), 重多回歸分析(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dian test, H-grouping analysis 등이다. 要因分析은 eigen value 1.0 이상되는 主要因들을 產出한 후 主要인들을 다시 直交迴轉시켜 Varimax 회전요인행렬을 얻었다. 그리고 要因點數를 分析의 原點數로 삼을 때는 Harmann 이 제안한 방식에 따라 要因點數를 산출하였다. H-grouping에서는 情報損失量(loss of detail; error)이 급격히 증대하는 遷急點에서 끊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친구의 대인관계 유형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손실량에 관계없이 다섯 집단에서 끊었다.

〈表-4〉 青少年 集團別 총자아긍정점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산·중	산·고	근로청소년	소년원	교도소	교아원
M	299.17	301.84	312.64	299.13	298.18	299.24	285.20	287.73	282.17
SD	48.54	44.69	53.40	33.12	40.65	47.51	25.82	27.86	25.11
F	8.727						P<.001		

교 근로청소년이 非行青少年보다 높으며, 非行青少年集團이 교아원 集團보다 높다. 自我概念을 성별로 보면 총자아긍정 점수는 남녀별 차가 없으나 신체적·성격적 자아와 자아평가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道德的, 家庭的 自我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自我概念은 14세를 기점으로 볼 때 15세까지는 점차 증가하다가 15—17세 사이에는 일시 하강·혹은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社會·經濟的地位가 높을 수록 自我概念은 높고, 親舊交際와 異性交際에 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自我概念形成에 肯定的으로 작용하며, 가족수에 따른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은 5인 가족까지는 증가하나 그

## IV. 結果 및 解釋

### 1. 社會環境과 自我概念

都市 青少年들의 自我概念이 農村 青少年들의 自我概念보다 높고, 이를 都市別로 살펴보면 傳統的인 성격이 강하고 都市의 教育的 배려가 높은 全州의 青少年들이 다른 어떤 都市보다도 더 높은 自我概念을 나타내었다. 青少年集團 중에서도 自我概念이 가장 높은 集團은 大學生集團이

〈表-3〉 도·농별 총자아긍정점수

	도 시	농 촌
M	301.59	297.27
SD	44.67	47.99
F	9.069	
	P<.01	

며 가장 낮은 集團이 교아원이다. 그리고 正規學校에 다니는 青少年들이 근로 青少年들보다 높

보다 더 많아지면 점차감소현상을 나타낸다. 自我概念을 양육자별로 살펴보면 친부모를 양육자로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自我概念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양부모 그리고 계부모를 양육자로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낮다.

青少年들의 가정 분위기 要因構造는 〈表-5〉와 같다. 이때 가정 분위기와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은 1% 수준에서 意義있는 重多相關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가정 분위기와 총자아긍정 점수와의 重多相關은 46이며 총자아긍정 점수를 가장 잘 예언해 주는 가정 분위기 요인은 가정의 安定과 和睦이고 그 다음이 愛情缺乏, 父의 病弱, 父의 懶怠 순이다.

父·母의 子女에 대한 對人關係類型과 青少年

〈表-5〉 靑少年들의 가정분위기 要因構造

要 因	要因 負荷量 (factor loading)	변 량 평 량 실  (%)
제 1 요인 : 安定 · 和睦	부모에 대한 동일화 (.33), 대 청소 (.39), 물품구입 예산성 (.44), 가족활동의 계획 (.46), 부모간의 존경 (.57), 가족간 의 사랑 (.67), 가족활동에 동 참 (.38), 친구 환대 (.50)	19.0
제 2 요인 : 父의 愾念	부의 음주 (.66), 부가 모 구 타 (.64)	10.3
제 3 요인 : 愛情 缺乞	부모 · 자녀구타 (.66), 형제싸 움 (.40)	8.9
제 4 요인 : 父母의 病弱	부모의 신경쇠약 (.45), 부모 의 병약 (.39),	7.7

들의 총자아긍정 점수는 1% 수준에서 그리고 친구의 대인관계 유형과 청소년들의 총자아긍정 점수 간에는 5% 수준에서 意義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親愛的 服從과 親愛的 支配의 성향은 父母에서 共通的으로 子女들의 自我概念을 높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子女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경우 또한 父와 母에 관계없이 子女들의 自我概念形成에 부정적으로 作用하고 있다. 그러나 친구관계에 있어서는 父母의 子女關係와는 달리 친애적 복종과 친애적 지배형이 청소년들의 自我概念形成에 肯定的으로 作用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表-6〉 父母 및 친구의 對人關係類型別 靑少年들의 총자아긍정점수 平均值 및 差의 意義度

부		모		친		구	
MS	12779.9	MS	6086.5	MS	2991.2		
F	13.7	F	5.9	F	2.8		
P	.000	P	.000	P	.03		
소극적 무관심형	299.3	친애적 복종형	320.8	거부적 무관심형	309.8		
친애적 지배형	313.2	거부적 무관심형	304.4	경쟁적 지배형	310.4		
거부적 지배형	287.8	거부적 소극형	294.1	적대적 위계형	290.4		
친애적 복종형	320.0	비합리적 거부형	299.1	친애적 지배형	300.7		
거부적 무관심형	285.1	친애적 지배형	311.1	친애적 복종형	299.8		
계	305.1	계	305.1	계	305.1		

어느 정도의 拒否的 · 排斥的 性向은 반대로 自我概念形成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극단적이 아닌 拒否的 · 排斥的 性向을 일종의 競爭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친구관계 속에 개재하는 좋은 意味의 競爭心은 청소년들의 自我概念形成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을 수 있다.

## 2. 社會環境과 價値觀

價値觀을 都農別로 살펴보면 都市靑少年들이 物質的 安樂, 社會的 認定, 能力, 事理分別, 自己統制 등의 個人的, 成就的 價値를 더 重視하는데 비하여 農村靑少年들은 國家安保, 즐길 수 있는 여유 등에 더 높은 價値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集團別로 보면 中 · 高 · 大의 正規

學校靑少年들이 成就感과 自己尊重을 더 重視하는데 비하여 근로靑少年, 소년원, 교도소, 고아원 集團은 物質的 安樂을 더 重視하고 있다. 價値項目 중에서도 成就感, 自己尊重, 能力, 自己統制, 異性과의 사랑, 事理分別 등은 年齡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重視하고 있으며, 家族의 安全은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덜 重視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남자들이 異性과의 사랑, 즐길 수 있는 여유, 國家安保 등에 더 높은 價値를 부여하고 있는데 비하여 女子들은 심미와 종교적 구원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靑少年들의 價値觀을 要因分析한 결과 나타나는 價値觀의 要因構造는 다음 〈表-7〉과 같다. 제 1 요인은 즉각적 보상 대 만족의 지연을 양극으로 하고 있는 要因으로서 社會的 階層要因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즉각적 보



〈表-7〉

韓國 靑少年의 價値觀 要因構造

要 因	상위의 정적요인부하량	상위의 부적요인부하량	변량설명량(%)
1. 즉각적 보상대 만족의 지연	1. 쾌 활 (.60) 1. 청 결 (.44) 1. 창의성 (.35)	1. 책임감 (-.52) 1. 자기통제 (-.47) 1. 솔직 (-.37)	7.5
2. 능력대 도덕	1. 자주성 (.36) 1. 지성 (.55) 1. 사리분별 (.39)	1. 관대 (-.40)	6.4
3. 즉흥성대 영구성	T. 신나는 생활 (.75)	1. 정직 (-.41)	5.8
4. 개인적 안락대 공동체지향	1. 물질적 안락 (.56)	T. 기회균등 (-.43) T. 자유 (-.43)	4.4
5. 성취지향대 여유지향	T. 성취감 (.38)	T. 이성과의 사랑 (-.38) T. 즐길 수 있는 여유 (-.45)	3.3
6. 수축대 확장	1. 가족의 안전 (.39)	1. 용기 (-.35)	3.0
7. 추상성대 구체성	T. 심미 (.36)	T. 행복감 (-.58)	2.8

T: 궁극적 가치

I: 도구적 가치

상은 하층의 가치지향을, 만족의 지연은 상층의 가치지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Rokeach(1973)의 分析結果와도 부합한다. 제 2 요인은 능력과 도덕을, 제 3 요인은 즉흥성과 영구성을, 제 4 요인은 개인적 안락과 공동체 지향을, 제 5 요인은 成就指向과 餘裕指向을, 제 6 요인은 수축과 확장을, 제 7 요인은 추상성과 구체성을 兩極으로 하고 있는 要因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價値觀과 가정 분위기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社會的 自己認識의 價値項目에서만 통계적으로 意義있는 重多相關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社會的 自己認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정 분위기 요인은 가정의 愛情缺乏이다. 여기에서 父母의 차별과 형제간의 다툼이 적은 청소년일수록 社會的 自己認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示唆받을 수 있다.

價値觀을 父母의 子女에 대한 對人關係類型에 따라 살펴보면 신나는 生活, 幸福感, 즐길 수 있는 여유, 自己尊重, 事理分別, 責任感, 自己統制 등에서 對人關係類型別로 意義있는 重多相關

을 보여주고 있으며, 친구의 대인관계 유형에 따라서도 신나는 生活, 自己尊重, 社會的 認定, 友情, 自己統制 등에서 各類型別로 意義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VI. 提 言

本 研究結果를 土臺로 靑少年의 健全育成을 위하여 몇가지 提言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地域間的 社會·文化的 隔差가 解消되어야 한다.
2. 非學生集團과 缺損家庭에 대한 福祉制度가 強化되어야 한다.
3. 靑少年들의 共同體意識의 強化가 必要하다.
4. 繼父母에 대한 社會的 認識이 刷新되어야 한다.
5. 가정 분위기가 民主的으로 되어야 한다.
6. 靑少年들의 生活指導 및 相談活動이 強化되어야 한다.
7. 學校教師의 役割과 教師像이 새롭게 刷新되어야 한다.

# 心理研究 動向分析

—國內 碩士學位 論文을 중심으로—

羅 靜  
(本院 研究員)

## I

skinner(1958) 등에 의하면 教育心理學은 학습 장면의 價値와 效率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教授와 學習의 問題 및 教育者로서 준비해야 할 모든 분야가 研究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教育心理學의 性格이나 研究對象은 단순한 教授와 學習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學習者의 本質이나 教育 또는 學習의 場에 대한 科學的 研究 및 教育目標나 課題의 타당성, 즉, 무엇(what)과 왜(why)를 결정하는 배경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教育心理學의 性格糾明은 教育心理學의 성립기라고 할 수 있는 1910년을 전후하여 教育和 실험실 심리학과와의 결합을 통해 주로 研究된 發達, 學習, 能力, 個人差, 教授法 등의 研究와 그 후 1940년대의 教育心理學—초기의 내용에 環境과 性格, 適應, 정신위생, 상담, 測定 評價 등의 내용까지 확대된—을 통하여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1950년대에 이르러 그 연구영역이 확대 심화된 教育心理學은 예컨대 人間發達과 教育, 學習心理, 學習지도, 性格 및 適應의 지도, 個人差心理 등 실제 教育의 場과 깊이 관련지어가며 理論보다는 適用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1960년대는 學習心理學의 획기적인 발전이 教育心理學에 큰 영향을 주어 認知論 및 轉移理論

이 심화되고 각종 模型理論(model theory)이 등장했으며 教授理論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教育의 場에서 전개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의 해결에 教育心理學이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社會心理學的 理論이 教育心理 研究에 도입되었으며 人間開發을 위한 知能과 適性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는 등 教育心理의 연구영역은 날로 넓어져가고 있다.<sup>1)</sup>

本 教育心理 研究動向 分析은 지난해 本院 研究資料室에서 발간된 教育學 學位 論文 抄錄集 「教育心理篇」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教育心理篇 抄錄集은 1953년부터 1980년까지 國內各 大學에서 인준된 教育學 碩·博士學位論文 중에서 教育心理分野(상담 및 진로지도와 특수아 영역은 제외)에 해당하는 論文 360여편에 대한 초록을 수록한 것이다. 本 研究動向 分析은 그 중 편수가 적어 분석하기 곤란한 박사학위 논문은 제외하고 석사학위 논문(347편)만을 분석한 것으로서 주로 研究主題와 그 연도별 경향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II

먼저 分析對象 論文인 총 347편의 분포를 연구 변인수를 포함하여 연대별로 알아 보았다(표-1) 참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1) 정현식외 2人, 현대교육심리학, 교육출판사, 1978

〈표-1〉 교육심리 석사학위 논문 분포

연구 변인	연대별					합(편)
	1957 ~60	1961 ~65	1966 ~70	1971 ~75	1976 ~80	
단일변인	2	7	16	41	37	103
2개변인	1	12	35	95	82	225
3개변인				11	8	19
합(편)	3	19	51	147	127	347(편)

教育心理분야 석사학위 논문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 급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대

부분의 論文이 2개의 變因, 즉,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다루었다는 사실 및 2개이상 3개의 變因을 다룬 論文은 學位論文의 급증과 더불어 즉 19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다음은 총 347편의 論文 중에서 한개의 變因만을 선택해서 연구한 것과 2개의 變因, 즉,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의 분포를 연대별로 알아본 것이다(〈표-2〉 참조).

〈표-2〉

교육심리 석사학위 논문분포  
(변인수 및 변인관계별)

독립변인	종속변인	연대별										합(편)						
		발달	학습	적응	특정 평가	인성	환경 작용	인지	정서	동기	육구							
발달	달	2 (17)				3		14					1 (1)	4 (11)	2 (5)	19 (17)		
학습	습	1 (19)	5			3		6	1	2				2 (4)	10 (8)	6 (5)	18 (19)	
적응	응	1	1			1											3	
특정 평가	평가		3											1 (1)	2 (4)	1 (9)	4 (8)	23
인성	성		8	3		3 (5)		9 (1)	1		1			1 (1)	5 (1)	9 (4)	10 (6)	25
환경 작용	작용	11	20	5		45 (1)	1	12	2	8	2			7	16	41 (1)	42 (1)	106 (1)
인지	지		8	4	1	5		1 (33)		1				1 (9)	4 (12)	9 (12)	6 (12)	20 (33)
정서	서		6	2		2									1 (1)	3 (1)	7 (2)	11 (2)
동기	기		5			5		3						2 (1)	3 (1)	6	2	13 (1)
육구	구		2	3					1							3	3 (1)	6 (1)
1957~60		(1)				(1)		1						1 (2)				
1961~65		1 (2)	3	2		(4)	2	3 (1)		1				12 (7)				
1966~70		1 (4)	8	3	1	11 (1)		7 (9)		3 (1)	1			35 (16)				
1971~75		5 (11)	30 (8)	9		25 (9)	1	19 (12)	1	3 (1)	2			95 (41)				
1976~80		6 (5)	14 (5)	8		29 (8)	(1)	15 (12)	4 (1)	5	1 (1)					82 (37)		
합(편)		13 (17)	55 (19)	22 (23)	1 (5)	67 (1)	1 (34)	45 (2)	5 (1)	12 (1)	4 (1)							225 (103)

위 〈표-2〉를 분해하여 단일변인만을 다룬 103편의 論文 분포를 재정리 해 보았다. 옆의 〈표-3〉은 단일변인으로 선정된 개념 및 그 연대별 분포를 알아본 것이다(순위 4위까지).

〈표-3〉을 통하여 단일변인을 주제로한 論文은 주로 認知나 測定·評價 및 學習心理에 관

〈표-3〉 단일변인의 분포

순위	변인	합	1957 ~60	1961 ~65	1966 ~70	1971 ~75	1976 ~80
1	인지	33			9	12	12
2	특정평가	23	1	4	1	9	8
3	학습	19		2	4	8	5
4	발달	17	1			11	5

한 것, 成長·發達에 관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을 통하여 그 구체적인 변인을 살펴본 결과 認知에 포함된 연구주제로는 특히 思考와 '知覺'이 많았으며 測定·評價는 주로 '道具'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것이었다. 成長·發達에 관한 주제는 대부분 Piaget의 理論을 검증해본 것이었는데 이는 1970년대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Piaget의 이론이 우리 나라에도 그 영향을 준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다음의 <표-4.5> 역시 위의 <표-2>를 재정리한 것으로서 2개의 변인을 다룬 총 229편의 論文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별하여 각 변인으로 선정된 개념의 순위와 그 시대별 경향을 알아본 것이다.

<표-4> 독립변인의 분포

순위	변인	합(편)	1969 ~60	1961 ~65	1966 ~70	1971 ~71	1976 ~80
1	환경작용	106		7	16	41	42
2	인성	25		1	5	9	10
3	인지	20		1	4	9	6
4	발달	19	1		4	12	2
5	학습	18			2	10	6
6	동기	13		2	3	6	2
7	정서	11			1	3	7

<표-5> 종속변인의 분포

순위	변인	합(편)	1957 ~60	1961 ~65	1966 ~70	1971 ~75	1976 ~80
1	인성	67		2	11	25	29
2	학습	55		3	8	30	14
3	인지	45	1	3	7	19	15
4	적응	22		2	3	9	8
5	발달	13		1	1	5	6
6	동기	12		1	3	3	5

위의 <표-4.5>를 종합하여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教育心理 분야의 석사학위 논문 주제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즉 독립변인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이 '환경작용'이고 종속변인으로 가장 많이 선정된 것이 '人性' '學習' '認知'의 순이므로 석사학위 논문 주제는 아마도 '환경작용이人性이나學習 및 認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 가장 많

았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 역시 초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작용 중에서도 특히 '家庭環境'이 '자아개념'이나 '性格' 및 '學業成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의 사실을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살펴보면 환경작용, 특히 가정환경에 대한 연구는 教育心理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지 위 <표-4.5>를 통하여 추론해 볼 수 있는 사실은 教育心理 분야의 석사학위 논문은 주로 性格이나 動機 같은 人間의 情意的 特性과 學習 및 認知 같은 知的 能力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위 <표-2>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3개의 변인을 다룬 19편의 논문 주제를 분석한 결과도 性格 및 學習과 환경작용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III

분석 결과 나타난 현상을 國內外「教育心理學」에서 포함하고 있는 주요 내용과 비교해보기 위해 194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미국에서 출판된 「교육심리학」 17종의 내용을 분석한 이상노(1961)의 조사와 1960년대 이후 출판된 「교육심리학(정원식 外 2人(1978)의 「현대교육심리학」을 비롯한 국내의 15권의 「교육심리학」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연구자가 조사 분석한 것을 표로 작성하여 보았다.

다음의 <표-6>은 교육심리학의 내용은 주로 각 章의 제목을 그 빈도순으로 추출해본 것인데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최근의 「교육심리학」일수록 心理學의 단일개념보다는 관련된 개념끼리 묶어서 그것을 教育의 맥락과 더불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표-6>에서 나타난 결과와 앞장에서 분석된 우리나라 석사학위 논문의 주제선택 경향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논문의 주제 선택 경향은 大學에서의 「教育心理學」 강의나 참고도서에서 내용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 즉 理論的인 것을 선정한다기 보다 教育의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껴지는 문제들을 주로 研究했다고

〈표-6〉 교육심리학의 내용

순위	이상노, 1961, 총 17권 중의 빈도	순위	연구자, 1982, 총 15권 중의 빈도
1	학습 (14)	1	학습 (15)
2	측정, 평가, 검사, 통계 (13)	2	성장발달 (14)
3	성장, 발달 (11)	3	적응 및 지도 (12)
4	정신위생 (9)	4	측정평가 (10)
5	교육과 교육심리 (8)	5	성격 및 정신위생 (10)
6	적응과 부적응 (8)	6	교수 (7)
7	상담과 지도 (8)	8	특수아 (4)
8	지능 (7)	9	교육환경 (3)
9	학습지도 (7)		
9	성격 (7)		
11	동기 (6)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석사학위 논문이 1970년대 이후 '교육대학원'을 통하여 인준된 것이라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왜냐하면 '교육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現場學校 教師들인 까닭에 教育의 실제, 특히 學校現場에서 느끼지

는 心理的인 문제들을 研究主題로 삼았을 확율이 높기 때문이다(표-4.5 참조).

또 한가지 제 I 장에서 진술된 教育心理學의 시대적인 변천 및 發展과정과 우리나라 석사학위 논문을 통한 研究動向을 비교해 보면, 心理學의 모든 理論 및 方法들이 教育에 적용되어 날로 심화 확충되고 있는 外國의 연구동향에 비해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즉 分析對象 논문의 거의 절반 가량이 환경작용에 관한 연구(2개 변인연구 225편 중 106편으로 47%)인 점으로 미루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너무 한정된 영역의 연구만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의 教育心理學 研究가 일천하고 또 大學院 教育이 일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날로 새로와지는 教育研究方法論의 발달과 더불어 참신한 主題로 教育心理 분야의 理論과 실제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研究들이 생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 TV 중학교 영어 · Radio 중학교 영어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UHF 교육 TV에서 방송하는 TV 중학교 영어 교재와 KBS FM Radio 교육 방송에서 방송하는 Radio 중학교 영어 교재가 새로 나와 전국 유명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발행처 : 삼화서적주식회사)



## 영국의 교과서

이 대 규

(부산대학교 교수)

필자는 1981년에 런던의 초등 영어 연수원과 학교, 그리고 런던에서 가까운 지방에 있는 두 교과서 출판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나의 출판사 방문목적은 영국의 교과서 전반에 관한 현황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영국 학생을 위한 영어 교과서, 즉 '영국의 국어 교과서'의 편찬에 관하여 유익한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이처럼 나의 관심은 극히 제한된 것이었고, 각 출판사에서 각각 하루에 여러 면담자와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험으로 영국의 교과서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마치 장님이 어찌다가 코끼리의 코끝을 만져보고 코끼리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한 나라의 교과서는 그 나라 사람들의 교육관과 교과서관, 교과서가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가지기까지의 역사적 배경, 교과서 편찬제도, 교사와 학생이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법, 교육과정, 학교제도, 입시제도 등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교과서는, 그 나라의 교육 전반과 관련 지어서 이해될 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이 글은 커다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교실 수업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교육 자료의 종류와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교과서 출판을 정부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므로, '교과서'라는 말이 매우 제한된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우리 나라에서 '교과서'라는 말은, 한 학년이나 학기 동안 교사와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특정한 책(인쇄 자료)만을 뜻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는 각 출판사가 교과서를 자유로이 개발하여 보급하므로, 그 종류와 수가 매우 다양하고

많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한 학년이나 학기에 한 가지 교과서만을 사용하지 않으며, 국민학교에서도 한 교과에 여러가지 교과서를 사용한다. 국민학교 영어교과서를 예로 들면, 영어 교과서에는 읽기, 작문, 문법을 통합한 교과서도 있으나 읽기, 작문, 문법만을 따로 다룬 교과서도 많다. 문법 교과서는 대체로 한 학년에서 일년 내내 사용하나, 작문이나 읽기 교과서는 비정기적으로 사용된다. 작문 교과서는 사실적인 글짓기와 창의적, 상상적 글짓기 활동을 하도록 꾸며져 있는데, 문법 교과서에서 배운 문법 규칙의 학습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읽기 교과서는 부교재, 또는 보충교재로서 동화(소설), 시, 신화와 전기, 사실적인 글 등만을 각각 따로 수록한 책들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책들이 정규수업시간에 다루어지는 일이 드물고, 특별활동으로서 드물게 사용되지만, 이 나라에서는 정규수업시간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대체로 읽기, 문법, 작문 등이 통합된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이 한 학년 동안 출판 사용하므로 '기본 교과서'라고 보고, 영역별로 편찬된 읽기, 작문, 맞춤법, 낱말연습교재 등은 기본 교과서에 종속되는 보충 교과서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이 나라에서는 한 교과목의 수업에서 여러가지 인쇄 자료를 융통성 있게 사용하므로, '교과서'라는 말이 매우 개방적인 뜻으로 쓰인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정적이고 제한된 교과서의 개념으로 이들의 교과서라는 말을 이해하면,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영국의 중등학교 제도는 대학 입학준비시키는 사립 중등학교와 문법학교 졸업후 사회로 진출하는 현대학교와 실업학교, 대학 진학 희망자

와 사회 진출 희망자를 함께 입학시키는 종합학교 등이 있어서 매우 복잡하다. 그러므로 중등학교 교과서는, 여러 종류의 목적과 각 중등학교 학생의 수준에 따라, 같은 교과라도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편찬된다. 중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려면,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하므로 사립 중등학교와 문법학교 상급학년, 또는 종합학교 진학반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이러한 시험준비를 교과서에 반영하기도 한다. 대학 입학 자격 시험 중 영어 시험은 교과서에서 출제되지 않고, 교육위원회에서 선정한 문학작품 목록에서 출제되므로, 출판사에서는 이에 대비한 보충교과서로서 문학 작품집을 출판하고 있다.

중등학교 영어 교과서에는 사립학교와 문법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교과서와 현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가 있고, 또 이 두 교과서의 특성을 절충한 새로운 교과서가 있다. 이 세 종류의 기본교과서는 모두 독서, 문학, 문법 작문이 종합된 것이다. 이 새로운 교과서에는 보충교과서(연습 교재의 성격을 가진 교재)가 부수되어 있다. 영어 교과서는 아니지만, 배우를 지망하는 특수 학생 집단을 위한 회화 중심의 교과서도 있다. 이 교과서는 전통적인 영어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영어 교과서의 보충 교재로도 쓰인다. 회화 중심 교과서에는 연극사나 연극 평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회화 중심 교과서의 보충 교재로 쓰이도록 회화 작품만을 수록한 교과서도 있다.

최근 맥밀란 출판사에서 수학 교과서, 과학 교과서, 사회과 교과서의 개선이 있었다. 전통적인 수학 교과서는 교사 중심 수업에 의존하게 되어 있고, 현대 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대 수학이론을 도입하고 탐구수업 방법을 채택한 새로운 수학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그러나 새 수학 교과서에 의한 수업은 교사에게나 학생에게나 익숙하지 않고, 수업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을 학교로부터 받고 있다. 이 출판사에서는 탐구 학습의 원리를 적용한 과학 교과서를 개발하였는데, 그 사정도 수학 교과서의 경우와 거의 같다. 앞으로 생물은 전통적 교과서, 물리는 탐구학습 교과서, 화학은 절충식 교과서로 편찬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중등학교 초급 학교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 사이의 학문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세 영역의 내용을 통합하는 교과서를 만들고, 상급 학년에서 학문의 영역을 분리하는 교과서 편찬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사회과 교과서, 특히 지리와 역사 교과서도 과거의 사실 중심의 암기학습 경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제나 기본 개념 중심의 새로운 교과서를 편찬하고 있다. 교과서의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보주의적인 교사들이다. 이들은 특히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위하여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한 교과서를 만들 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과서 집필을 직업으로 삼는 전문적인 교과서 집필자는 없다. 교과서 편찬은 각 출판사의 교과서 편집 책임자와 그가 선정한 학교 교사가 수행한다. 필자가 방문했던 롱맨 출판사(Longman Group)의 중등학교 영어교과서 편집책임자는 한 사람이었으며,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국민학교 전 교과서의 편찬을 책임지고 있었다. 맥밀란 출판사(The Macmillan Press Limited)에서는 한 사람의 영어 교과서 편집책임자가 국민학교와 중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편찬 책임을 지고 있었고, 이외의 다른 교과서는 한 사람의 중등학교 교과서 편집 책임자가 담당하고 있었다. 출판사의 교과서 편집책임자는 교사들 중에서 유능한 교과서 집필자를 선정한다.

국민학교 교과서 집필자는 국민학교 교사로부터, 중학교 교과서 집필자는 중학교 교사로부터 선정된다. 교과서 편집 책임자와 집필자는 공동으로 학년별 학습 내용의 계열과 각 학년 교과서의 단원 배열, 각 단원의 구조 등 교과서 집필 계획을 세운다. 교과서 집필자는 이 계획에 따라서 원고를 작성하고, 편집자와 함께 검토하면서 수정한다. 교과서 집필 기간은 집필자의 능력, 교과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한권당 2년 내외가 걸린다.

한 출판사에서 편찬하는 동일 교과서의 동일 교과서는 대체로 두 세명의 집필자가 함께 집필한다. 국민학교 기본 영어 교과서는 1권부터 6권까지가 있고, 중등학교 기본 영어 교과서는 1권

(56페이지에 계속)

## 일본 초등교육계의 현황과 문제점

박 아 청

(계명대학교 교수)

오늘날 일본은 사상 유례없는 경제대국을 이룩하고 몇 차례의 오일쇼크를 통해 그 발전 템포는 비록 느저졌지만 계속 착실하게 세계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오늘의 일본 경제 성장은 명치유신(1868년) 이후 시작된 근대교육이 그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큰 나무에는 큰 그늘이 있다고 하는 말과도 같이 오늘의 일본의 발전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필자는 그 가운데서도 초등교육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른바 교육의 국제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해외 귀국자녀 교육」이나 「교육·문화교류」의 문제, 최근 몇 년간 생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등교거부증」이나 아동에 있어서 성인병의 증가와 같은 심신이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배스컴 공해에 물리고 있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문제, 국가관, 민족의식에 대한 이념교육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어떠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일가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필자의 경험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요즘 일본 교육계에서 가장 심각한 이슈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학습탈락자의 문제

70년대의 학교현장에 있어서 중심적 문제의 하나가 「오찌코보레(落ちこぼれ, 탈락자)의 문제였다. 이 학습탈락자에의 관심을 높이기 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전국교육연구연맹의 조사보고(1971년)였다. 전국 국민학교의 65.4%의 교사, 중학교의 80.4%의 교사가 학급에서 반수 이상의 아동과 학생이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하

고 있으며, 수업에 따라갈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되었던 것이다.

60년대의 매우 낙관적인 풍토 속에서 진행되어 온 「교육의 현대화」에 찬 물을 끼얹고, 방향 전환을 하게 한 최대의 요인은 바로 이 탈락자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과학기술혁신—신시대의 교육」을 표방하고, 장미빛으로 물든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학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될 아동들이, 반수 이상이나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실로 쇼크였다. 1968—70년에 개정된 학습지도 요령이 내세운 하나의 모토였던 「현대화」는 그만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 학습탈락자의 문제는 초등교육계 뿐만 아니라 중등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두되었으며, 70년대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교육사조의 시금석이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 시작된 「주입식교육을 탈피하여 교육내용의 精選」에 의한 학교생활에 「여유(ゆとり)」를 회복하고자 한 교육과정 개정도 결국은 학습탈락자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응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학습탈락자 문제를 가장 진지하게 문제시하여 다루어 온 것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의 서열화에 의해 「탈락된 학생」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 고등학교의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고등학교에의 진학율은 1975년에 전국 평균 90%를 넘어, 1979년 4월에 「사상최고의 기록을 갱신」하고 드디어 95%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1980년 5월 1일 현재의 「학교기본조사」에 의하면 중퇴하는 고교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1년간에 4만 7천명 이상을 넘고 있다고 한다. 실제 국민



학교의 저학년에서 배우는 한자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고교생, 소수나 분수의 계산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고등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 각종의 조사에 의해 밝혀져 세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처럼 1970년대에는 탈락자에 대한 대책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알기 쉬운 수업」의 전략 설정이 교육현장에서 결실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open school의 방식을 도입하고자 시도되었으나, 그러나 대부분이 현장 교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 그 뿌리를 내리는 데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예컨대, 신설학교에는 개별화를 위한 기기도입이 극히 당연한 일로서 실시되지만 현장교사들의 소극적인 활용으로 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80년대에는 이 탈락자의 탈락 정도가 70년대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 이유는 교실에서 배운 것을 「할 수 없다」, 「모르겠다」만으로 끝날 때는 그런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제는 「공부하고 싶지 않다」, 「알고 싶지 않다」고 하는 학업에 무관심한 아동들이 증가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 탈락자는 인간적 여러가지 능력 가운데 하나의 층인 것에 불과한 「학력」이라고 하는 층을 넘어서, 이젠 인간적 제능력(학력을 포함하는)을 그 심부에서 지탱하고 있는 의욕, 또는 감정과 같은 층에 까지 탈락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경에 있는 어느 국민학교 5학년생은 「산수가 없는 나라에 가고 싶다」는 작문 속에서 「나는 ……때로는 산수를 만든 사람을 죽이고 싶은 때가 있다」고 써서 사회적인 불의를 빚은 적이 있다.

왜 이렇게 깊이 탈락하기에 이르렀는가? 여러 전문가들은 학교 수업이라고 하는 범위로 좁혀서 말하기를 학교수업이 아동으로부터 배우는 기쁨, 「학습하는 것의 즐거움」, 「공부의 즐거움」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고자 1979년에 개정된 새로운 학습지도 요령은 보다 아동의 학습하는 즐거움을 찾도록 하는 데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신지도요령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말할

수 있겠으나 한마디로 말해서 문교부(문부성)의 자질구레한 규제가 큰 테두리 안에서의 규준 및 표준만 제시하는 것으로 바뀌고, 구체적인 지도 계획 작성은 학교나 현장교사의 창의적인 연구에 일임하도록 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신지도요령에 있어서는 「교육의 인간화」를 크게 내세우고 있는데, 이 개정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제에서 이미 논의해 오던 바였다. 앞으로 이 신지도요령이 어떻게 아동의 주체적인 활동을 보다 즐거운 학습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장에서 학습탈락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 가치관 교육

다음으로 전후 일체의 권위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그 첫째의 과제로 들고 나선 교육이 오늘날 그 모순점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를 들 수 있겠다.

세계 역사상 전쟁에 패배한 나라치고 일본만큼 평화를 누리 본 국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본은 그 만큼 평화를 누리며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고 지나왔다. 그리하여 전쟁 후 30여 년간 줄곧 아무런 노력과 '수고없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오는 사이에 「국가」 또는 「애국애족」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구시대적 유물로서 현대에 있어서는 반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어휘에 속하는 말로 생각하게끔 까지 되어 버렸다. 필자가 7년전 일본 대학생들에게 우리 국민교육현장을 소개하자 학생들이 그것은 시대의 역행이라고 하면 때를 기억한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정세는 그렇게 안일하게만 지날 수 없게 되고 보니 이러한 풍토는 교육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문제는 어느 외국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이 「물과 자유를 거저(공짜) 얻은 나라 이기에 갖게 되는 필연적인 문제인지도 모른다. 평화교육이란 것이 감각적이고 낭만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교사들의 좌경화 현상은 아동들의 이념교육에 큰 문제점을 던지고 있다. 특히 日教組와 같은 좌경단체를 통한 현장교사들의 정치활동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을 배격하고, 아동의 국가의식이나 애국심을 흐리게 하고 있으며, 일본의 장래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최근 총리부가 주도한 아동들의 의식구조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장기를 자기나라 국기라고 알고 있는 아동이 겨우 '반수에 불과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같은 사실은 민족교육이라고 하면 무조건 전쟁 전의 국가주의로 되돌아 가는 것이라고 보는 데서 온 결과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작년부터 실시한 사회과 교과서의 개정작업은 아동들의 민족교육에 크게 힘을 쓰고 있으나, 그 실시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 동안 권리와 주장만을 강조해 온 전후 일본교육이 당면한 큰 난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초등교육제 뿐만 아니라 중등교육계에서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교사들의 정치적 활동의 과다로 인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교사들이 자기들의 이념이나 권익에만 치중한 정치 활동이 일반사회를 물론 아동들에게 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와 함께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던 학교에서 보면 어떤 교사는 자기의 직업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정치 활동(예컨대, 주입교사제도 반대 등과 같은 행정체제에 대한 것에서부터 자본주의 국가타도와

같은 정치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교장이나 행정당국자가 문제시되는 것을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했다. 그들의 활동을 위해서는 수업 스트라이크도 서슴치 않고 일으키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교사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들의 영향으로 아동들의 교사에 대한 불신과 혐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을 학교에 보내기보다 쥬우(塾, 우리나라에서의 학원)에 아동지도를 전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훈련은 학교에서, 공부는 쥬우에서"란 말이 있을 정도이다.

앞서 언급한 이 문제는 학습탈락자의 문제와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교사의 「권위상실」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한편 이러한 교사(T)와 부모(P)와의 부조화는 일본 PTA의 비정상적인 활동의 근원이 되고 있다. 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한 아동으로부터 "선생님, 그렇게 가르치시면 PTA에 꾸중들이요" 라는 말을 듣고 일본교육의 장래가 한심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것은 물론 극단적인 한 예이겠지만 분명히 오늘날 일본에서는 교직의 권위회복과 교육의 본질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 아동, 그리고 행정당국간의 불협화음은 80년대 일본 초등교육제의 최대의 과제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

(53 페이지에서)

부터 4권까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 표시는 학년 수준과 일치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학년수준을 나타내기 보다 학생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교과서의 크기, 표지 삽화 등과 관계되는 일은 교과서 편집자나 집필자가 결정하지 않으면, 출판사의 담당부서에서 결정한다.

이 글은 필자의 극히 제한된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이 글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한 것이 아니며, 보편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영국의 교과서에 관하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른 자료들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한 나라의 교과서는 그

나라의 교육 전반과 관련되어 있으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교과서는 단순히 교과서 개발 과정이나 현황, 그리고 각 교과서의 내용과 구조만을 살펴 본다고 하여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나라의 교육 현실과 조건은 우리 나라와 매우 다르므로, 다른 나라에서 편찬하고 있는 교과서와 동일한 교과서를 만든다고 하여, 우리의 교육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나라의 교과서는 우리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교과서 연구는, 우리가 우리나라 교과서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개선 방법을 찾고자 할 때, 유익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IEA 總會 參加報告

洪 雄 善

(本院 院長)

IEA 는 教育成就의 評價를 위한 國際的 協會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로서 현재 24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9년 3월에 참가하였으나 여러가지 國內事情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다가, 1981년 11월 學級環境 研究分野에 研究計劃書를 제출하므로써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IEA 는 매년 1회씩 總會를 개최하고 있는데, 금번 本人은 호주의 Canberra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하였던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日 程

1982. 1. 30. Canberra 도착

- 1. 31. 常任委員會 會議(Standing Committee Meeting)
- 2. 1. 公式會議 開會: 研究課題別 研究進陟報告
- 2. 2. 公式會議 續開: 研究課題別 研究의 質을 向上시키기 위한 戰略
- 2. 3. 公開討論會: 數學教育課程 및 數學教育의 實情
- 2. 4. 定期總會 開會: 各 委員會報告
- 2. 5. 定期總會 續開: 向後 問題討議 및 決定

## 參席者 紹介

正會員: 各國 代表 24人(韓國: 本人) 常任委員會委員 5人

招請人士: IEA 研究關係 人士 15人

參觀人: 13人(韓國: 中央教育研修院, 최지훈, 조태경)

## 重要議題

- 1) 研究課題 進陟報告會
- (1) Mathematics II

- (2) Classroom Environment
- (3) Science II
- (4) Item Banking
- (5) Writing
- 2) 研究의 質을 向上시키기 위한 戰略協議 (1항에 기록된 研究課題別)
- 3) 數學教育에 관한 公開討論會
  - (1) 數學教育課程의 變革과 그 效果(영국, 향가리, 호주, 스웨덴)
  - (2) 女性 數學教育의 變化(호주)
  - (3) 高等學校 數學教授法(미국)
  - (4) 國民學校 數學學級(캐나다)
- 4) 總會報告, 協議, 決定事項
  - (1) 前會議錄 낭독
  - (2) 研究課題別 報告
  - (3) 特別報告
    - 向後活動委員會 報告
    - 研究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한 戰略報告 實行委員會 報告(訓練委, 豫算委, 編輯委, 弘報委)
  - (4) 討議事項
    - 低開發國의 研究를 향상시키기 위한 方案 IEA 定款
    - 새로운 研究課題
  - (5) 決定事項
    - 豫算通過
    - 新入會員國 및 탈락된 會員國 議長選出
    - 다음 번 總會決定(1982. 10. 캐나다의 Toronto)

## 特記事項

금번 總會에서 수행된 각종 報告, 討議, 決定

事項 중에서 우리 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事項을 特記하면 다음과 같다.

1) 學級環境 Workshop 韓國 開催 要請

學級環境 IPC(International Project Council)에서 韓國代表(本人)에게 1983年 8月로 예정된 教師訓練方法 및 資料使用에 대한 Workshop을 韓國에서 개최하도록 요청하였다(1983年度 豫算이 反映되면 수락할 것임).

2) SISS 韓國 責任者 決定

금번 IEA 總會에서 SISS(Second IEA Science Study)의 韓國研究責任者 National Research Coordinator로서 中央教育硏修院의 최 지훈 박사로 결정하였다.

3) 韓國側 研究計劃書의 重要性 認定

向後活動 委員會(FAC: Future Activities Co-

mmittee)가 總會에 제출한 報告書에 의하면, 금번 KEDI가 제출한 研究計劃書「A Draft Proposal for an International Technical Education Study」를 참조하여 技術教育研究(Practical Skills Study)에 관한 既存計劃書를 再檢해야 할 것이며, 研究計劃書를 개선함에 있어서 韓國側 會員이 參與하도록 하였다.

4) 低開發國 研究支援問題

캐나다, 싱가포르, 태국, 한국 등 4개국 代表가 참여한 低開發國委員會(LDC: Less Developed Country Committee)에서는 IEA 研究에서의 LDC의 共同參與原則에 따라 LDC의 財政支援, 技術支援, 研究課題의 優先權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接近方法을 모색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韓國代表者(本人)는 LDC의 共同參與原則에 따라 LDC간의 差異를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

(59페이지에서 계속)

이 낮고 학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활용방법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 과제의 토의에서 얻은 결론은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자(프로듀서)는 교육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쌓아야 하겠다는 것, 프로그램의 활용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의 활용방법에 관한 교사의 훈련이 강조되어야 하겠다는 것,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방송국 내의 심의 체제 외에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그램 평가팀으로 이론적인 기초에 터한 연구와 아울러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피드백이 뒤따라야 하겠다는 것이다. ○

● TV 고교 교육방송 교재 발행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KBS 제 3TV와 문화방송(재방송)을 통하여 방송되고 있는 82년도 TV 고교 방송교재가 각 과목별로 발행되어 전국의 일반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 教育放送 세미나(APEID) 參加報告

金 亨 立

(本院 教育放送部長)

본 세미나는 1981년 10월 5일부터 10월 16일 까지 말레이시아의 수도 Kuala Lumpur 에 있는 아세아-태평양방송개발연구소(AIBD)에서 열렸다. 아세아-태평양지역 11개국에서 참가했는데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 4개국에서는 자원인사로 1명씩 참석하였고, 나머지 회원국인 방글라데쉬 3명, 말레이시아 1명, 말디브 1명, 네팔 2명, 파키스탄 1명, 파프야뉴기니아 2명, 스리랑카 3명으로 총 13명의 훈련생이 참석하고, 오만에서 1명이 참관자로 왔었다.

세미나의 처음 이틀간은 교육방송 현황과 전망에 대한 자원국 4개국의 보고와 나머지 7개 회원국의 보고에 이어 각국의 교육방송 당면 문제와 과제에 대한 전체 토의가 있었다. 제 3일째부터는 자원국의 자원인사를 의장으로 하는 4개의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로 참석국가의 보고서를 종합하는 한편 각국의 교육방송 당면 문제의 해결책을 토의·모색하여 전체 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전체 회의에서는 각 분과의 보고에 터한 교육방송 문제점 해결책을 다시 토의·모색하여 11개국의 보고서를 종합정리하였다.

본 세미나에서 수행한 두번째 과제는 1980년에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 4개국에서 수행한 "교육방송 방향과 활용"에 관한 각국의 National Workshop 보고서를 분석·종합하였다.

세번째 과제는 동남아 및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가상적인 한 나라의 국민 교육수준, 교육체계, 경제여건, 종교, 지리적 조건, 사회적 여건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에 터해서 국가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한 모의 교육방송체계를 수립하였다.

각국의 보고에 의하면 동남아 및 태평양 연안

의 모든 나라는 라디오교육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역사는 적어도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이 라디오 교육방송도 그 가칭지역이 전국을 커버하지 못하는 나라가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들은 그 가칭지역이 일부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TV 교육방송의 경우, 한국, 일본, 파키스탄 등 몇 나라만 교육전용 방송망을 갖고 있었고, 아직도 많은 나라가 교육전용 방송망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교육방송 전용방송망을 갖기를 원했고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전용 방송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저개발 국가에서는 문맹퇴치, 국민들의 생활양식 개선, 취학을 향상 등 농촌의 근대화를 위한 성인교육의 일환으로 교육방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교육전용 방송망을 갖춘 나라에서는 학교교육의 지원체제로써, 방송통신교육의 수단으로써, 교육방송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교육방송망의 확대를 비롯한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교육방송의 효율적 활용 등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 모임의 가장 핵심적인 토의 과제는 바로 이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 모두가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프로듀서를 갖고 있었고, 학교 교사들을 동원하여 프로그램 원고를 쓰게 하고, 출연을 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프로그램의 평가 내지 피드백 체계가 미비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활용면을 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시청률

(58페이지에 계속)

# 국민학교 교육과정 통합화를 위한 동남아시아 공동연구

— 유네스코 방콕지부 주최 국제회의의 보고 —

과 병 선

(本院 教育課程研究調整室長)

지난 1981년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유네스코 방콕지부 교육혁신개발센터(ACEID: Asian Center for Educational Innovation & Development)가 주관한 “국민학교 교육과정 통합화를 위한 동남아시아 공동연구 종합회의”에 한국측 대표로 교육개발원에서 본인과 김춘일, 사성주 연구원 세 사람이 참석하고 돌아왔다. 이 글은 이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 1. 공동연구의 경과

이 통합 교육과정 국제 공동연구에 참가한 나라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태국, 인도, 네팔,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8개국이었다. 이 공동연구는 유네스코 방콕지부의 ACEID가 주관하였는데,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첫번째 국제회의를 1980년 10월 서울 교육개발원에서 가졌었다. 대체로 이 공동연구에 관심을 갖고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각국의 교육연구소, 또는 교육과정 연구개발 센터의 교육 전문가들이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국립교육연구소에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그밖의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센터의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이 계획수립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통합교육과정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여 각국의 사정에 맞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추진과정에서 상호 새로운 정보, 아이디어, 연구경험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때 수립된 공동연구 계획에 의하면 1981년도 중반에 각국은 희망하는 나라의 발전현황을 관찰 연구하기 위하여 나라간의 연구방문기회를 갖기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국의 경험을 종합 정리 평가하는 종합회의를 갖도록 하였다.

이미 우리 나라는 이 계획단계에서 국민학교 1·2학년용을 위한 통합교과 구성의 기본방향이 서 있었고, 82년도 전국화를 대비한 교육과정 편제상의 조치 및 교과용도서 개발이 교육개발원에 의해서 착실히 진전되고 있는 중이었다. 1981년 9월에 있었던 공동연구 국가간의 상호 연구방문에 있어서 우리 나라를 제외한 7나라 중 일본, 태국, 인도, 네팔의 네 나라가 우리 나라를 관찰하러 다시 왔었다. 이때 우리 나라를 방문한 대표들은 통합교과서 실험용 도서를 검토하고 현장실형 연구학교도 방문하는 등 교육개발원에서 전국 34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대규모의 교과용도서 현장검증(실험) 현황을 돌아보고 갔다.

그리고 이번 12월에 열린 마지막 종합국제회의는 예정보다 앞당겨진 것이었는데, 특별히 이 회의에서는 서울대 이영덕 교수가 두 사람의 자원 인사중 한 분으로 위촉받아 이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이 종합회의에서는 공동연구의 산물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현재 수정 보완 중에 있다. 이 종합회의에서 중요하게 토의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2. 토의된 주요내용

● 통합교육과정의 개념 및 방법 : 통합교육과정은 여러가지 양식으로 이해되고 존재할 수 있다. 한 교과 안에서의 통합이 있을 수 있고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교과의 벽을 헐어버리는 통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본 아이디어

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지식과 경험의 재구성  
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전통적인 교과나 학문  
간의 경계선이나 벽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탈피  
해 보는 것이 교육목표 달성에 보다 충실하고  
학생에게 보다 의미있는 교육과정이 되지 않겠  
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 또는 학문 영역  
간의 벽을 허무려 뜨려도 좋을 경우가 어떤 경  
우인지 전체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추  
구하는 교육목표가 어떤 성질의 것이며, 또 추구  
할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학생들의 필요  
욕구가 무엇이며 그들의 심리적, 생리적 발달수  
준이 어떤 것이냐' 등의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  
토를 요구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통합교육과정  
이란 단순히 영역이 다른 교과를 묶어 새로운  
형태로 재조직한다는 내용 조직상의 의미 뿐만  
아니라, 재래의 교육관에 대한 다소의 수정을  
암시하고 있다. 아마도 이중에 두드러진 특징은  
이질적인 영역간의 개방과 협력을 통하여 보다  
의미있는 학습의 촉진을 도모하려는 점이다.

통합교육과정은 교과영역이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완전통합(total integration)과 부분통합(pa-  
rtial integration)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완전  
통합은 주제중심, 문제중심으로 지식이나 경험을  
교과 또는 학문영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대로 재  
구성하여 교과영역의 지식이나 경험이 주제나  
문제에 완전히 종속되는 경우이며, 부분통합은  
교과영역의 독립성이 다소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 통합은 연속상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교과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같은 부분통합이라도 그 정도에는 얼마든지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우리들은 일학  
년'은 완전통합에 가깝고,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부분통합에 속한다.

교육과정 통합화의 접근 방법에는 광역적 접  
근, 주제 또는 과제(project) 중심접근, 학습자  
의 흥미 중심적 접근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내용  
상 관련을 가지고 있는 교과끼리 통합했기 때문  
에 광역적 접근이라 볼 수 있고, '우리들은 1학  
년'은 학교생활 적응을 주제로 한 주제중심 또  
는 흥미중심 접근이라 볼 수 있다.

• 통합교육과정의 설계와 개발: 통합교육과정의

연구·개발에 관해서 각국 대표들이 합리적이라  
고 합의한 절차는 1) 아동 및 사회의 현상과 미  
래의 욕구 분석 2) 교수 목표의 설정 3) 내용의  
선정 및 구성 4) 교수전략의 선정과 조직 5) 학  
습결과의 평가방안구안 6) 현장 검증과 수정 7)  
보급과 계속적인 질관리였다.

### 3. 동남아 각국의 현황

본 공동연구에 참가한 나라들의 대표들은 필  
자가 실시한 질문지 조사에서 통합교육과정의  
연구개발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스리랑카와 태국은 이미 통합교육과정  
을 수년전부터 적용하고 있어 이 분야의 실천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있는 나라들이다. 스리랑카  
는 국민학교 1~5학년에 걸쳐 74년부터 통합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국은 1~6학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데 78년도부터 일년에 한학  
년씩 확대해 지금은 국민학교 4학년까지 적용하  
고 있다. 네팔은 1979년부터 1~3학년을 대상으  
로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분적으로 현장  
검증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75년부터 연구·개  
발에 착수하여 83년도부터 해마다 한 학년씩 늘  
려가며 적용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교육  
과정 정책에 있어서 지방분권적인 인도는 1976년  
에 실험연구를 착수하여 현재 개발 단계에 와 있  
으며, 일본은 우리 나라처럼 획일적인 접근과  
움직임은 없지만 학교 교사들이 통합적 지도에  
대하여 관심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공동연구 참가국들이 교육의 질  
적 개선을 위한 하나의 처방으로 교육과정 통합  
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금년부터 우리 나라도 국민학교 1~2학년 통  
합교과 지도의 전국화가 이루어지지마는, 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가지로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우선 학교 선생님들이 통합교과  
에 관한 아이디어를 깊이 이해하여 효율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교수  
준에서 통합교과지도의 효율화를 위한 현장연구  
가 많이 수행되어야 한다. 교육개발원도 이러한  
교육현장의 필요에 부응하고, 통합교육과정에 관  
한 접근을 보다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합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

## 未就學 青少年教育에 관한 共同研究 綜合會議 參可報告



李 允 植

(本院 研究員)

筆者는 李延燮 수석연구원 및 서울교육대학의 金智子 교수와 함께 작년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개최된 未就學 青少年教育에 관한 共同研究의 綜合會議에 참가하였다.

이 공동연구는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支部의 APEID 후원하에 1980년 7월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그 목적은 同地域의 여러 국가들에 있어서 청소년들 중 전혀 正規學校 教育을 받지 못하였거나 正規學校에 입학을 하였더라도 적어도 後期 中等教育까지를 마치지 못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만한 적절한 知識, 技術 또는 態度를 습득치 못한 者들의 教育的 要求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教育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 相互協力을 기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격의 공동연구는 綜合會議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즉 최초의 研究設計方法 開發을 위한 회의 (Design Development Meeting), 국가별 研究實施 (National Research Study), 국가간 연구 협조를 위한 방문 (Inter-country Study Visits), 국가별 워크숍 (National Workshop)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綜合會議를 갖게 된 것이다.

이 종합회의의 목적은 未就學 青少年教育에 관련된 제반 정보와 지식을 수집 보강하기 위하여 이미 會員國家에서 수행된 연구의 결과와 경험을 종합하려는 것이다. 즉, ① 이미 수행된 회원국가의 연구에 있어 研究設計, 研究方法, 研究節次 및 道具를 검토하며, ② 회원국가에서 수행된 연구의 產出結果를 검토하며, ③ 앞으로 이들 未就學 青少年들을 위한 教育프로그램의 施行計劃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이 綜合會議에 참가한 나라는 韓國을 비롯하여 방글라데쉬, 인디아, 네팔, 파푸아 뉴기니

아, 스리랑카 그리고 中共 등 모두 7개국으로서 각국에서 3명씩의 研究者 또는 關係行政家가 참가하였다. 그 밖에 다수의 UNESCO 및 태국의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이 회의의 進行過程을 지켜보았다. 첫날 開會式에는 태국의 文敎部長官인 Dr. Sippanondha Ketuda가 참석하여 특별히 開會辭를 함으로써 본 회의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였다.

첫날 午前會議는 全體會議로서 임원의 선출, 會議進行計劃의 樹立, 국가별 議案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오후부터는 3개의 討議主題를 선정하여 그룹회의를 진행하였다. 參加者 20여명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 會員 國別로 2-3명을 분산 배당하였다. 각 그룹들은 會員國들의 研究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보다 명확히 분석해봄으로써 그룹별 報告書를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시켰다. 또 이 그룹별 報告書는 全體會議에서 동아져 最終報告書로 작성되었다.

각 그룹의 討議主題는 ① 研究過程 (Process) : 調查研究의 方法, ② 研究結果 (Product) : 調查研究에 의해 밝혀진 知識, ③ 展望 (Potential) : 教育프로그램 또는 연구의 발전방향이였다. 각 그룹의 討議結果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1그룹: 각 국가에서 사용한 調查設計와 方法, 標準節次, 調查道具 등을 검토하였다. 즉 각 국가의 보고서를 분석하여 각 국가별 未就學 青少年教育 對象人員, 對象人員 抽出根據, 要求分析을 위한 標集, 要求分析을 위한 調查道具 및 方法, 현행 教育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한 標集, 評價道具 및 方法, 연구의 제한점, 그리고 追後調查計劃 등을 정리하였다. 이 결과는 하나의 도표로 작성되었다 (도표생략).



② 제 2 그룹 : 각 국가의 연구를 통하여 발견된 사실을 종합하므로써 未就學 青少年教育 改善을 위한 知識과 정보를 수집하였다. 발견된 사실들은 未就學 青少年의 教育의 要求分析과 현재 각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評價로 구분된다. 분석결과, 방글라데쉬, 인디아, 네팔, 파푸아 뉴기니아 및 중공 등의 국가는 初等教育段階에 있어 未就學 青少年教育의 필요성이 높으나, 한국과 스리랑카는 後期 中等教育段階에 있어 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學齡兒童들은 주로 正規學校에相應하는 교육프로그램(혹은 卒業證取得 爲主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는데 비하여 成人들은 주로 技術訓練 혹은 機能教育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외에도 言語解讀 教育 프로그램이나 算數教育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상과 같은 教育的 要求에 비추어 보아 현재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평가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토된 교육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學習者들의 教育적 요구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적절히 계획 및 조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프로그램운영 목적이 未就學 青少年들의 요구에 대하여 適合性이 결여될 때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없게 되며, 결국 이들의 社會的 不利益을 보상해 줄 수도 없게 된다.

둘째, 각종 프로그램 내 또는 프로그램들 간의 協調가 충분치 못하다. 이와 같은 協調不足의 원인은 한 국가내의 여러 다양한 형태의 사회교육프로그램들이 종극적으로는 未就學 青少年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단일 목적하에서 共存하며 相補關係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관계자들의 認識不足에 있다고 하겠다.

셋째, 정규학교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에서의 학생들의 中途脫落率이 높는데 이와 같은 教育的 浪費는 未就學 青少年教育의 效率性을 저하시킨다. 教育的 浪費에 대한 豫防的 措置가 事後의 治療的 措置보다는 효과적이며 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보다 바람직하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훈련, 敎具의 준

비, 行政的 支援, 예산확보 및 지속적인 評價 등은 正規學校 教育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의 효과를 높이는 前提條件이 되나, 會員國의 실정은 이러한 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듯하다. 비교적 만족스러운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의 진과정에 걸친 적절하고 효과적인 指導 및 獎學活動(monitoring supervision)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③ 제 3 그룹 : 각국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프로그램을 抽出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인디아의 CAPE(Comprehensive Access to Primary Education), 방글라데쉬의 Mass Education Programme, 스리랑카의 Technical Education Unit Programme 그리고 韓國의 勤勞青少年을 위한 特別學級 및 產業體 附設學校 등을 들 수 있다.

綜合會議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提案事項이 추출되었다.

첫째, 각 會員國들은 未就學 青少年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설치 운영을 위해 본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追後研究를 계속한다.

둘째, 각 會員國들은 未就學 青少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弘報를 위해 大衆媒體를 적극 활용한다.

셋째, 각 會員國들은 국가별 調查研究 및 국가별 視察의 결과에 따라 개선된 교육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한다.

넷째, UNESCO의 APEID는 계속적으로 각 會員國들이 未就學 青少年들의 教育의 要求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도·지원하며 會員國들 간의 共同研究를 주선한다.

이상으로 未就學 青少年教育에 관한 共同研究 綜合會議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았다. 모든 會員國에서 平生教育의 일환으로 未就學 青少年들에 대한 보다 개선된 교육프로그램 제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추세에 부응하여 未就學 青少年들의 教育的 要求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규명하는 일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教育的 要求의 구체적인 概念定義와 이의 측정을 위한 道具 및 方法의 改善研究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 國民學校 英語教育

— 特活의 方向 —

(本院 外國語教育研究室長) 李 熙 淑

## 1. 시행의 문제점

교육, 특히 외국어교육이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외국어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가히 무한하다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주 변인(main variables)으로 ① 피교육자(연령·능력·학습동기 등) ② 교육자(능력·자질·성의) ③ 교재 및 시설 ④ 교수법 ⑤ 언어·문화·지리적 배경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 국민학교의 영어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에 대한 의욕이나 관심은 높은데 비해 教授의 필수 3大要件인 교사·교재·교수법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국민학교의 영어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부과하지 못하고 주당 1시간 정도의 특활로서 여건이 갖추어진 학교부터 시행해 보는 「허용」의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국민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教授의 3大要件인 教師·教材·教授方法의 미흡 문제 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 1) 학부모와 교사의 과열현상
- 2) 정책의 비일관성에서 비롯된 교사의 열의 부족(과연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의욕)
- 3) 교육 외적인,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용 회화교재의 범람
- 4) 과대규모 학교 내지 과밀학급 현상
- 5) 영어반 학생 인선 내지 아동간의 위화감
- 6) 시청각 기재의 미비
- 7) 중학교 영어 교육과정과의 연결
- 8) 중학교 초기영어의 능력차의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이상에 열거한 문제점들은 훌륭한 영어교사가 지도했을 경우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중학

교에서 새로 가르치기 보다 몇 배 어려운 교정의 문제가 다르게 된다.

## 2. 특활의 목표와 내용

외국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길은 목표어(target language)에 젖을 수 있는 자연스런 환경에서 집중적(intensive)으로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특활로서 수업활동(extra-extensive)을 하게 되는 국민학교 영어의 경우, 언어를 구조적으로 쌓아 올려간다가나,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한 기초를 튼튼히 한다기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소재를 통하여 영어가 배우기 쉽고 재미있는 말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면서, 흥미와 호기심이 좌절되지 않고 중학교 영어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활에서의 영어지도 내용은 구체적 개념이 사용된 단순한 口語(말하기·듣기)로 조직되어야 한다. 다만 文語(읽기·쓰기)의 경우 학년말에 알파벳을 익히기 위한 수단으로 어린이들에게 친숙하면서 구체적인 '단어'를 선택하여 읽게 하거나, 알파벳을 써 보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특히, 언어의 4기능인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중에서 학습하기 가장 어렵고 늦게 발달하는 쓰기 기능은 중학교에 들어가기까지 일단 미루어 놓아야 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목표와 내용이 선정된다.

### ● 목 표

- 1) 어린이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다.
- 2) 알파벳을 익힌다.
- 3) 영어에 관한 초보적인 이해를 한다.
- 4) 크리스마스·생일 등의 습관을 안다.

## ● 내 용

### 1) 소 재

(1) 대화 : 인사, 자기 소개, 가족관계, 식사, 어린이들에게 비교적 가까운 직업, 교실, 시간, 요일 등

(2) 어린이들의 흥미에 관한 소재 : 운동, 동물, 색깔, 계절, 음식, 숫자 등

(3) 문화에 관한 소재 : 크리스마스 · 생일 등

### 2) 어휘

어린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외래어(radio, piano, christmas 등)와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준외래어(tiger, time 등)를 비롯한 구체적인 개념의 어휘

### 3) 알파벳 : 읽기 · 쓰기

### 4) 영어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

(1) 영어의 인칭

(2) 단수 · 복수 개념

(3) 현재형 · 진행형의 시제

(4) 서술문 · 의문문 · 명령문

## 3. 특활의 지도 및 평가

어린이 특활 영어지도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영어를 배운 사람은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입문기의 영어일수록 우수한 교사가 가르쳐야 한다. 어릴 때 외국어를 가르칠수록 좋다는 이론은 어린이들의 뛰어난 유연성 · 암기력 · 모방력에 근거하고 있는 바, 이것이 장점인 동시에 역으로 잘못 지도했을 경우에 그로 인한 교정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고로 다음 사항에 유의 지도하도록 한다.

### 1) 교재 및 지도방법

초기 영어교육에 관한 職前教育이나 教師再教育이 전혀 없는 현시점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급적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억제하고 어린이들의 발달수준과 지적 흥미에 알맞은 내용들로 잘 구성된 언어자료를 native speaker에 의해서 녹음된 녹음자료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는 절대로 많이 가르치려는 욕심을 금하고 어린이들이 실재감을 갖지 않고 즐겁게 영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교사는 수업준비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

애하여, 청각자료에 병행되는 시각자료(그림 · 실물 · 몸짓 · 종이 인형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교사가 유의할 점은 근엄한 교사라는 입장보다 연극 또는 희극배우가 되어 과장된 몸짓(miming), 상황제시 그림 등으로 어린이들이 듣고 있는 내용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발음의 조음점(articulation)을 설명할 때 외에는 우리말 설명이라던가 해석 등을 억제하여 한 번이라도 영어녹음 자료를 더 듣고, 따라하고, 이미 배운 말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모든 기회를 마련토록 교사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 2) 시간운영 및 학습규모

연간 학교교육 총 週數는 1학기 17주, 2학기 15주로 32주가 된다. 주당 1시간씩 특활영어를 실시할 경우 중 · 고등학교의 2개월간 수업분량인 32시간이다. 수업시간수도 문제이지만 1주일간의 공백이 더 큰 문제다. 희망자에 의해서 영어특활만이 한 두반 구성되는 경우에는 어렵겠으나, 학년 단위로 시행하는 학교는 학교의 일과가 허용하는 한 매일 10~20분씩 같은 내용을 한 주 동안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희망자에 의해서 특활영어반을 구성할 경우,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60~70명 한 반 단위를 반으로 나누어 운영해야 할 것이다. 현장의 실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욕심을 부리자면 특활실이 따로 있어서 영어를 배우고 싶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꾸며놓고 재미있는 그림 중심의 도화체도 비치해 놓아 자자의 수준에 맞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영어를 배우게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 3) 평 가

평가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말로도 글로도 절대로 평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칭찬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어린이들의 가능성을 막고, 좌절시키는 유일한 적(敵)은 무의미한 평가다.

## 맺 음 말

이제 우리 앞에 닥친 이 과제를 놓고 걱정이 나 불평을 하기 전에 서로 이해하고, 독려하며, 좋은 정보를 나누어가면서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원 내 동 정

### ● 원내 세미나 및 협의회 ●

- 82년도 본원부서별 연구사업심의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다.

교육과정부 2월 9일(화) 9:30~16:00

교육발전부 2월 10일(수) 9:30~16:00

교육방송부, 교육자료국, 방송통신교육연구실  
2월 12일(금) 10:00~16:00

- 2월 25일부터 2일간 본원 연구과제로 수행 중인 여성 고급인력양성 및 활용방안 연구 계획서 검토 및 연구의 방향정립을 위한 협의회가 원외 김 회영(노동부)의 6명과 본원 연구진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3월 5일부터 2일간 서울대 김신일 교수 외 5명과 본원 연구진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원 과제로 수행중인 "사회발전을 위한 교육의 균등화 방안연구"의 일환으로 연구모형, 연구문제검토 및 가능한 연구변인탐색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3월 4일부터 2일간 "한국관 시정"사업에 관한 본원의 추진 방침을 협의하기 위하여 본원 간부진과 자문교수 및 원내 연구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3월 24일부터 2일간 본원 교육 기초연구 과제별로 수행 중인 "학생의 진로 분석에 관한 연구의 방향검토 및 구체화를 위한 협의회가 서울대 차경수 교수 외 4명과 본원 연구진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3월 11일 본원 정책연구 과제인 "교원연수체제 모형개발"을 위한 협의회가 연구진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교육정책 연구과제로 수행 중인 "적정단위 교육비" 연구계획서 검토 및 연구진행을 위한 협의회가 문교부 기획예산담당연구원 김 영희 외 4명과 원내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 국제회의 ●

- 신 세호 부원장은 3월 8일부터 14일까지 유네스코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국립교육연구소 주

최로 개최된 "지역사회계획검토 및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참석하였다.

- 홍 응선 원장은 1월 30일부터 6일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IEA 총회에 참석하였다.

### ● 내 방 ●

- 2월 9일 필리핀 교육과정 연구팀 Dr. Pablo Natividad 외 2명이 본원을 방문, 4일만에 걸쳐 교육과정 및 교과서개발에 관한 폭넓은 의사교환이 있었다.

- 2월 18일 유니셉 아시아 사무국의 Dr. Clarence Shubert(도시아동전문가)와 Cecilio Adorna(프로그램평가 전문가)가 본원을 방문, 이 정근 직업·기술교육 연구실장과 유니셉 사업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 청사증축 기공식 ●

- 3월 30일 본원 이사장(유형진), 문교부차관(정태수) 외 본원 이사진과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본원 청사 증축기공식이 있었다. 연건평 1,455평 규모의 5층 건물로 삼호주식회사에서 시공하며 오는 10월말 준공 예정이다.

### ● 이사회 개최 ●

- 3월 30일 오전 제37차 결산이사회가 본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유 형진 이사장, 정 태수 문교차관, 정 인용 경제기획원차관, 홍 응선 원장, 윤 종현, 이 명덕, 이 창갑 이사와 김 낙운 감사(문교부보통교육국장)가 참석하였다.

### ● 인사동정 ●

- 3월 2일 직원 인사발령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 영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  
임 한수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  
이 재창 교육발전부 정책3실장  
남 석우 교육발전부 서무실장  
함 회철 교육과정부 서무실장  
조 성원 교육방송부 서무실장  
전 한철 사무처 총무과장  
박 승해 교육자료국 출판실장

**KBS 3 TV**

● 한국 교육개발원의 연구진이 특별히 개발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각 교과목의 특성을 포괄적·단계적으로 다루어 내용이 충실하며, 시청 전후에도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 한 방송교재의 혁신판이다!

# 고교 교육 방송 교재

● 고교 교육 방송 주간 편성표 ● 한국 교육 개발원

국어 수학I(삼) (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구분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본 방송	K	19:00 19:30	수학 I	수학 I	수학 I
본 방송	B	19:30 20:00	고 1 국어	고 2 국어	생물	국민윤리 사회문화	국사	지구과학 전로지리
	S	22:00 22:30	고교 영어	고교 영어	고 3 국어	고 3 국어	고 3 수학	고 3 수학
		22:30 23:00	물리	정치경제	화학	국토지리	세계사	인문지리
재방송	MBC	05:30 06:00 06:00 06:30	고 3 수학	고 3 수학	물리	정치경제	화학	국토지리
			세계사	인문지리	고 3 영어	고 3 영어	고 3 국어	고 3 국어

영어 국사  
세계사 정치·경제  
국민윤리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

교 학 사

\* MBC TV 재방송은 본 방송 2일 후에 방영됨.

삼화서적 주식회사

격월간 **고 교육 개발원** 제 4 권 2 호 · 통권 17 호  
1982년 4 월 5 일 인쇄 · 1982년 4 월 10 일 발행  
등록 바 - 574 (1975년 8월 20)  
발행인 홍 웅 선  
재단법인 한국 교육 개발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면동 산 20-1  
전화 567-5121, 567-5021  
인쇄처 신성인쇄사

\* 본誌의 내용은 本院의 公式的인 意思가 아님.

